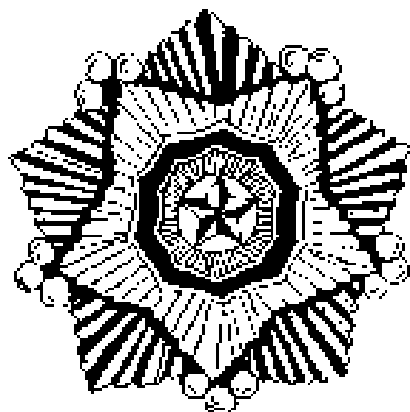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11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11호

(루계 제 697 호)

차례

| | |
|---------------------------------------|----|
| 군중문학창작활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선군시대의 중요한 요구 | 3 |
| 작전바위앞에서 | 5 |
| 우리 가는 길 | 5 |
| 일본땅에 나타난 특사 | 6 |
| 적구에서 벌리신 군민오락회 | 8 |
| 총대높이 마중가리 강성대국 래일아 | 8 |
| 룡마구름 | 9 |
| 냉이국 | 9 |
| 영웅이여, 우리 떠나노라 | 9 |
| 고향으로 돌아 온 병사 | 10 |
| 장편소설 《생명수》가 나오기까지 | 10 |
| 그리움의 세계 | 13 |
| 난알향기 | 21 |
| 축 복 | 22 |
| 아기가 웃는 소리 | 23 |
| 나의 일터는 땅입니다 | 23 |
| 가 을 | 24 |
| 강선은 평양결에 있다 | 25 |

| | |
|-----------------------------|----|
| 백양나무야 내가 왔다 | 26 |
| 새 강철지령서를 받아안으며 | 26 |
| 나는 죄물로 말하며 산다 | 27 |
| 인사를 받아다오 | 28 |
| 강선의 노을은 지지 않는다 | 28 |
| 어리석은 말벌 | 29 |
| 50 년가을에 | 30 |
| 일심단결아리랑 | 39 |
| 이 땅에 통일이 온다 | 40 |
| 유모아 | 41 |
| 밤렬차의 기적소리 | 42 |
| 못잇을 대동강 | 43 |
| 력사의 교훈과 조국의 섬 | 44 |
| 《을사 5 조약》 | 46 |
| 냉이포에 피빛노을이 타오른다 | 47 |
| 《야스구니진자》에 부치여 | 60 |
| 경구, 격언 | 60 |
| 성구, 속담 | 60 |
| 밑 천 | 61 |
| 한 군관의 상념 | 71 |
| 탄부의 철학 | 76 |
| 조국과 나 | 76 |
| 허버트 조지 웰스의 생애와 창작활동 | 77 |
| 뿌슈킨의 단편소설집 《벨끼씨의 이야기》 | 78 |
| 목숨은 버릴지언정... | 79 |

군중문학창작활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선군시대의 중요한 요구

홍영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오늘 우리가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선군혁명에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문화적소양과 풍부한 정서를 지닌 참된 인간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가장 숭고한 위업이다.

선군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 사회문화생활을 끊임없이 개선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혁명적군인문화의 창조자, 선군시대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선도자로 세워주시고 전체 인민들이 인민군대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혁명적군인정신아 차고넘치는 우리 식의 혁명적군인문화, 이것은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지향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가장 우월한 문화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건전하고 고상한 혁명적군인문화를 따라배워 온 사회에 혁명적정서와 랑만이 넘쳐나게 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가는 곳 그 어디에서나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환경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중문화사업, 군중체육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군군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그리하여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나라에 활짝 꽃피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학창작사업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군중문학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정서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신심과 랑만에 넘쳐 살며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는 열정과 투쟁의 마를줄 모르는 샘이다.

우리는 군중문학창작을 적극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인 군인문화가 활짝 꽃피나게 하며 혁명적

이며 정서적인 생활향기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군중문학창작을 극 장려하는것은 문학후비들을 키우자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문화정서가 차넘치게 하여 혁명적군인문화가 더 활짝 꽃피게 하자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선군시대 군중문학활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적군인문화가 차넘치게 하자면 우선 온 나라를 문학작품창작열의로 들끓게 하는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보다 문명해지고있는 21세기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학작품을 전문가들이 창작한것만으로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이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문학작품창작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작품창작은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며 누구나 한번 좋은 작품을 창작해내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나라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수많은 영웅적위훈과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현실은 문학창작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생활소재들을 안겨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누구나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혁명적군인문화의 창조자가 되겠다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자기가 잘 아는 생활, 늘 체험하는 생활을 작품으로 쓰겠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

여기서 특히 청년들이 앞장에 서는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청춘시절에 한번 세상에 대고 소리칠 만 한 명작을 내놓겠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 불타는 정열을 안고 작품창작에 달라붙을 때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우수한 작품을 내놓을수 있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자기 청춘시절을 값있고 보람있게 보내는것이고 먼 후날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는것이다.

우리는 들끓는 현실속에서 살며 일하면서 문학작품창작에도 적극 떨쳐나서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왕성히 창작해내는것은

로써 선군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해야 한다.

선군시대 군중문학창작활동을 벌려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문화가 차넘치게 하자면 또한 문학통신원들이 군중문학창작에 앞장서는것이 중요하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선구자이며 믿음직한 작가후비이다.

언제나 문학통신원들이 높은 창작적열정을 지니고 군중문학작품창작에 앞장설 때 많은 군중들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킬수 있다. 이로부터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기 위한 군중문학창작에서 문학통신원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문학통신원들은 우수한 작품창작을 위해 자기의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을 기어이 창작해내겠다는 드높은 창작적열정을 안고 언제나 생활을 탐구하고 시간을 아껴가며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군중문학을 발전시키는데 누구나 힘있게 이바지해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학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군중문학창작지도일군들과 작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군중문학창작사업은 혁명적군인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뿐만아니라 선군혁명문학의 성과적건설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군중문학창작지도일군들과 작가들이 이 사업을 잘해나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학작품창작을 기대할수 없고 그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할수 없다.

군중문학창작지도일군들은 자기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책임성을 높여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군중문학창작에 대한 지도를 창작지도일군들에게만 의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것은 응당 모든 작가들의 사업으로 될 때 군중문학창작사업이 더 잘 될수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창작과제가 아무리 바빠도 군중문학창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작품지도, 개별담당제를 실속있게 꾸준히 벌려나가며 문학통신원들과 군중속에서 작가후비의 새싹을 찾아내기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군중문학창작사업을 도와준다고 하여 작품을 대신 써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깨우쳐주고 항상 신심에 넘쳐 작품창작에 달라붙을수 있게 참답게 이끌어주는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작가동맹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랑으로

해마다 중앙과 각 도들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창작강습도 실속있게 운영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선군시대 작가후비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문화가 차고넘치게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학창작활동을 적극 벌리는데서 문학소조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는것도 중요하다.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기 위한 군중문학창작활동을 벌리는데서 문학소조는 반드시 필요한것이며 그것을 활성화해나가는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험은 군중문학소조활동이 활발히 벌어진 곳에서는 생산도 생활문화도 잘되었을뿐아니라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었고 여기서 훌륭한 작가후비들이 배출되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군중문학소조의 운영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해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수한 문학작품창작에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책임일군들은 마땅히 선군시대문학의 대중화실현에서 문학소조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을 적극 떠맡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군중문학창작사업은 더 활기있게 진행될것이며 그 과정은 곧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차고넘치게 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창작지도기관들과 출판기관들에서 중요명절때나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과 《4. 15 충성의 만경대창작상》, 《<청년문학>상》, 《<아동문학>상》 등 시상식도 잘해나갈뿐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거나 출판되지 못한 작품들에 대한 처리도 책임적으로 해줌으로써 군중문학창작사업이 언제나 활기에 넘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기 위한 군중문학창작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는 크며 여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라고있다.

우리는 새 세기 정치사상생활에서는 물론 문화정서생활에서도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해야 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서의 군중문학창작사업에 힘있게 떨쳐나섬으로써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우수한 문학작품들이 왕성히 창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되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작전바위앞에서

주광일

지혜산 푸른 산정우에
바위는 조용히 서있어라
고지와 고지로 이어진
천리전선을 한눈에 굽어살피며

허나 작전바위여
너는 우리 수령님
어린시절 나무칼 높이 들고
일제를 칠 장수힘을 키우시던
만경대의 군함바위와도 같이
내 나라의 바위로
그 이름 높구나

멀리 흘러간 세월은
바위에 이끼를 덮었어도
령장의 그 자욱
불멸의 그 위업에는
한점 이끼도 없을수 없었거니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그날
여기 지혜산에 오르시여
이 바위우에 작전지도를 펼치시던
아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안광은
세기를 넘어 빛발쳐오는듯

바로 여기서 그어지지 않았던가
미제를 죽음의 《함정골》에 처박은

백전백승의 령장
백두장군의 붉은 화살표가

력사의 그날
이 바위우에 놓여졌던것은
한장의 군용지도만이 아니였다
이름없던 이 바위우에
조국의 운명이 무겁게 실려있었거니

오만한 강도의 숨통을 조일
불타는 조국의 강대한 힘이
위대한 령장의 손길을 따라
거대한 물줄기로 뻗어간
작전바위!

오 바위는 조용히 서있어도
전승을 안아온
수령님의 령사가 흐르는
조국결사수호의 전선길에
승리의 메부리로 높이 솟았구나

높이 서있으라
수령님 지키신 값높은 조국을
목숨바쳐 지켜야 함을
가슴속에 생명처럼 있어주는
지혜산의 작전바위여!

가사

우리 가는 길

김성옥

새 세기 언덕에 높이 올라서
우리가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시련은 많았어도 영광떨치며
수령님 따라서 한길을 왔네
아 그 길우에 조선이 빛을 뿌렸네

새 세기 령마루에 높이 올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라다보니
폭풍은 몰아쳐도 승리 떨치며

장군님 따라갈 한길만 있네
아 그 길우에 조선은 더욱 빛나네

우리가 걸어갈 선군의 한길
백두의 위업을 떨쳐가는 길
시련이 막아서도 기어이 넘어
이 땅에 강성대국 높이 세우리
아 그 길우에 조선의 번영이 있네

일본땅에 나타난 특사

1940년대 전반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계속하지 못한채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전쟁의 불길을 미친듯이 확대하였다.

일본 《천황》과 군부정권은 날마다 그 무슨 황군의赫赫한 《전과》를 요란스레 떠들며 《후방의 안녕》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고아댔다.

이로 하여 놈들의 아성인 도교궁성과 《대본영》은 철통같은 경비진을 쳤고 거리와 골목, 지어 일터와 대학들, 녹거리술집과 하루밤려인숙 할것없이 헌병, 경찰들의 살기쁜 눈초리속에 들어있었다.

그때에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소곤소곤 우리 동포들의 원한서린 고역장들과 그들이 사는 곳으로 백두산의 장수별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들속에는 한때 **《김일성장군님의 특사가 도교에 나타났다》**는 희한한 소문도 들어있었다.

어떻게 왜놈들의 삼엄한 감시망과 열검, 스무겹으로 둘러싼 경비진을 뚫고 **김일성장군님**의 특사가 도교의 네거리한복판에 나타났을까?

일본에서 제일로 용감한자, 일본에서 제일로 무서운자, 성미가 면도칼같은 사나이로 불리우는 악명높은 도교 히데끼가 《대본영》의 주인으로 틀고앉은 때의 일이었다.

면도칼같은 도교는 입만 벌리면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천황폐하》를 위해 죽으라느니,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라도 태평양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거니 하며 목이 터지라 고아댔다.

이미 조선과 중국대륙에 손을 뻗친 후 이제는 온 아시아를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집어넣은 도교였다. 그러한 그가 요즘 신경과민증에 걸려 《대본영》을 일대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걸핏하면 전화통을 집어던지고 각료들에게 고래고래 소래기를 지르기도 하는것이였다.

어떤 날에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공공 앉음소리를 내다가는 갑자기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미쳐날뛰기도 했다.

처음은 한달에 두번정도 나타나던 증상이 최근에는 거의 매일이다싶이 나타났다. 그도 그럴것이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관동군을 련속 수세에 빠뜨리고 《대일본제국》의 명줄을 각일각 조이고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매일 《대본영》으로 날아오기때문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각 전선에서 방대한 무력을 저마다 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때에 관동군이 **김일성장군유격대**에 발목을 붙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으니 실로 복통이 터질 노릇이

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김일성**장군님의 《특사》가 일본본토에까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 도교의 신경발작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졌다.

어느날 도교는 각료들을 불러다가 다블러댔다.

《바야흐로 천황폐하의 하늘같은 <존엄>과 대해같은 <덕망>으로 하여 조상대대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대동아공영권>의 성업이 이룩되고있는 력사적시각에 후방이 어찌서 이리도 소란하단 말이냐… 피멸되었다던 **김일성**장군유격대는 의연히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며 우리 황군의 뒤통수를 후려치고있다. 게다가 요즘은 도교 한복판으로 백두산의 특사가 대낮에 활보한다고 하니… 경무총감, 말해보라. 이게 사실인가?》

《각하!》

경무총감은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와들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근시기 **김일성**장군유격대의 맹렬한 군사정치공작으로 조선인들의 태도가 눈에 띄이게 달라지고있는바 진해 해병대에서 조선청년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로 가겠다고 일으킨 집단 탈출사건, 평양주둔 80사단의 반일학도병무장대 사건 등이 그러하다고 력설했다.

또한 조선인들의 이러한 반일기운이 본토에까지 뻗쳐 동맹회, 충성회라는 각종 명칭의 비밀조직이 나오고 지어 자산계급출신의 자식들이 다니는 제국대학과 중앙신학교, 6고등학교사건들, 니이가다철공소의 **김일성**대가 특별히 주목을 끌고있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도교쪽을 바라보며 어조를 바꾸었다.

《각하! 그러나 그닥 녀려할것은 없습니다. 벌써 전국 각지에 경찰대와 헌병대의 수사망을 그물처럼 늘였습니다. 대일본제국의 수도인 이 도교에는 절대로!… 그 <특사>설은 필경 류언비어일것입니다.》

《닥쳐라! 본관은 이미 관동군 헌병사령관시절에 **김일성**장군과 직접 겨루어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승천입지, 신출귀몰하는 축지법, 네가 이걸 알기나 하는가?》

도교는 회의석상이라는 체면도 잊고 자기도 짹 짹 놀랄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신경발작이 일어난것이였다.

낮이 기울어서야 입맛없는 점심을 치른 그는 심신의 피로를 풀 양으로 폭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한 15분 지났을가. 잠든듯 하던 도교가 와락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켰다.

《에이 지꾸쇼(개새끼들)!》

벌겋게 충혈된 눈을 부릅뜬 도교는 머리가 쪼개지는것 같은 불쾌감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자기 머리를 마구 거머쥐고 흔들었다.
이것도 최근에 계속되는 이상증상이었다.
어쩐지 잠만 들면 관동군 헌병사령관 시절 밀림 속에서 유격대의 총에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은 졸병들의 시체가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리는 것이었다.

오늘은 그 시체들이 모두 되살아나서 자기를 따라오는데 아무리 총을 쏘고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소리치는자도 있었다.

아무리 뛰고 뛰어도 마음뿐이지 걸음은 떠지지만 하더니 마침내는 그자들의 손아귀에 멀미를 잡히우게 되었다.

도조는 너무도 기겁하여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날은 종일 기분이 나빴다.

오후 첫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뭘야? **김일성** 장군의 특사가?...》

김일성 장군의 특사가 먼 북해도의 탄광에 나타났는바 자기 동포들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눈후 갑작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도조는 헌병대를 몽땅 풀어 특사의 행처를 گیری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럴 때 두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도교경시청에서 온 보고인데 지금 **김일성** 장군의 특사가 제국대학에 나타나 버것이 강의를 하고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무슨 도깨비감투끈인가. 특사에게 날개라도 달렸단 말인가. 북해도에서 언제 도교에까지...

다시 전화종이 울렸는데 경찰들이 포위환을치고 들어가보니 혼잡통에 특사는 갑작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변장술이 보통 능하지 않고 눈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는 조화를 부린다고 했다.

《밥통들! 머저리들! 모가지를 베버릴 썩어질것들!...》

도조는 너무 분통이 터져와 살맞은 범처럼 이리뛰고 저리뛰며 안절부절했다. 전화통이 또 박살이 났다. 오늘날도 벌써 두번째의 신경발작이었다.

의사가 달려와 주사를 놓았다.

도대체 특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때 조심스레 들어온 처녀서기가 한문테기의 편지묶음을 내놓았다. 그중 큰 봉투를 따로 내밀면서 《한 젊은 사나이가 면회를 청하고 기다리다 이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하고 조용히 아뢰었다.

도조는 다른것들을 활 밀어놓았다. 그런데 왜서인지 그 큰 봉투에 자꾸만 눈길이 갔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쳐 결봉을 찢었다. 봉투안에서 편지지가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빈 종이장이었다.

도조는 호기심이 부쩍 동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무것도 씌여있지 않았던 백지에서 글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침략의 피수 도조 히데끼야.

우리는 조선에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침략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최후발악을 해도 그것은 네놈들의 멸망을 앞당길뿐이다.

네놈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전쟁을 중지하고 항복하는것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최후통첩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도조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두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통첩장이 도조의 얼을 뽑아버린 것이었다.

한참만에야 《대일본제국》의 주인이라는 자기 체면을 세워보려고 미친듯이 부름종을 눌러댔다. 그로부터 30분이내에 일본각지에는 《비상계엄령》이 하달되었다.

경찰과 헌병, 특무들은 거리와 골목, 심지어는 뒤골목의 쓰러져가는 하루باط려관까지도 살살이 뒤져냈다. 눈에 걸리는것, 색다르게 보이는것은 닥치는대로 잡아들였지만 백두산에서 온 특사는 하늘로 올랐는지 땅으로 잦아들었는지 종무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불쑥 도교의 한복판 제국호텔접수에서 통지가 왔는데 한 고급호실의 탁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대표 최아무개》 라고 쓴 명함장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도조는 그 말을 듣고는 급소를 맞은 사람처럼 결상체로 나가넘어졌다. 이번에는 거품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여느때보다 쇼크시간이 꺾 늘어났다. 증상이 험악한 세번째로 되는 신경발작이었다....

그는 《대본영》의 자리를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도조가 특사소동이 있는 후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피해망상증환자와 같이 되었는데 그 증상이 대낮에도 해빛을 저어하는것으로, 지어 제 너편네까지도 방안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발광적인 지랄로 나타났다. 그러다가도 정신이 들면 또 전쟁, 전쟁하며 미친개처럼 짖어댔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조는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을 전쟁의 대참화속에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8.15해방과 함께 력사의 교수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만 것이었다.

김종석

적구에서 벌리신 군민오락회

주체28(1939)년 추석을 한주일쯤 앞둔 어느날이었다.

함경북도 무산군 삼사면 유평리 도화동(지금의 연사군 광양리 도화동)에 있는 목재소의 한 합숙방에서는 유격대원들과 목재소로동자들의 흥겨운 오락회가 벌어졌다.

실로 보기 드문 일의 하나였다.

비밀지하공작을 나온 소부대성원들이 노동자들과 어울려 밤이 깊도록 오락회를 한다는것은 웬만한 담력을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적들의 경계가 물썰틈없는데다가 도처에 적의 밀정이 우글거리는 서두수강변의 산골마을에서 벌어진 이날밤의 오락회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발기하시고 진행하시는 대중정치사업의 하나였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으로부터 연사지구에 나가 지난 여름철에 조직해놓은 혁명조직들을 보다 확대강화할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고 오중흡련대장이 인솔하는 무장소조와 함께 연사지구로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목재소로동자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두터이하실 목적으로 이런 정치사업을 벌리실 용단을 내리신것이였다.

오락회는 처음부터 흥성거렸다.

유격대원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상을 지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 지명받은 동무는 레외없이 방한복판에 나와서 부르게 되였다.

오락회참가자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가, 못부르는가 하는데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유쾌하고도 즐거운 이 한순간에 노동자들은 피어린 혈전의 언덕을 넘고 넘으며 조국해방전을 벌리고있는 투사들이 왜놈들의 모진 착취와 압박속에서 신음하는 자기들을 기쁘게 해주고 민족의 의기를 잃지 말라고 힘있게 고무해주는 그 진정이 고마와 그저 웃음속에 눈물을 머금으며 노래

를 불렀다.

이날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향가》를 부르시기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사향가>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히 배워주신 노래입니다.

우리는 조국이 그림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들이 그리울 때면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시는 노래의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에 그려잡았다.

부모형제들을 고향에 두고 벌써 여러해째 이 비좁은 《함바》에서 고역살이를 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겨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노래를 마치시자 모두 요란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정말 좋은 노래라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고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노래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오매에도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혈육들과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면 모두가 **김일성**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합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모두다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또다시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졌다.

목재소로동자들은 모두 손을 내뻗치며 자기들도 싸우겠으니 이끌어달라고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용단에 의해 마련된 이날의 오락회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소부대가 맡은 혁명임무는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가사

총대높이 마중가리 강성대국 래일아

홍민식

래일은 래일은 어디서 시작되나
오늘의 선군길에 숨쉬고있네
장군님 따라서 총대로 열어가는
래일은 우리의 불타는 사랑이라네
총대높이 마중가리 강성대국 래일아

래일은 래일은 어떻게 찾아오나
우리의 붉은기에 실리어오네
폭풍이 사나워도 선군승리 축포울릴

래일은 우리의 철석의 신념이라네
총대높이 마중가리 강성대국 래일아

래일로 꽃피날 값높은 오늘은
조국의 번영속에 영원하리라
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치여갈
래일은 선군시대 우리 삶의 노래라네
총대높이 마중가리 강성대국 래일아

룽마구름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현지시찰소식이 전해지자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천출명장이신 장군님을 칭송하는 다음과 같은 《룽마구름전설》이 생겨나 널리 퍼지였다.

백두산장군인 **김정일**령도자님께서 백두산의 룽마구름을 타고 하늘을 훨훨 날아 판문점으로 나오시였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룽마구름이 몰아온 백두산의 눈보라가 삽시에 흰 안개로 되어 판문점일대에 자욱히 내리였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서는 몽게몽게 피여 감싸고 도는 젖빛안개가 흐르는 속에 전선지척에까지 나

오시여 이 일대를 살살이 시찰하시였다. 그때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의 수많은 감시병들은 숨소리조차 가려들을수 있는 지척에 있었지만 자욱한 안개속에 묻혀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하였다.

하기에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판문점시찰을 마치고 유유히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뒤늦게야 알게 된 판문점의 한 미군장교는 기절초풍하여 병병해있다가 한참만에 《당장 발밑에서 원자탄이 터지는줄 알았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이 도술을 써서 안개를 끼게 한것 같다. 정말 신비하기 그지없다.》고 찬탄점 비명을 올리였다.

냉이국

박정철

하루훈련 마치고

숙영지에 돌아오니

푸짐한 냉이국이

우리를 반기누나

천막가에 감도는 향긋한 국냄새

싱그런 불향기에 잘도 어울린다

취할듯 구수한 냉이국맛에

오늘의 야전식사 만점이로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냉이국을 끓여주던

정깊은 어머니 그 사랑인가

병사들을 아끼는 장군님사랑

군관가족 녀인들의 뜨거운 정에 실려

천리 먼 고향향취 모두 안고 여기 왔네

이름없는 산중 외진 골안에

고향의 향취 그윽히 풍겨오니

산골물 지줄대는 이 풀밭도

내집 아래목처럼 따스하구나

조국을 지켜가는

병사들 무쇠가슴에 넘치는 봄기운

칼벼랑을 날아넘는 나래가 되고

결전장에 메아리칠 우뢰가 되리니

전우들, 우리 사양치 말고 많이 들자

불덩이가 끓고있는 이 냉이국

수호의 넋이 식지 않게

영원히 간직하자 봄맞이 냉이국

영웅이여, 우리 떠나노라

-순천 리수복화학공업대학에서-

곽명철

떠나노라 리수복영웅이여
교정의 《돌출부언덕》에 높이 서서
언제나 우리를 불같이 맞이하던
그대의 곁을

졸업증을 가슴에 품은 우리를
비록 그대곁을 떠나가도
그대의 마음속 심장의 부탁만은
하나같이 간직하고 떠나노라

날마다 교정에 들어설 때면
그대는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한
위훈의 스승이였다
그대의 어깨너머 비껴오는
준엄한 그 년대의 화염질은 하늘가는
그대로 조국과 청춘을 뚜렷이 새겨준
철판이였다

그대와 다름없이

우리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
그대와 다름없이
우리에게도 둘도 없는 이 목숨
그대 력사에 남긴 삶 그 철리대로
아낌없이 기꺼이
값높은 《열다섯발자욱》으로 빛내이리니

믿어다오 리수복영웅이여
그대의 모교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란 우리들
조국앞에 언제나 부끄럼 없으리
그대의 다음 《결사조》가 되여
조국땅 어디서나 위훈의 자욱 새기리

오 떠나노라
오늘도 식지 않은 그대의 따발총
세대의 계주봉으로
가슴마다 간직하고
떠나노라 우리들
조국을 위한 그 《돌출부》에로

고향으로 돌아 온 병사

김정삼

고요로이 깊어가는 산간마을의 밤
앞내별 외글대던 개구리소리도 그만 그쳐
포근한 요람속의 자장가런듯
버들방천 물소리만 더욱더 유정 한데

낮익은 집앞에 당도한 제대병사
나는듯 달려오던 발걸음 멈추었네
아, 달빛아래 단잠 든 고향집
달빛아래 단꿈 꾸는 고향집

군모를 벗어두고 가까이 다가서는
병사의 얼굴도 달빛에 그윽해라
군복입고 떠나서 그 몇해런가
그 얼마나 간절하던 고향집인가

이제라도 마당에 성큼 들어서서
아들이 왔다고 소리쳐 부르면
전등불도 못컨채 방문이 열리리라
그러면 어머니는 있어질듯 달려나오고
중학교 갓 졸업한 동생 분이는
춤추듯 뛰쳐나와 이 오빠의 품에 안기리라

가슴속에 넘실 파도치는 걱정이어
가슴속에 터질듯 부푸는 환희여
토방아래 잠든 강아지도 깨어나랴
병사는 살머시 사립문 열고 들어서네

밤별은 뿔길듯 하늘가에 총총하고
발소리 죽여가며 마당가를 거니는
병사의 눈빛은 한없이 정겨워라

령도자와 작가

지붕우에 덩실 열린 호박들도
울바자를 뒤덮은 줄당콩넌출도
개구리울음소리 유정한 저 논벌도
고향의 이 평온, 이 행복한 꿈을 지켜
언땅에 배를 대인 전희의 밤은 얼마였고
폭우속에 내닫던 행군길은 몇천리런가
다시였을 청춘을 조국의 방선에
뿔뿔이 세워놓고 돌아온 병사이기에
그토록 귀중히 안겨오는것인가
단잠든 고향의 이밤은...

푸름푸름 새날의 려명은 밝아
수탉의 해치는 소리 마을을 깨우는데
소랭이 들고 부엌문 여시던 어머니
그만 문고리를 전채 우뚝 섰구나
마당에 무저놓은 버짚나래우에
네활개 쪽 퍼고 누운 병사의 모습!

아 굴러가던 가랑잎소리에도
자리차며 잠을 깨던 병사여 병사여
감나무가지엔 새들이 날아퍼지고
보고싶은 어머니 방문을 여셨는데
어이하여 잠에서 깨지 못하는가

어머니는 보았네 장난꾸러기
그 시절로 되돌아간듯
잠든 그 얼굴에 어리는 고요한 미소를
군복앞가슴에 소중히 빛을 뿜는
아침이슬 함초룩한 훈장들을!

장편소설 《생명수》가 나오기까지

주체67(1978)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장편소설 《생명수》를 읽어주시고 높은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뜻밖의 소식에 접한 작가는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생명수》는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좋은 책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편소설 《생명수》는 전후시기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어지돈관개공사를 다그치는데 대하여 형상한 아주 좋은 소설이라고,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생명수》에는 당시의 심각한 계급투쟁과 오랜 지식인을 쟁취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주 잘 반영되었다고 교시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좋은 작품을 써서 위대한 수령님께 만족을 올린 작가를 평가해줄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도 베풀어주시였다.

작가(변회근)는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작가는 온밤 끓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생명수》의 창작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장편소설 《생명수》를 창작하기 시작한것은 그때로부터 10년전 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8(1969)년 12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청소년들을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널리 교양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지돈관개공사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지난날 봉산벌에서 살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논에 눈석임물과 비물을 받아넣고 농사를 지었으며 물이 고여있는 동안에는 온 벌판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장보러 갈 때에도 함지를 라고 다녔고 학생들이 학교에도 함지를 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곳 사람들이 어지돈관개의 덕분으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잘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작가를 무한히 흥분시켰으며 창작으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봉산벌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해야겠다는 창작적결의로 작가의 심장은 고동쳤다.

하지만 창작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 작가가 몇

해를 두고 고심하던 끝에 겨우 써놓은 《생명수》의 초고는 심중한 결함으로 하여 읽는 사람들을 몹시 실망케하였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생산기술적문제에 파묻혀 인간들이 살아나지 못했다.》, 《사회주의건설을 취급한 선행한 작품들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소설이 재미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런 때 작가의 타들어가는 가슴에 열정과 탐구의 생명수를 부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 이시였다.

작가는 주체61(1972)년 9월초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서 종자에 관한 그이의 독창적인 리론을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때 지금 문예총에서 낸 소설들과 시들을 보면 사상적알맹이가 없이 그저 늘어놓았기때문에 작품에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있다고, 이것은 다 종자를 바로 선택하여 취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작가의 캄캄한 앞길에 밝은 항로를 비쳐준 등대였으며 타드는 가슴에 활력을 부어준 생명수였다.

소설의 초고가 가지고있는 기본결함이 바로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를 옳게 심지 못한데 있었다.

순간 작가의 눈앞에는 전후의 그날 봉산벌 백성보를 거쳐 청계골 막바지에까지 찾아오시어 어지돈관개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우렁이 안겨왔고 푸른 물결 넘실넘실 파도치는 서흥호가 펼쳐졌다.

그다음은 어제날 봉산벌농민들의 가공한 모습이 떠올랐다....

봉산벌농민들의 물에 대한 소원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보신분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수령님께서서는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봉산벌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어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자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작가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혼자 부르짖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종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하늘도 임금도 주지 못한 생명수를 봉산벌사람들에게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되여야 한다.

종자를 찾아온 작가의 머리속에는 벌써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한 등장인물들과 구성체계, 장면들까지 환히 떠올랐다.

작가는 새로운 환희를 안고 막혔던 물목이 터

지듯 단숨에 소설을 써나갔다.

주체66(1977)년 여름 장편소설 《생명수》의 초고가 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소설의 초고를 보아주시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전반에서 설명적인 요소들을 대담하게 버리며 형상의 밀도를 강화하고 집중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그릴수 있는 원칙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문학작품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동적으로 그릴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도를 밝혀준것으로서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주인공의 형상을 높이기 위하여 봉산벌농민들이 홍수때문에 겪는 비

참한 운명을 주인공의 운명선과 련관시켜 보여주는 장면들을 설정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밖에도 주인공의 형상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세심히 밝혀주시음으로써 장편소설 《생명수》의 초고가 가지고있는 결함과 부족점들을 철저히 극복해나가게 되었다.

소설의 초고에는 주인공 박대성이 언제건설장에서 달아난 남성우를 데리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를 설복교양하는것으로만 그려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의 초고를 보시고 남성우의 준비정도로 보아 원칙적인 비판을 주어 그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형상대안을 세워주시음으로써 주인공의 풍격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하여주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장편소설 《생명수》는 시대의 명작으로 태어날수 있었다.

단편소설 (2)

그리움의 세계



1

(원 저런! 저 사람이 꽤나 덤벼치는군.)

화물자동차적재함에 실린 대형전동기를 바줄로 단단히 비끄러매놓은 정학세는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다. 심성규가 이편으로 달음쳐오고있었다. 한쪽어깨에 훌쭉한 배낭을 걸멘 그의 긴다리가 룩상선수처럼 불이 일었다. 그 모양을 잠시 눈여겨보던 정학세는 눈곱이 저려났다. 열흘나마 외지에 와있던 사람이 오늘 제집이나 다름없는 발전소건설장에 돌아가게 되니 저렇게 험담비는듯 실다.

화물차기관실쪽에서는 운전사인 명길이가 휘파람으로 명쾌한 곡조를 뿜으며 뿡각기에 물을 넣고있었다. 뜨거운 물김이 열려진 기관실뚜껑안에서 솟어나왔다. 해플넉의 맵쌀 날씨였다.

정학세는 다시 일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대형전동기옆에 줄지어 세워놓은 포장한 장독들사이 사이에 버짚단들을 쑤셔넣기 시작했다.

《명길이, 차정비는 빈틈없겠지?》

어느결에 달려온 성규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명길은 벌써 웃으며 한손으로 머리 한옆에 삐딱이 걸린 하얀 고깔모자정수리를 툭 건드렸다. 기분이 좋을 때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나의 준마는 언제나 준비됐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명길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이었다. 성규는 아무 대꾸없이 배낭을 벗어 운전칸에 집어넣고는 제창 적재함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지배인아바이...》

성규는 잠깐 가쁜숨을 몰아쉬었다. 땀에 뜬 그의 길쭉한 얼굴은 어지간히 흥분되어있었다.

《아바이, 방금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동기가 늦어도 11시까지 현장에 도

착해야 오전중에 조립하여 오후부터는 혼합장부하를 최대로 걸수 있다고 합니다. 지배인아바이한테 빨리 전하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되게나 보채는군. 누가 그걸 모른대!》

정학세는 물풍스레 내뿔었다. 자기가 이미 잘 알고있는 일을 새삼스레 강조하는 건설지휘부 치사가 자못 못마땅해서였다. 그러던 정학세는 이내 코소리를 《흠, 흠》 내더니 (하긴 그 사람들이 그럴만도 하지.)하며 혼자소리로 수궁했다.

발전소 조기조업을 앞두고 누구보다 신경을 쓰는것은 건설일정을 하루하루 맞춰가고있는 건설지휘부 일꾼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차에다 실어놓은 전동기가 도착하기를 눈이 까매 기다릴수 있었다. 정학세는 방금 자기가 터친 역증을 후회하듯 낮빛이 어색스레 붉어졌다. 성규는 전동기포장상태를 살피는척 어물거리며 그를 못본체하였다.

보름전,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콘크리트혼합장의 심장부라 이르는 대형전동기 한대가 고장났었다. 그통에 언제썰기가 계획대로 추서지 못하게 되었다. 정학세지배인은 고장난 전동기를 전기설비수리를 전문하는 여기 공장에 부탁하였다. 그때 기업소동력기사인 성규를 따라보냈던것이다. 성규는 이곳 기술자들과 함께 밤낮을 이어가며 서둘러 열흘만에 낡은 전동기를 새것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기별을 받고 지난 밤 정학세지배인은 원상복구된 전동기도 찾아가고 겹하여 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이곳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사례도 하고싶어 직접 화물차를 끌고 달려왔다.

《그래 여기 동무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나?》

정학세는 그사이 수척해진 성규를 측은한 눈길로 여겨보며 물었다. 성규는 거치른 수염터를 손

으로 끌며 어쭙게 웃었다.

《여기 친구들이 놓아주지 않아 혼났는걸요. 지난밤 아버지가 한상 차린것때문이겠지요.》

《뭘 그래서였겠나. 그새 자네 일숨씨에 반해서였겠지. 아무튼 빨리 떠나세. 자네가 오늘 전동기를 싣고가면 건설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떠받들거네. 자네 색시도 왔겠다, 아주 때마침일세.》

《에-에?!》

《오, 내가 어제 건설장을 떠날 때 우리 로친네랑 자네 처랑 가족들이 지원물자를 한자동차 싣고왔더군. 인츰 되돌아서겠다는걸 자네 처가 섭섭해할것 같아 내가 멈춰놓았네. 오늘 오전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일세. 참, 자네 오늘 복이 터졌네. 뽕도 따고 님도 보겠으니, 허허...》

정학세는 찔찔 웃으며 성규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성규는 귀밑을 붉히며 뒤더수기를 굽적거렸다.

성규는 군대에서 제대되어 대학까지 나오는바람에 나이 30이 훨씬 넘어서야 장가를 들었다. 허지만 신흥생활의 단맛을 볼새없이 발전소건설장에 뛰어들어 한몫 단단히 하고있었다. 정학세는 신접 살림을 남몰래 그리워할 성규의 심정을 헤아려 늘 윈심을 써왔다.

아까부터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명길이가 적재함에 얼굴을 볼썽 들이밀었다. 애젊고 덜컹진 그의 눈에는 초조한 빛이 어리였다.

《이 장독들은 여기서다 맡겼다가 후에 실어가면 안되겠어요?》

《그건 왜?》

《11시까지 도착하려면 500리길을 4시간 달려야 할텐데 꽤 성해내겠어요.》

《그럼 이 큰 적재함에 전동기만 싣고 가겠다는 거냐?》

명길의 성큼한 코밑이 실그러지고 흥안의 볼따귀가 약간 부어올랐다.

《직장들마다 술한 비닐통들을 갖고있는데... 메주장이야 거기다 담그면 되잖겠어요.》

《이 녀석아, 옛적부터 장맛은 오지독맛이라 했나.》

《어쨌든 난 11시까지의 무조건 달아야 해요. 책임비서동지가 신신당부했는데요 뭘.》

《원, 저녀석은 옛저녁부터 책임비서를 거들더니... 그래 책임비서가 장독들을 싣지 말라더냐?》

《그런건 아니지만... 장독때문에 속도운전을 못 할가봐 그러지요 뭐.》

《잔말 말고 여기 건설사업소골재장에 차를 들이대라. 게서 모래를 독밑에다 한벌 쭉 깔고 떠나잔 말이다.》

정학세의 어조는 단호했다. 얼핏 보면 촌늙은 이와 같은 인상이 짙은 그한테서 수천명을 거느리는 지배인이라는 위풍은 전혀 찾아볼수 없어

확고한 주견과 높은 실력, 빈틈없는 사업조직들은 그 <위풍>을 감당하고도 남았다. 오히려 틀거지가 없는 그 소박성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 믿

고 존경하였다.

그러나 이 순간 마음은 벌써 건설장에 가있는 성규의 부푼 가슴은 어딘가 허전해졌다. 지배인 아버지가 후방일군들이 천천히 해도 될 별참은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신경을 쓸뿐더러 시간을 끄는것이 안타까웠다. 물론 성규는 이 급한 대목에 끼여든 장독내막을 모르지는 않았다.

정학세지배인은 3년전부터 발전소건설장에 나와있는 종업원들의 부식물을 자체로 해결할 목적으로 건설장주변에 직장들마다 부업지를 떼주어 남새와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장려하였다. 올해엔 예상외로 콩농사가 잘되어 건설자들이 다채로운 콩음식을 해먹게 되었다. 지금은 메주쓰는 계절이라 직장들에서는 저마끔 장독들을 미리 장만하려고 애썼다.

정학세지배인은 지난 밤 전기설비수리공장일들을 마치고는 그길로 독공장을 찾아 장독들을 마련했다. 성규는 아버지가 빈차로 운행하기 딱하여 그러는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중한 일처럼 여기는것이 별스러웠다.

12월의 아침은 매우 굵게 밝아왔다. 연보라빛 동쪽하늘에 떠있던 띠모양의 옅은 구름가늑이 점차 발깃해지더니 붉게 타는 노을이 퍼졌다. 그들이 골재장에서 일을 끝마쳤을무렵에야 꾸물거리던 해가 동편마루에 끝금히 머리를 내밀었다. 별로 시간은 지체되지 않았다.

명길의 기분은 다시 밝아졌다. 운전대를 잡은 이때 그 어떤 영웅심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를 놓칠가봐 끝없는 흥분속에 잠겨있던 명길은 마침내 그런 시각이나 맞은듯 범잡은 포수기분이였다. 출발에 앞서 그는 팔목을 멋스레 휘둘러 손목시계를 쳐들고는 호기있게 웨쳤다.

《출발시간은 7시 20분, 모두들 시간을 맞추시오. 자, 나의 준마야, 힘껏 달려보자!》

《허허...》 성규는 명길의 너스레에 마음이 풀려졌다. 정학세도 따라웃었다.

명길이가 시동기를 밟자 자동차는 부르릉거리며 몸을 떨더니 자국을 뗐다. 차는 이내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시원하게 뻗은 이른 아침의 반반한 길은 마음놓고 밟을수 있었다. 바퀴밑에서는 길바닥 잔얼음들이 밟히어 빠작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앙상한 길나무들과 전주대들이 획획 바람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갔다.

정학세는 시창밖으로 그냥 먼 남쪽하늘만 살피었다. 발전소건설장에 드려온 하늘을 가늠하는듯 싶었다. 거뭇한 산발이 가로 막아선 지평선우에는 구름장들이 떠있었다. 골바람이 세차 초겨울부터 추위가 찾아올 줄 모르는 발전소건설장이 이 하루라도 잠잠해지고 해가 비쳐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그의 얼굴에 비졌었다. 강추위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공사가 애를 먹게 되고 조기조업날자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성규는 느닷없이 조바심이 났다.

《지배인아버이, 어쩡습니까. 이 날씨에도 공사

속도를 맞추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날씨타발을 했던가?》

정학세가 무뚝뚝한 어조로 반문하자 성규는 서둘러 제 속생각을 비쳤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는 날이... 혹시 늦어질가봐 그러합니다.》

성규는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에 오시었을 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다.

《음, 그래...》

정학세는 입속말처럼 뇌이였다. 그의 검스레한 눈빛은 대뜸 그리움에 젖어들었다. 60평생 아직 한번도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지 못한 그였다.

성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루빨리 모시고 싶은 마음은 건설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지만 정학세지배인한테는 더더욱 간절하리라 생각이었다.

지난해 여름철 장마비가 출장 퍼붓던 나날이었다. 어랑천물은 불어날대로 불어나 언제가물막이 공사장은 온통 물바다였다. 건설자들은 허리품을 치는 물속에서 가물막이제방뚝을 쌓아갔다.

현장에는 조그마한 늪은이가 길지 않은 자막대기를 들고 제방뚝위치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따금 건설자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장식운반도 거들어주곤 하였다. 정학세지배인이었다. 건설장에서는 그를 두고 일명 《걱정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자그마한 몸에 까만 비닐방수포우비를 걸친 그가 나타나면 그 잔소리질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것은 언제가물막이는 이 《걱정할아버지》 설계임을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원래 국가표준수문지질설계에 의하면 어랑천발전소언제가물막이는 3단계제방뚝쌓기로 공사기일을 1년6개월로 정하였다. 만년미래를 담보해야 하는 우리 나라 수력언제중의 하나인것만큼 모든 잡도리가 큼직큼직하였다. 그러나 정학세지배인은 방대한 건설투자와 시간이 들어야 하는 그 표준설계를 부정하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을 시급히 해결하는 문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강성대국건설의 최우선 과제였다.

정학세지배인은 오랜 건설경험과 과학기술적라산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물막이공법을 탐색해나섰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고심끝에 그는 단번 제방뚝쌓기의 3개월안을 내놓게 되었다. 그것은 국가수문지질설의에 무난히 통과되어 발전소건설장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정학세지배인은 일약 막대한 건설투자와 시간을 단축한 능력있는 실력자로, 공격형의 군지휘관다운 일군으로 떠받들렸다.

그러던 그 《걱정할아버지》가 공사가 진행되어 두달째만에 현장에서 졸도하였다. 약골인 체질에 만성질병인 콩팥염이 도졌던것이다.

그가 병원에 실려간지 두어시간 되었는데 갑자기 비가 끊고 칙칙하게 드리웠던 떼구름장들이 조각조각 찢기기 시작하였다. 그 구름찢으로는

눈부신 햇빛이 줄줄이 쏟아져내렸다.

바로 그 시각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오시였다. 실로 신비한 하늘의 조화였다. 해별을 뚫으시며 건설장구내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 소문없이 큰일을 제긴다고 대견해하시면서 대규모발전소언제가 놓일 가물막이를 석달동안에 끝낸다면 아마 미제놈들이 벼락을 맞은 것만치나 기겁할거라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과 함께 먼저 조기조업을 보장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심성규는 그 격동적인 소식을 안고 정학세가 입원한 병원에 달려갔다. 이미 소식을 들은 정학세는 입원실침대를 붙잡고 흐느껴울고있었다.

《아바이, 우리 장군님께서 가물막이설계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왜 우십니까?》

《아닐세,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 난 오히려 이 가슴이 찢어지네. 변변치 못한 나한테 나라의 중임을 맡겨주신 우리 장군님께 아직 한번도 인사말조차 아뢰이지 못했네. 그런데두 이렇게 침상에 불박혀있으니 이보다 더 무엄한것이 또 어데 있겠나, 영?...》

지금도 성규의 귀전에는 죄책으로 떨던 아바이의 그 젖은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다. 그러던 아바이였으니 이제 머지 않아 있게 될 영광의 날을 그 얼마나 일일천추로 갈망하랴,

성규는 그리움에 남몰래 속을 태우고있을 아바이의 심정이 헤아려져 넋지시 말을 건넸다.

《아바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음, 나말인가?》

정학세는 짙막히 뇌이며 시창에서 눈길을 떼었다. 나직이 한숨을 내쉬는 그의 눈가에는 무거운 시름이 내려앉았다.

《일부 사람들은 조기조업날을 자꾸만 앞당기고 싶어 몸살을 앓으니 이것참 야단 아닌가.》

《아니, 그건 무슨 소립니까. 하루라도 앞당기는 거야 우리모두가 바라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내가 반대하고있네. 내가.》

정학세는 피로하게 곱씹었다. 성규는 자못 놀랐다. 조기조업날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조이고 바라고있을 아바이가 반대하다니?!... 도대체 무엇때문이란 말인가.

정학세는 서름서름 뒤를 이었다.

《설계에는 말일세. 물길굴암질이 좋은 구간은 콩크리트피복을 씌우지 않기로 돼있네. 허지만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나한테는 쓰라린 교훈이 있지 않나. 원봉발전소물길굴암질이 썩 좋아 피복을 하지 않았더니 수십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나. 물에 절은 암질들이 일부 무너져 애를 먹었거던. 그래서 난련합회의에서 우리 발전소물길굴전구간을 피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조기조업을

못한다고 주장했네. 이게 어떤 공사인가.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주시는 만년창조물이 아닌가 말일세...》

정학세의 눈시울과 얼굴피부는 푸들거렸다. 회의장에서 있었던 흥분이 되살아오르는듯 잔조롭게 좁혀진 그의 눈에서는 그 어떤 드림없는 결기가 뿜어나왔다. 성규는 저자기 감심되어 거의 났을 잃고 굳어졌다. 물길굴은 시공주가 엄연히 다른 기업소가 맡은 일이지만 정학세지배인은 그 모든 일을 통채로 안고있었다. 역시 그다운 의기이고 배짱이었다.

정학세는 여전히 흥분을 삭이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일이야 바로 해놓고 우리 장군님을 모셔야지...》

한생 건설일에 꺼매지고 거칠어진 소박하고 수한 늙은이의 얼굴은 다시 늑늑해졌다.

2

차는 넓은 길에 들어섰다. 길바닥은 설핀 해변이나마 녹은 얼음물로 질적하였다. 시창밖으로는 줄지어선 고층건물들이 소리없이 다가들었다가는 언뜩언뜩 지나갔다.

묵묵히 차창밖에 시선을 주고있던 정학세는 움쭉 놀라 뇌이였다.

《벌써 청진에 왔는가?》

《그럼요. 20분을 단축했어요. 예정시간보다.》

《20분이나?... 웬쿠나.》

정학세는 덜통한줄 알았던 명길이가 체법 시간을 쪼개고있는것이 대견하여 탄복했다. 명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머리우의 꼬깔이 묘하게 흔들거렸다. 성규는 명규의 희뜩한 심리가 엿보여 시뭇이 웃었다. 정학세는 뭔가 생각을 고르는데 잠자코있다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됐네, 그 시간이면 녀근할것 같네. 여보게, 여기 좀 들렀다 가세. 수복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딸애를 만나야겠네.》

《딸이요?...》

성규는 얼떠름했다. 무엇이랴 말이 나가지 않았다. 도대체 어찌자는건가?... 명길이가 짜낸 그 짧은 시간마저 헛판데 쓰려 하다니...

《성규동문 그사이 도교육비품생산공장에 들려주게. 내가 여저녁 들어올 때 거기 지배인한테 아이들 책결상 다섯조를 부탁했네. 오늘 나갈 때 싣고가도록 조직해달라고 말일세. 결재는 이미 해놓았으니 실으면 될거네.》

《?!...》

성규는 점점 더 기가 차 눈만 흘렸다. 딸애는 뭐고 책결상은 또 뭐란 말인가?...

정학세는 성규의 의혹따위는 개의치 않는듯 그냥 뒤를 달았다.

《우리 발전소분교 아이들 책결상일세. 사업소 목수들한테 맡겼더니 죄다 불품없이 투박해졌네.

산업쟁이들이어서 소목재간은 영 엉터리야.》

얼마전 발전소건설장에는 다섯명의 아이들을 위한 분교가 섰다. 정학세지배인은 부부가 함께 건설장에 나와있는 종업원가정들은 발전소주변구역에 살림집을 마련해주어 그들의 생활을 기업소가 돌봐주게 하였다. 그러나 읍에서 70여리나 떨어진 산간벽지여서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였다.

정학세지배인은 어랑군당과 교섭하여 분교를 설립하고 소학교와 중학교과목을 다 배워줄수 있는 교원까지 데려다놓았던것이다.

명길은 얼굴이 시시벌벌게 달아올라 차를 수복중학교 정문앞에 끌고갔다. 그의 랑볼은 내놓고 까뻐힐수 없는 불만에 잔뜩 부어있었다.

차가 멈춰서자 정학세가 내리려고 서둘렀다. 성규는 바재이던 생각을 비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아바이, 현장에서는 지금 우릴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겠습니까.》

《알고있네. 자, 그럼 내 얼른 딸애를 만나고 갈테니 어서 떠나게.》

정학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학교정문을 빠져 교사쪽으로 늙은이답지 않게 황황히 뛰어갔다. 후렁한 솜동복에 가리운 체소한 몸집과 머리우에 얹혀진 털모자한쪽 귀덜개가 우로 쳐들려 너풀대는 그의 뒤모습은 한순간 성규의 눈을 아리게 찼었다. 얼마나 긴박한 사정이 생겼으면 저러라 싶어지며 동정이 갈마들었다. 그러면서도 뇌리에는 오후 첫시간부터 혼잡장크리트타입을 최대로 걸수 있도록 만단준비를 다 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그리고 웬일인지 기다리다 지쳐버린 안해가 가버릴것 같아 안절부절했다. 안해를 본지 달포가 된다. 안해가 건설장에 나와 함께 일하고싶어하는걸 집사정이 긴장하여 말을 꺼내지 못하고있었다. 건강치 못한 지배인아바이조차 부인을 데려오지 못하고 로동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합숙생활을 하고있었다.

《흥, 온통 걱정거리라니까, 괜히 시간을 당겼다고 말했네.》

차를 움직이던 명길은 끝내 부어오른 분을 터뜨렸다. 성규의 신경도 곤두섰다. 아침 첫시간에 장독일이 터졌을 때 강경한 립장을 취하지 못한것이 후회되기도 하였다.

그와같은 안타까움은 도교육비품생산공장에 갇을적에 더욱 격발하였다.

지배인아바이가 철석같이 물려놓았다는 책결상들은 한창 도색중이었다. 그편에서는 이렇게 빨리 올줄은 미처 몰랐다는것이다. 하지만 작은 량의 제품이어서 반시간정도의 품이면 될터이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성규는 억이 막혔다. 그는 팔을 걷고 도장공들을 도와나섰다. 도장공들은 대개가 나이지숙한 녀인들이였다.

성규의 현현한 투신력에 반한 녀인들은 결속한 입담들을 터치기 시작했다. 나이에 비해 무척

젊어보이는 그를 총각으로 여겼던지 녀인들은 저마끔 마음무뎠던 처녀를 소개하겠다고느니, 마음보다도 별찬 처녀가 더 좋을거라느니, 잔치날 술을 삼가하라느니... 저희 령감은 잔치날 취해 너무러지는 통에 첫날밤을 코만 드렁드렁 훑아 그 코를 꼭 깨물어놓고싶더라는 등 별의별 법석을 다떨었다. 《님》 마음은 송곳방석에 앉은줄도 모르고 제잡담 웃고떠드는 녀인들과 함께 도장일을 마무리한 성규는 다섯조의 책걸상들을 차에다 싣었다. 30분은 실히 걸렸다. 헌데 그새도록 아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초한초 애바른 시간이 흘렀다.

성규는 더 지체할수 없어 차를 돌려 다시 수북중학교로 갔다. 혹시 아바이와 길이 어긋나지 않았을가 하는 위구심을 알세우며 그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사를 향해 성급히 달렸다. 학교교사는 수업중이어서 조용하였다. 현관과 잇닿아있는 접수실로 다가서면 성규는 안에서 울리는 썩썩하면서 누긋한 귀익은 목소리에 멈춰섰다.

《...그 사람은... 남들이 못한다던 3중심빼기굴진을 착안하여 언제기초를 반년나마 앞당겼구 제한몸바쳐 귀한 설비들을 구원했다. 그런 사람은 전장에 나서면 화구도 막아. 네가 한번 마음을 췌으면 성한 몸이던 불구의 몸이던...》

《안예요, 아버지. 난 그 동무가 불구가 될가봐 그런건 안예요!》

별안간 녀자의 흐느낌에 떠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사실 그 동무와 일생을 약속할 때까지만 하여도 그 동무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그렇게 모진 재난을 들쭉어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됐다. 난 너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건 네 의사이고 자유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지난일때문에 단념하려고 한다면 그건 마음을 바라. 다 지나간 일이고 그 사람 아버지도 지금은 바르게 살고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한테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 애야... 지금 건설장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한테는 백약보다도 네가 더 필요하구나. 네 엄마도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분교에는 너같은 교원이 있어야겠다. 어랑군당에서 보내준 처녀선생은 인츰 시집을 간다는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에 분교가 섰다면 찾아보실수도 있는데... 심심산골이라고 마음이 들뜬 교원이 있으면 안되지...》

성규는 부녀간의 대화를 더 엿들을수 없어 되돌아섰다. 그리고 자기가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잊고 눈앞에 한 처녀를 떠올렸다.

도시풍의 산뜻한 옷차림에 지성미가 뵈 몸매보다도 어글어글하고 활달한 눈이 더 매력있어보이던 처녀, 발전소건설이 시작되면서 처녀는 자주 학생예술소조원들을 데리고 건설장에 찾아와 공연해주었다. 언제인가 정확세지배인이 공연을 구경하는 책임비서에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녀교원이 제 딸이라고 은근히 자랑을 비쳤다는 말도 돌

았다. 정확세지배인한테는 그 딸자식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 아바이는 외딸을 발전소건설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치료를 받고있는 청년한테 시집을 보내려 하였다. 게다가 발전소분교교원으로 영원히 눌러앉힐 결심이었다.

성규가 더욱 놀란것은 사위감으로 될 청년의 아버지와 지배인의 관계였다.

30여년전, 원봉발전소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나날 어느 한 건설사업소에서 설비직장장을 하던 정확세는 상부의 조치로 원봉발전소물길굴갱장으로 소환되었다고 한다. 당시 원봉발전소물길굴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정확세는 나머지 잔량공사와 주로는 발전기설비조립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몇해후 그 물길굴 한구간이 무너져내려 전력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문제가 법적성격을 띠고 번져지자 정확세에게 갱을 인계했던 전 갱장(청년의 아버지)은 그 모든 책임을 그한테 밀어버렸다. 그로하여 정확세는 직무에서 해임되어 퍼그나 긴 나날을 로동생활로 보냈던것이다.

성규는 아바이의 가슴에 찍힌 그 상처와 아픔은 세월이 가도 아물기 힘들거라고 믿었다. 허지만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 아바이의 도량과 끝모를 응심에 머리가 숙어지고 가슴이 찢어졌다.

성규는 얼핏 손목시계에 눈이 갔다.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파들파들 뛰는 초침은 살점을 사정없이 찍어던지는것 같았다. 책걸상을 실은 때로부터 시간은 10분이나 더 지났다.

《이거 너무 늦지 않았나.》 정확세는 차문을 열고 어색스레 웅얼거리며 들어섰다. 그 짓눌린 억양에는 여태 시간을 흘려보낸 미안함과 초조감이 섞여있었다. 그는 숨이 차올라 잔기침질을 하며 이마의 땀을 훔쳤다.

《빨리들 실었구만.》

《...》

《그 사람들이 간밤에 그걸 만드느라 수고했을거네.》

성규는 고집스레 반응하지 않았다. 구태여 자기들이 애타던 일도 말하고싶지 않았거니와 침묵으로 아바이를 자극하고싶어서였다.

정확세는 눈치겠는지 운전사한테 얼굴을 돌렸다.

《명길아, 또 숨씨를 뵈렴. 봉창해야지.》

《케가 틀렸어요. 이제 명강령 협한령은 어떡하구요. 눈이 깔려 엇저녁에도 겨우 넘지 않았어요. 저쪽내리막경사가 또 수태 시간을 잡아먹을거란 말예요.》

심통이 껴진 명길은 사태의 난감함을 내놓고 말했다. 그 비튼소리는 정확세를 어지간히 자극한것 같았다. 그의 낮색이 어두워졌다.

명길은 계정을 부리듯 첫걸음부터 가속답판을 힘껏 밟아댔다. 그바람에 차가 망아지처럼 훌쩍 훌쩍 들추면서 몇걸음 내달렸다. 그 휘둘러대는

반층에 정확세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조심조심, 독이 깨질라.》

《차아, 이건 어느쪽인지 원.》

명길은 제련에서 증을 냈다. 찌푸룩한 살빛은 먹구름투성이였다.

차는 교외를 벗어나자 다시 고속으로 질주했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차츰 세차졌다. 길 한옆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지였다. 잔설들이 떠엽떠엿한 바다기슭에는 얼음버캐를 뒤집어쓴 너설바위들이 흰 곰무리들처럼 웅크리고있었다. 멍석같은 물너울들이 떼를 지어 줄줄이 밀려왔다가는 그 《흰곰》들에 부딪쳐 부서져내렸다.

성규의 마음도 기슭을 향해 줄기차게 달음쳐오는 파도마냥 쉽없이 건설장으로만 달리였다. 그는 이 길이 바로 조기조업을 제날자에 보장할뿐 아니라 어버이장군님을 일터에 모시게 될 꿈같은 그날과도 이어져있음을 확신하고있었다. 성규는 도간도간 지나치는 리정표들을 줄곧 살피다 눈을 지그시 감고 상념에 잠겨있는 아버이를 여겨봤다. 그 무슨 심뇌가 굳어진 표정은 딸자식문제를 시원스레 아귀를 짓지 못한 시름이 엉켜붙은 것 같았다. 성규는 런민비슷한 감정이 치밀었다. 《아바이, 집의 따님한테 너무 요구하지 않았어요?》

《들었겠소?》

정확세는 눈을 뜨지 않은채 되물었다.

《기다리다 학교를 찾아갔지요. 안됐습니다. 귀결에...》

아래로 처져있던 아버이의 눈시울이 쳐들렸다. 개운한 눈빛은 아니였다.

《울 초봄에 평양회의를 갈적이었는데 젊은 부부와 한침대칸에서 동행했더랬소. 남편은 영예군인이였소. 예쁘게 생긴 안해는 그를 시중하느라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더군. 아침이면 세면물을 떠온다, 음식가지들을 차린다, 차가 역들에 멈춰서면 데리고나가 소풍도 시키고 밤이면 남편의 잠을 지켜 꼬박 새우면서도 지친 기색이란 없이 시중 웃는 얼굴이야... 난 우리 딸애가 그렇게 바치는것을 행복으로가 아니라 그 무슨 의무나 <희생>으로 생각할가봐 걱정일세.》

《그 청년이 불구가 될것 같습니까?》

《아니, 난 그러리라고는 믿지 않네.》

《?!...》

성규는 다시금 가슴이 몽클했다.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식을 우리 시대 고결한 녀인들의 미덕에 따라세우고싶어하는 그 남다른 고민이 가슴을 뜨겁게 지지였다. 아버이는 잠시도 근심과 걱정을 덜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성규의 그 감동은 인츰 깨지고말았다.

명길이의 느닷없는 환성이 돌연히 차안을 들었다놓았다.

《됐구나, 됐어요!》

어느새 차를 명강령마루에 끌어올린 명길은 되게나 매끄러운줄 알았던 가파로운 내리막길이 뜻

밖에도 갈색의 땅을 드러내놓고있어 환성을 질렀다. 그사이 오가는차들에 길바닥눈이 짓이겨지고 남향별에 녹아버린듯싶다. 잔뜩 흐려있던 명길의 저기압은 순식간에 말짱 개였다.

《오, 하늘이 돕누나, 나의 준마야!》

《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날썬들 무심하겠나. 아바이, 타고난 운전사는 길과 함께 고락을 나눈다더니... 명길의 운전급수를 사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암, 여부가 있을라구. 제시간에 댄다문야.》

《그까짓 이제 먹어는 떡이에요. 이 령만 넘어서면 더는 거칠것 없잖아요. 저 앞을 좀 보시라요...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마음들, 화려한 꽃다발 흔들며 마주달려오고있구나. 한손에 안전모를 쳐든 일군도, 숫저은 미소를 머금은 어여쁜 그대도...》

《원 저런!》

《하하...》

내내 번거로운 심리속에 잠겨있던 운전칸은 돌연 봄날의 훈풍에 일렁이는 물결마냥 활기로운 웃음과 기쁨으로 출렁이였다. 명길의 그럴듯한 익살에 가슴들은 즐거이 뛰놀았다. 정확세는 만시름을 잊은듯 소리내어 웃으며 쾌속으로 달리는 차바람을 폐장깊이 들이켰다.

3

《아바이, 어느 길을 택할가요?》

차가 갈림길목에 접어들자 성규가 북아였다.

멀리 앞쪽에는 동해안에서 내륙방향으로 꺾여지는 길목에 세운 도로표시판이 아물아물 다가왔다. 거기서부터는 발전소건설장에 드나드는 여러 갈래의 길이 나진다. 제일 가까운 길은 어랑읍에서 질러가는 70리길이다. 하지만 어랑천물길을 따라 우불구불 뻗은 그 길은 높고낮은 고개와 이따금 깎아지른 절벽을 끼고있는 산악도로였다. 어랑천상류에 발전소가 들어앉게 되면서 근간에 새로 뿜은 이 길 한곳에는 물길굴과 이어진 1호 발전기실이 자리잡고있었다.

정확세는 급히 결심하여야 하였다.

《시간이 어떻게 났나?》

《10시 20분, 40분이 남았습니다.》

《지름길로 가세나. 명길이, 자신있겠지?》

명길은 괜한 걱정이라든한 손으로 머리우의 꼬깔을 톡 쳤다. 반짝이는 그의 눈에는 험산준령도 단숨에 뛰어넘을 양양한 기개와 배심이 뽐였다.

차는 누런 먼지구름을 말아올리며 방향을 꺾었다. 어랑천초입에 들어서면서 맹렬한 바람이 골짜기로부터 마주쳐왔다. 해도 골바람을 피해 회멸건 구름뒤에 숨어버린듯 강을 사이에 두고 우중충한 산악들이 이마를 맞대고 마주선 비좁은 골안은 회백색대기로 차있었다.

서북쪽 산너머에서 피이한 울부짖음소리가 들

려오더니 뒤미처 회오리바람이 시창에 잔모래알들을 뿌려던지고는 관목덩굴과 얼어붙은 강바닥의 마른 풀대들을 휘감아 잡아뜯었다. 운전칸시창유리는 삽시에 뿌ית한 성애가 서리였다. 성규는 얼른 걸레를 집어 들고 운전사의 시창유리부터 닦아주었다. 운전사의 눈앞이 순간도 흐려서는 안될 길이었다. 눈에 쌍볼을 켜든 명길은 조향륜을 재빨리 움직여 엉들덜한 길을 날새게 피하여 최속력으로 운전해갔다.

얼마쯤 지나서부터는 강쪽을 따라 휘우듬히 비탈진 길이 나졌다. 석비레로 일매지게 다져진 길이어서 드세차게 몰아탔다. 미구에 뻥뻥한 수림이 울창한 산등성이에 하얀 회벽칠한 크지 않는 건물이 나타났다. 올해 발전소조기조업을 하려고 발전기들을 들여 앉힌 1호발전소였다.

그쪽에 피곳 눈길을 주던 명길은 몸이 달아 매삼쳤다.

《어떻게 같아요?》

《거의 절반길은 축냈어. 이 기세로 달리면 시간을 맞출수 있겠어.》 성규는 팽팽한 긴장을 다소 풀며 장담했다.

차는 발전기실을 에돌아 소소리높은 숲사이를 빠져 몇고개 더 넘어섰다. 그런데 완만한 내리코선길에 접어들면서 희뿌연 은백색의 빛을 반사하는 길아래바닥이 살같이 마주쳐왔다. 야산에서 흘러내린 골개수가 길바닥에 두터운 얼음강판을 깔아놓은 것이었다. 얼음장이 덮인 구간은 얼추 짐작해도 여라문 기장은 잘될 것 같았다. 그 얼음길은 산그림자가 가리운 길 왼편을 치우쳐 약간 경사를 이루었는데 아래는 낭떠러지였다. 허연 눈가루들이 바람에 밀려 얼음우로 이리저리 기여다녔다. 여차직하면 차가 낭떠러지로 지칠판이었다. 성규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명길이, 모래를 뿌리면 어때?》

《...》

《그냥 채라!》

얼음강판을 지못게 쏘아보던 정학세가 짧은 소리로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러자 명길의 눈자위에는 섬광같은 것이 뭉긋 튀었다. 위험은 그에게 도리어 흥분제와 같은 작용을 하였다. 그 눈빛은 꼭 무슨 재구를 칠 것 같았다.

성규가 그 무분별을 막을새 없이 명길은 얼음강판우로 차를 전속으로 냅다 몰았다. 차는 얼음강판우에 들어서자 차체를 부르르 떨었다. 그 떨림은 가슴을 순식간에 열었다, 마찰을 잃은 바퀴는 굴지 않은채로 앞으로 쭉 미끄러져나갔다. 기적이 일어났다. 차가 얼음길을 무사히 넘어서었다.

성규는 모험이 일으킨 《기적》에 그만 입을 딱 벌렸다. 실로 오늘날은 날이 아니라면 추호도 허용할수 없는 운전이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시간이 급했으면 그런 어마처마한 결단을 내렸겠는가.

《정말 네 말처럼 오늘은 뭐가 돕는구나. 허허...》

성규는 이마에 뚫은 식은땀을 손바닥으로 문다지며 허거쁘게 웃었다.

정학세는 차문을 열고 뒤를 돌아볼뿐이었다.

차는 꿈무늬에 삼단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차창을 바투 스치는 벼랑을 끼고 달렸다. 한참 지나서였다. 이번에는 길바닥에 쌓인 눈더미가 막아섰다. 벼랑에서 흘러내린 눈사태였다. 바람에 날려 납작한 봉분처럼 되어버린 눈무지는 차가 넘어서기에는 별반 장애로 될상이지 않았다.

《안되겠군. 차를 세우게.》 정학세는 침중히 뇌이였다. 명길은 히죽 코웃음을 쳤다.

《이까짓것 슷눈이어서 허양 넘을수 있어요.》

《세우라는데!》 불안간 정학세의 목청은 날카롭게 울렸다. 후닥닥 놀란 명길은 차를 눈무지앞에 급제동시켰다.

정학세는 차가 서기바쁘게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성규동문 명길이를 데리고 이 눈무지를 치운 다음 차에다 실은 모래를 길바닥에 깔게. 난 이자 그 얼음강판을 깔테니... 명길아, 빨리 적재함에서 삽과 곡괭이를 내려라.》

명길은 한동안 아연한 표정으로 미처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다 울가망이 되어 뇌까렸다.

《아니, 험한 길을 무사히 넘었으면 됐지... 또 어째서...》

《어서 공구를 내리지 못할가!》 정학세의 추상같은 호령은 명길의 울음섞인 소리를 짓눌러버렸다. 마지못해 적재함우에 오르는 명길은 달아온 엔진처럼 툭떡거렸다.

그는 아버지가 곡괭이를 들고 돌아서 가버리자 종내 그 멧쟁이 고깔모자를 벗어 눈무지에 내동댕이치며 울부짖었다.

《기사동문, 잠자코만 있나말요! 오늘 12시보도에 우리 아버지한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정령이 발표된다고 했어요. 책임비서동진 날보고 아버이를 무조건 12시전에 도착시키라고 했던 말이요!》

《뭘라구?》 성규는 커다란 충격에 와들쩍 돌랐다. 그는 눈물이 고여드는 얼굴을 쳐들고 흐느낌을 터치는 명길이를 넋없이 바라보다 어느새 저만치 걸어가는 아버이를 따라잡으려 하였다. 하지만 어인일인지 발길이 서슴거려졌다. 무엇인가 다는 알수 없으면서도 승엄하고 벅찬 느낌이 감각되어서였다. 성규는 그 신비의 힘에 떠밀려 재빨리 삽을 들고 나섰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리라는 기대도 잃고싶지 않았다.

허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눈무지를 치우고 모래까지 말끔히 깔아놓은 후 아버이를 도와 길바닥 얼음장을 절반정도나 까나마나 했을적에 시간은 이미 12시를 훨씬 넘었다.

속타는 초조감과 흥분속에서 시간을 쪼개고있던 성규의 눈앞에는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다 실망하는 얼굴들이며 12시보도를 듣고 온 건설장이

떠들썩 환성을 지르며 아바이를 찾을 광경들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는 떡심이 풀려 곡괭이질을 겨우 이어갔다. 그 무슨 행복의 기회를 잃은 듯 한 허수함이 가슴속에서 재가루를 날렸다. 지레대를 들고 정신없이 얼음장을 조여대던 명길이라도 부글부글 끓는 가슴속 반발을 더는 견딜수 없었던지 힘하니 자동차쪽으로 사라졌다.

희끄무레한 공간에는 바람이 매물차게 요동쳤다. 모래가 섞인 눈가루가 작업장을 휩쓸어 눈을 뜨고 일하기가 어려웠다.

정확세는 모든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묵묵히 삽질만 해댔다. 피줄이 불거져나온 판자노리로는 굵은 땀줄기가 흘러내렸다.

희미한 해가 퍼그나 기울어서야 일을 끝마친 정확세는 한숨 돌리려 길섶돌우에 장갑을 깔고 앉았다. 열에 뜨고 피가 진 눈에는 눈가장자리까지 별경게 짓물렀었다. 찬바람에 땀을 들이는 그의 얼굴에는 우수와 같은 그림자가 짙게 어렸다.

《성규 이사람, 오늘은 참 안됐네. 콩크리트혼합장일은 짜고들면 벌충한다해도 자네들 부부한테 집구경을 시켜주려던 일은 놓쳤거던.》

《집이라니요?!》

《자네가 없는 사이에 후방부서가 예비로 갖고 있던 건물을 살림집으로 꾸려놔네. 자네들 맘에 들겠는지... 이렇게 걸음이 늦어질줄 알았으면 자네 색시한테 먼저 보여주는건데...》 정확세는 아쉬운 기색을 짓더니 잠시 침묵을 지켰다.

성규는 뜻밖에 찾아든 기쁨이 너무도 세차게 가슴을 두드려 뜨거웁만 삼켰다. 정확세는 긴숨을 내쉬고는 침통스레 말을 이었다.

《허지만 말일세... 내 오늘 이 아짜아짜한 길과 맞다드니... 차마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겠더구만...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라도 금시 오실것만 같아 눈앞이 아득해지더군. 발전소건설때문에 늘 마음쓰고계시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약속없이 우리 건설장에 문득 오시지 않았나... 물론 우리 장군님께서 오신다면 일꾼들이 건설장에 드나드는 여러 길중에서 이런 험한 길을 택하지야 않겠지. 그러나 이 길에는 우리가 올해에 새로 앉힌 1호발전소가 있지 않나. 건설자들이 해놓은 일이라면 자그마한것도 다 찾아보시고는 분에 넘치는 치하도 하시고 사랑과 믿음도 아낌없이 주시는분은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뿐이시네. 그러니 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길을 두고 어떻게 맘 편할수 있겠나.

그건 천만불충한것이지... 우리 인민한테는 죄책이 오죽많은가. 어버이수령님을 한평생 이런 길로 다니시게 하여 얼마나 가슴이 아픈 우리들인가. 어버이수령님을 잃었을적에 우리 다시는 우리 장군님만은 그렇게 모시지 말자고 눈물을 짓씹으며 맹세하고도...》

정확세의 음성은 평온하면서도 쓰라린 자책에

흐려졌다. 성규는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온몸은 불로 지지는듯 저려났다. 그는 정확세의 가슴속에 꿰고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가슴벅참을 금할수 없었다. 거기에는 자기로서는 감히 견줄수 없는 크고 숭엄한 세계가 이 령마루처럼 우뚝 솟아 뜨겁게 숨쉬고있었다.

그 령마루아래말기에는 숨가빠 달려오던 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창공에 휘뿌리고있었다.

걱정의 물보라!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싶은 자기자신의 열망의 파도였다. 순간순간을 우리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잇고사는 영웅의 빛나는 삶... 비로소 성규는 장독이며 책걸상이며 딸문제며 하는 아바이의 걱정스러운 걸음걸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이어져있음을 사무치게 느꼈다.

《여보게 저기... 저 벼랑웃썰미를 좀 보게.》

아바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실눈을 짓고 어느 한곳을 가리켰다.

《뚝 빼여진 돌이 보이지. 바위갈기도 하구... 아까부터 저게 미타하거던. 바람이 더 모질면 이 길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가?》

《제가 올라가보겠습니다.》

《아니, 함께 하세. 엄청나게 큰놈일수 있네. 지레대로 둔장질해 떨어자구. 명길이를 데리고 오게.》

성규는 후덥게 달아오르는 숨을 토했다. 끝없이 부푸는 가슴을 펴고 산경사면을 따라 천천히 벼랑에 오르는 아바이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영성한 수림의 우듬지를 태를 치는 바람이 지레대를 한쪽 어깨에 멘 아바이웃자락과 털모자귀덜개를 뒤로 날리었다. 성규는 문득 그가 날벼랑이 아니라 해빛이 줄무늬를 그으며 쏟아지는 금빛 찬란한 봉우리, 열정에 넘친 태양의 미소가 기다리는 영광의 곳을 향해 가고있는것 같았다. 성규의 눈에서는 저도몰래 맑은 눈물이 한방울 맺혔다. 그것은 복받치는 감격,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희와 축복의 눈물이었다.

명길이가 성규곁으로 스택스적 다가왔다. 분이 어지간히 사그라든 그가 쏙얼거렸다.

《아바이가 왜 절루 가요. 또 무슨 걱정저리가 생겼어요?》

《그래. 명길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많아야 우리 장군님의 집이 멀어질게 아니겠니. 자 우리도 함께 아바이한테 가자구.》

《에에?!》 명길은 미처 깨도가 되지 않아 눈이 커졌다.

생활의 결면만을 알고있는 그가 이제 생의 의미를 알 때면 이 땅은 또 얼마나 아름다와질것인가!

날알향기

김영선

가을걷이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어느날 나는 잘 손질해놓은 낫을 찾아들고 집을 나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 5畝를 맞는 벽성군 서원벌에서 벼베기를 시작하는 날이어서 현실처럼 겸 농장원들과 같이 땀을 흠뻑 흘리고싶어서였다.

일매지게 정리된 벌을 대하는 순간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야!》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무겁게 고개속인 벼이삭들이 소슬바람에 일렁이는 서원벌! 한쪽의 그림인양 아득히 펼쳐진 금빛주단우를 유유히 날으는 백학의 무리! 늘 보아오던 벌이건만 올해에는 너무나도 달라진 벌이었다.

나는 알알이 영근 벼이삭을 아름이 벌게 끌어안고 불을 비비었다. 세상에 태어나 벼이삭이 이렇게도 부드럽고 향기롭다는것을 처음으로 느낀 나였다. 만져보면 총알같고 살펴보면 숨같이 부드러운 이삭들, 설레이는 벼이삭들은 나에게 오늘의 자랑을 끝없이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잠시도 놓아주고싶지 않고 떠나고싶지 않았다.

《작가선생님이 아니십니까?》

귀여운 아기런듯 벼이삭을 끌어안고 불을 비비는 내가 이상하였던지 젊은 제대군인반장이 다가오며 놀란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날알향기에 취했지요.》

나는 아쉬운대로 일어났다.

《허허, 누구나 취하는 향기랍니다.》

나는 해벌과 벌바람에 검실검실해진 반장에게 웃어보였다. 스스럼없이 나에게 다가선 반장은 벼가을을 시작하는 오늘의 감회가 새로운듯 두눈을 간간지런하게 뜨며 벌을 일별하는것이였다.

《작황이 좋군요.》

등성이 강냉이밭에는 이삭을 쌍둥이로 엮은 강냉이대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논벌은 논벌대로 소담한 벼이삭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으니 이 가을이 어찌 흐뭇하지 않으랴.

《농장원들이 수고 많았지요.》

나는 거름생산으로부터 모기르기, 모내기, 김매기 등 영농과정때마다 젊은 반장이 술선 앞장에서서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불러일으키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반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젖는것이였다.

《우리의 수고야 보잘것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

님께서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전선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신 덕이지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종자로부터 소농기구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지 않으시었다면 오늘과 같이 만사람이 취하는 구수한 날알향기는 상상도 할수 없었을것입니다.》

반장의 말이 옳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 벽두부터 올해 농사문제를 놓고 마음쓰실 때 풍요한 가을의 터전은 이미 툇튼히 마련되였고 그 터전에서 날알향기가 풍기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올해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온 도가 펼쳐나 거름을 듬뿍듬뿍 실어낼 때 벌써 사람들은 그 향기를 폐부로 감수하였고 흰눈덮인 벌에서 풍요한 오늘을 내다보았던것이다.

하기에 우리 고층살림집의 로병아바이는 불편한 몸이지만 매일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손달구지에 싣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서원벌을 찾아나왔으며 해토된 포전에 씨뿌리기를 시작하자 논자랑말고 모자랑 하했다는 말을 외우며 모관관리공이 된 심정으로 애기모들을 돌보아주었고 별식을 마련하여 모관리공들을 고무해주기도 하였으며 모관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농기구들도 만들어보내주었다.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모내기철에는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논벌을 뒤덮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래와 춤을 안고 포전마다 찾아다니며 바쁜 일손도 도와주고 설참에는 예술선전으로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불러일으키었다.

군인들도 농장원들도 지원자들도 매일 두몫씩 해체끼였으며 해주농업대학 농기계연구사는 종전보다 5배이상의 농물을 내면서도 거름을 얼마 안쓰는 《회전식논물써레》를 창안도입함으로써 모내기철에는 교양이손도 빌려쓴다는 말이 옛말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당창건 60畝를 영예로운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데 대한 공동구호가 나왔을 때에는 그에 고무된 온 나라 협동벌들에서는 포전마다 알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투쟁이 밤과 낮을 이어 불길처럼 타올랐고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

의 기본전선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당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길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마을과 분조, 포전과 밭머리에서 매일매시각 꽃처럼 피어나 향기 그윽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는가.

하기에 누구나 무겁게 실리는 낱알의 무게를 놓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사일을 두고 쓰신 마음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이고 구수한 낱알향기를 맡으며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눈굽을 적시는것이다.

동녘하늘가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이 풍요한 들판을 밝게 비쳐주자 벼수확기의 동음이 더 세차게 울려퍼지고 여기저기에서 벼를 베어나가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얼굴마다에 긍지와 자랑, 행복의 웃음이 활짝 피어났다.

나는 반장과 같이 논판에 내려서서 벼를 베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의 무게,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시는 사랑의 향기를 가슴속깊이 새기며...

축 복

리명옥

은하, 우리 이 강변길로 가자
좋은 길이 거기 있어도
3대혁명기수가 된 이 기쁜날
혼장이 번쩍이는 우리 가슴을
저 푸른 강물위에 비쳐보는 기쁨도 있으리

저길 보렴, 우리 짜낸 비단이
저 붉은 노을에 다 비끼지 않았느냐
노을 물든 이 강변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너와 나
직포공 첫 단발머리 비쳐보던 이 강변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로
우리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해온것이나

비단짜며 날듯이 빨라진 걸음새
부디 이 저녁만은 늦추어보자구나
혁신자가 되어 만나자 약속했던
그날의 수리공총각들 여기로 불러움이 어찌리
오늘은 공장의 릉름한 기사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함께 걸음이 어찌리

저 강물은 끝없이 흘러가도
우리의 소중한 추억은 이 강변에 그냥 남아...
너와 나 서로 돕고 이끌며
3대혁명기수로 자란 우리 사진 큼직하게 나붙은
그날
얼싸안고 우리 저 하얀 모래불에 덩굴었었지

더 높이 오르자 손가락 걸고 약속하며

이 강변 푸른 잔디밭에 앉아
새 기술 창안으로 밤가는줄 모른적은 또 그
얼마...

마음껏 거닐어보자
우리의 소중한 꿈과 행복 다 안고있는 이 강변
장군님 기대에 모셨던
한없는 영광의 그날도 다 안고있는 이 강변
우리 서로 손잡고 달음박질도 해보자
훨훨 민들레꽃잎도 하늘가에 불어날리자
저 멀리서 우리 아이들 눈동그래 바라본들
어찌리
아, 오늘처럼 인생이 매일같이 즐거웠으면...

이 기쁨을 통채로 안고
한생의 끝까지 달려간다면
벗이여, 얼마나 보람찬 우리 인생일것이나
너와 나 오늘처럼 한생을 살자
필필이 짜내는 우리 비단이
아름다운 생활의 비단으로 조국에 영원히
흐르도록

끝없이 흐르는 저 강물처럼
우리의 기쁨도 정녕 끝이 없구나
너와 나의 불타는 심장우엔
조국의 더없는 축복- 3대혁명붉은기훈장이
빛나고 있나니
더 높이 날아오를 희망찬 우리의 래일을 위해
은하, 오늘은 이 강변 마음껏 거닐어보자

**땅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을
다그치며 두벌농사와 콩농사를 실속있게 하자!**

-공동구호에서-

아기가 웃는 소리

김명옥

어서 내디디렴
아가야
네 서툰 첫걸음마
감자이랑속에 넘어져도 좋아

노을고운 이 저녁
아빠 엄마 살점처럼 가꾼 여기서
너의 첫걸음 떼어주고싶어

아직은 너 모르리
네가 딛고선 감자이랑아래
우리 수령님의 발자취 얼마나 덧쌓여있는지
이 감자밭이 어떻게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과
하나로 이어졌는지

저 긴 이랑이랑이
높뛰는 심장의 피줄기런듯
아빠 엄마 숨결과 네 숨결 합쳐

꽃이 되고 열매로 익어 땅속에 주렁지는 벌

아가야 너는 알게 되리라
이 땅이 벌은
너의 재부
한생 네가 무르익힐
보답의 마당

대홍단의 후손
나의 아가야
어서 이리온
아마 엄마 두손 모아
너를 높이 추켜든다

보아라
캐득거리는 너의 웃음소리에
땅이, 온 벌이 움썰대며 따라웃는다
감자벌의 새 주인의 웃음을
간직한 이랑들이...

나의 일터는 땅입니다

문광혁

두렁콩이 줄지어 설레는 들길
이삭을 빼무는 싱싱한 논배미들
그 누가 찾아와도 한눈에 안겨와
멀리서도 손나팔로 부르는
나의 일터는 땅입니다

봄날엔
싱그런 흙냄새 푸근히 피어나고
가을엔
곡식의 물결이 아득히 파도치는 땅
여기서 나는

성실한 땀바쳐 농사를 짓습니다

새벽안개 헤치며 들에 나서면
그것이 곧 나의 출근입니다
정문도 따로 세운것 없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느티나무에 높이 걸린 고성기의 노래가락
이 가슴 흔드는 대지의 일터가

흙과 물과 곡식이
내 일터의 전부라면

사계절 눈비를 말없이 다 맞는것이
 농민의 한갓 습관이라면
 대지에 바쳐가는 나의 진심
 이리도 깨끗하고 열렬하겠습니까

세상에 땅은 하얗고
 이 세상에 일터는 많아도
 아 나의 일터는
 우리 장군님의 성스런 자욱이 새겨진 곳
 그이 받드는 농민의 량심이
 나락이 되고 열매로 되는 곳

나의 일터는
 사회주의수호의 기본전선입니다
 이 땅에 기꺼이 땀을 묻고 젊음을 바치며
 풍요한 오탁백과 물결우에
 선군태양 높이높이 반들여가는
 나의 한생이 여기서 흘러갑니다

아 당기쪽에 새겨진 금빛낫을 안고
 낮이나 밤이나 지켜가는 일터
 이 땅을 나는 사랑합니다
 봄이 오면 새 종자 정히 뿌리고
 가을이면 승리의 열매 거두며...

가을

강옥녀

날가리더미에 트랙톨 바싹 들이대니
 적재함에 닝큼 올라선 분조장
 날보고 발동을 끄지 말란다
 눈깜짝할새 싣는다나

빨강게 달아오른 트랙톨이마
 식혀줄새도 없구나
 휘익- 휘익 벼단은 연방 날아드는데
 통탕통탕... 네 동음
 마치 풍년복을 울리는듯

발같이하던 봄에만 트랙톨 너
 이 전야에 풍년노래 선창가되라
 가을에도 너는
 못다 부른 봄노래 이 가을에 한껏 터쳐라

종구나 이 가을은
 배미배미 쌓아놓은 벼날가리를
 적재함 무너지게 폭폭 퍼들이는 계절
 두렁우에 올라선 콩단들도
 허리를 그려안고 원무를 펼친 계절

뜻깊은 10월을 향해
 봄내 여름내 이 들에 바친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알찬 열매로 무르익었으니
 이 가을엔 벌에서 마을로
 그 기쁨을 나르는 계절

열매 주렁진 이 계절을 위해
 때로는 이른새벽
 때로는 깊은밤
 벌을 흔들며 울려가던 동음소리
 아무렴, 지금은 더 바빠...

벼단을 싣던 사람들
 날가리속에 트랙톨 묻히운다 법석이며
 빨리 떠나라 재촉이여도
 트랙톨 목청이 갈리도록
 그속에 풍덩 잠겨놓고싶은걸

울려가라 나의 트랙톨동음이여
 온벌이 들썩쿵 흔들어놓자
 진정을 바쳐 걸군 우리의 보람이 이런것이라고
 사랑을 바쳐 가꾼 우리의 자랑이 이런것이라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알게...

주체34(1945)년 10월 9일은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력사의 날이다.

만경대갈림길과 더불어 력사에 길이 전해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 60돐을 뜻깊게 맞이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강철중산으로 우리 당을 더 억척같이 받들어갈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쇠물보다 뜨거운 그들의 마음을 담아 창작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문학소조원들의 작품을 편집부는 현지에서 특집하였다.

편집부

시목음

강선의 붉은 노을아래서 강선은 평양결에 있다

리광철

달마산기슭

아담한 우리 집 창문을 열면

솔푸른 만경봉의 정다운 모습

용해공 나를 반겨 설레이는듯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언덕과

주체사상탑

통일거리 광복거리...

웅장한 수도의 모습도 마음속에 안겨오는

강선땅 내 사는 곳이어

평양을 적시며 흐르는 물이어서

대동강의 한웅큼 물을 떠봐도

용해공의 가슴에선

이 물조차

쇠물되어 벌써 끓는것은...

바라본다

쇠물량 넘쳐난 이런 날엔

땀젖은 수건을 목에 걸치고

눈굽이 저리도록 바라본다

이런 날엔 평양의 모습앞에

저도 몰래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는것이니

아 우리 장군님 계시는 평양이어서

한가닥 불어오는 솔바람에도

강철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이의 음성 실려오는것만 같아

새들의 노래소리에조차 귀를 모으는 내 마음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겹쌓이신 피로를 다 푸시게

우리 장군님 사랑하시는 강선의 저녁노을

언제나 대동강에 펼쳐놓고싶은

강선의 뜨거운 마음

가슴부풀어라

경축의 춤 설레는 명절의 밤엔

수도의 광장에 오르는 축포와 함께

마음속에도 눈부신 쇠물의 불꽃을

한껏 터쳐올리던 우리 아니랴

가장 큰 행복이여라

평양의 가까이에서

김정일장군님을

강철의 성새로 웅위해가는

내 사는 강선의 끝없는 궁지여!

장군님 계시는 평양

강선의 용해공들이

강철기둥으로 억만년 떠받들고있는

혁명의 수도여

오, 강선은

강선은 평양결에 있다!

백양나무야 내가 왔다

리창혁

내가 왔다 백양나무야
너의 아지 세여보며 뛰어놀던
철부지 이 아들 백양이가
오늘은 군사복무 마치고 네게로 왔다

추억도 깊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의 밥판을 들고
소꿉동무들과 아버지의 일터로 가다가도
백양나무 너와 나 이름이 같아
어깨 으쓱 키دون구던 일

내 이름에 담긴
아버지의 깊은 뜻 새겨안으며
강가의 흰 차들을 모아
급게 둘러도 주고
천만일새 더 무성해지라고
매일처럼 샘물도 주며
너도 자라고 내 마음도 자랐지

너의 잎새들을
전후 첫 출강의 쇠물로
천리마의 첫 봉화로
붉게 물들인 땅에서
강선도 자랐고 나도 자랐지

전사의 신념으로
전사의 량심으로
내 가슴속에 새겨진
강선의 백양나무
전호가에선

총가목 억세게 틀어쥐게 했지
내 이름 백양이라는 그 의미
총과 함께 새로이 안아보며...

내 고향 철의 도시 한복판에
자랑스레 억세게도 자라는 백양나무야
네가 이 가슴에 설레이지 않았던들
내 가슴이 어찌
군공으로 번쩍일수 있었으랴

높이도 자랐구나
넓어진 너를 안으려니
나의 두팔 모자라누나
너 그동안 또 얼마나 뜨거운 사연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의 자욱
네 돌기돌기 년륜에 새겼느냐

복무의 나날 그 어느 하루도
너를 잊은적 없는
아 백양나무야
용해공 백양이가 왔다
강철의 산악우에 너를 번쩍 추켜들려
장군님병사 내가 왔다

너도 백양 나도 백양
강철로 선군의 총검 억세게 버리며
위대한 장군님 받들어
강선의 붉은 노을을
선군길우에 붉게 펼쳐갈
백양나무야 내가 왔다

새 강철지령서를 받아안으며

오용택

이 아침도 용해장에 나서니
이 손에 받아든 새 강철지령서
한장의 종이건만
얼마나 큰 무게가 실려있는것인가
어제는 새 발전소의 무죄기둥을
오늘은 원썩을 짓몽개버릴
무적의 철갑을

그리고 래일은...

선군으로 억세인 조국의 맥박이
용해공 이 팔뚝에 톡톡 마쳐와
선뜻 받아안을수 없는
새 강철지령!

불길 이글거리는 저 전기로는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인듯
돌격전의 병사마냥
사품치는 쇠물을 억세게 젓노라

그러면 용해공 이 손에
뜨겁게 덧놓이는 손과 손들
나의 체온처럼 느끼노라
천리방선 병사의 손도
농장벌쳐너의 손도
천길막장 탄부의 손도

온 나라의 뜨거운 손길들이
지령서의 그 시간을 앞당기자고
명령받은 그 시간을 지키자고

함께 쇠물 휘저으며 심장들을 끓이노라

오 조국이 이 아침
나에게 주는 새 강철지령서
우리 장군님 펼쳐가시는
승리의 붉은 화살표여!
강성대국건설의 오늘과
찬란한 래일이 숨쉬는 휘황한 설계도여!

나는 오늘도 엄숙히 받아안노라
우리 당을 강철로 결사옹위하는
용해공 내 삶의 한자욱이기도 한
새 강철지령서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믿음을!

나는 쇠물로 말하며 산다

최성국

병사가 총을 안고 그대와 이야기할 때
농민이 알찬 이삭으로 그대와 속삭일 때
조국이어! 용해공 나는
그대와 쇠물로 말하며 산다

저 땅속에서 끓어오르던 용암
지층을 뚫고 물줄기로 솟구치듯
쇠물폭포 맘껏 쏟을제
아, 용해공 내 삶의 희열이며 긍지인
쇠물, 이 쇠물아닌 그 무엇으로
조국이어 내 그대와 말할수 있단 말인가

온 하루 끓이고
한생을 끓여도
그대위해 바치는
사랑과 정으로만 뜨겁게 사품치는 이 쇠물

쇠물은
더없이 깨끗한 용해공 나의 진정
쇠물을 두고
조국이어 내 그대앞에 맹세했더라
첫사랑의 언약도
벗들과의 우정도

검은 머리 희여저도
조국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장군님만을 따르며 사품쳐 끓는
용해공 이 아들의 마음
오로지 쇠물에 담아가거니

강렬한 열과 빛을
거세차게 내뿜으며
뜨겁게만 불타는 쇠물
쇠물은 정녕
조국위해 바치는 나의 열정이고 의지
한생 조국앞에 부끄럼없을
용해공의 깨끗한 량심!

오 이 세상에 천만마디 말이 있다 하라
그것이 내 끓이는 쇠물보다
어이 더 뜨겁고 열렬할수 있으랴
끓으면 나도 끓는 붉은 물
식히면 량심의 응결체가 되는
나는 그것으로 조국과 말하며 산다

사랑이라면 쇠물처럼 뜨겁게
증오라면 쇠물처럼 무자비하게
위대한 선군조국이어!
강선의 용해공
나는 그대와 쇠물로 말한다
한생 쇠물로 말하며 산다!

인사를 받아다오

김춘식

인사를 받아다오

철의 기지 내 고향아

너를 지켜 총 잡았던 이 아들이

훈장을 번쩍이며 돌아왔다

반갑구나 사연깊은 구내의 백양나무여

저기 용해장 지붕우에 충천하는 화광이여

너와도 선참 병사식인사를 해야지

가슴빠근히 흘러드는 강철로의 동음

못잊을 추억을 불러내는 출강의 종소리여

이 아들의 진정어린 인사를 받아다오

잊을수 없구나

철없던 그 시절 아버지따라

용해장의 육중한 로앞에 서서

눈부신 쇠물빛을 보며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나날들을...

이 작은 가슴에도

쇠물이 무엇인지 안아보았기에

고향이여

차디찬 전호가 한밤에도

가슴은 쇠물처럼 뜨거웠고

최전연 원썩앞에서도

이 몸은 강철의 방패가 되었노라

어디가나 이 가슴에서 끓으며

내 마음 덥혀주던 쇠물

우리 장군님 따라갈 한생의 먼길에

끝까지 식지 말라고 심장에 불지펴준

그 쇠물 없었다면

이 가슴 훈장가득 번쩍이며

돌아올수 있었으랴 고향아 너의 품에

나를 키워 내세워준 고마운 고향아

받아다오 병사 이 아들의 심장을

이 땅의 쇠물이 더 뜨거워지게

강철로의 동음 더 억세여지게

내 고향의 붉고붉은 쇠물빛노을처럼

조국의 래일이 더 아름다워지게...

강선의 노을은 지지 않는다

김학률

푸른 잎새들이

전기로의 불빛에 붉게 물들어

끝없이 설레이는 백양나무

불노을 짙어가는 구내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웁기는 자욱자욱

못잊을 추억의 갈피를 번지노니

기적을 창조한 천리마의 발굽소리 들리어오고

천리마휘장으로 시대가 번쩍이던

그 나날들이 어려온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심장과 심장들이 이 물음을 안고

천리마의 고개를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불같이 달려온 나날들이었다

이글거리는 저 전기로속에

사대와 교조가 녹아내렸고

신비와 보수가 불타버렸더라
타오르는 저 불길속에
끓는 심장들이 강철로 다져지고
선군의 총대가 버려졌더라

오, 노을이여
강선의 붉은 노을이여
너는 그날의
천리마 탄 우리 아버지들이
머리우에 펼쳐든 하늘이었고

수령님과 당을 믿고
한생을 이고산 강철지붕이였거니
강선의 하늘이 된
그 붉은 노을아래서
오늘은 우리 세대가
천리마 날았던 그 하늘길로
선군의 롱마타고 질풍같이 내달거니
영원히 지지 않는 강선의 노을로
이 땅을 붉게붉게 물들이며...

우화

어리석은 말벌

손광제

독침을 《만능의 보검》 으로 내뿜두르는 말벌
오늘 뒤편이 켜기는 소문들었네
요새 동산에서 그 누군가가 남몰래
독있는 침으로 약한 곤충들을 찔러눕히고
달아난다는것이였네

그런데 그것이 다름아닌
날개달린 곤충이라는것이였네
(이 일을 어쩐다
내가 한 행동이 다 발각되겠는데...)
때마침 꿀을 따가지고 가는 꿀벌을 본 말벌
혼자 증얼거렸네

《저놈의 침만 없어도
당장 꿀창고를 터는건데... 그렇지
저 꿀벌이 나와 비슷하니
저놈에게 뒤집어씌워야겠군》

다음날 여러 곤충들이 모인 앞에서
말벌이 씨벌었네
《저 꿀벌을 좀 보우
이 시퍼런 대낮에도 남에게 공포를 주는
침을 빼앗기 가지고 다니니
우리가 어떻게 맘편히 살겠소
난 저 꿀벌의 침을 아예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두주먹 부르짖고
열변을 토하는 말벌을 본 곤충들
그제야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였네
그리고 말벌앞에 사마귀 나서며 말했네

《이 철면피한 놈아
장본인은 다름아닌 네놈이다
네놈은 남을 잡아먹어야 살지만
저 꿀벌은 꽃에서 꿀을 만들어먹고 산다
그러니 남을 해치는 놈이
누구라는거야 명백하지 않니?》

사마귀의 말에
동산의 곤충들 호응했네
《옳아, 꿀벌은 자기를 해치려는
나쁜 놈이 달려들기 전엔
절대로 침을 쏘지 않아
저런 놈은 동산에서 쫓아내야 해》

끝내는 말벌
제가 한짓 모두 드러나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았네
나쁜짓 골라하던 값
톡톡히 받고야말았네



김영일

그해 가을은 바람이 왜 그리도 세차게 불었던지. 내 일생에서 그때처럼 가을바람이 차고 음산하게 느껴진적은 없는것 같다. 그 울씨년스러운 가을바람속에 락엽은 또 얼마나 많이도 떨어졌던가.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기마련이다. 그러나 땅속에 뿌리를 든든히 박고 선 나무는 꺼꾸러지지 않는다...

그때 《치안대》 감방에서 나는 난생처음으로 생명이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처럼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껴본적이 없었다. 나는 살고싶었다. ...인민군대의 포소리가

북쪽으로 멀어져가고 미군놈들의 미친듯 한 총소리에 락엽이 어수선하게 흩날리던 1950년 늦가을이었다.

×

봄을 맞은 대지의 훈훈한 숨결인듯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동구길, 어린애의 미소처럼 밝고 쟁쟁한 봄날의 해별이 눈부시게 차넘치는 파아란 하늘아래 즐거웁게 솟구치는 종달새인양 청청하게 날아올라 퍼져가는 딸애의 목소리 《아-버-지-이, 나도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그것은 분명 꿈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시처럼 여겨졌다. 선뜻 눈을 뜨고싶지 않았다. 마치 술에 취한듯이 추억에 취해버린것이다. 그 행복하고 즐거웠던 봄날... 다시한번 더 그려보고 듣고싶었다.

그러나 들려오는것은 어둠속에서 나직하게 울리는 석실한 목소리였고 보이는것은 고삭은 이영지봉의 틈새로 흘러드는 차거운 달빛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네사람이었다. 봉관령감, 정필이, 성환형님 그리고 나... 우리가 갇혀있는 곳은 원래 현물세창고였었는데 지금은 《치안대》 놈들이

감방으로 쓰고있었다.

창문이 없는 감방안은 대낮에도 어둡시곤하였다. 음침한 어둠속에는 썰렁한 랭기가 서려있었다. 불안과 공포와 실망에 젖은 침묵이 침울하게 떠돌았다.

그러나 한사람만은 절세없이 입을 놀리고있었다. 한구석에 검불을 쭈서넣은 가마니짝처럼 벽을 향해 쭈그리고 앉은 후줄근한 바지저고리차림의 봉관령감이였다.

《대자대비하고 령험하신 하나님아버지시여, 이 불쌍한 짐승을 부디 굶어살피소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소. 나무아미타불-》

미군놈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서 주어듣고는 잡혀들어오자부터 급작스럽게 《하느님의 아들》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는것이다. 하지만 령감의 엉터리 《기도》에 하느님이 감심하여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대노할것만 같았다.

《이 령감, 그건 뭐 녀불이요, 기도요? 남의 에미타발이 아니라 아멘-해야 되우다. 췌, 기도두 제대로 외울줄 모르면서...》

불안속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뽀족한 턱을 노상 가슴에 묻고서 말이 없던 정필이가 야유조로 핀잔을 준다. 봉관령감은 우묵한 눈이 덩돌해지더니 황황히 고개를 끄떡거리며 뒤더수기를 뱉뱉 굶는다.

《어허, 그... 그렇됐구만. 여보게, 나 거 기도란 걸 아는대루 좀 대주게나. 엉?》

《췌, 늘그막에 룽갑을 치고있네. 거 그만쯤 살았으면 이젠 죽을 때도 됐는데 좀 조용히 있다가 죽구려. 이거야 어디 시끄러워서 견디겠소?》

《어-죽다니! 그 무슨... 끔찍한 소리!》

전부터 신통찮게 보아온 령감이였지만 어쩐지 그 모양이 측은하게 여겨진다.

죽음! 아니, 나부터도 죽고싶지는 않을것이다.

해방전이라면 몰라도 해방후 5년간 나라의 은덕으로 부러운것없이 꾸려온 내 생활- 새집과 기름진 옥토와 사람답게 사는 권리와 행복을 남겨두고 죽다니... 나는 저도 모르게 등골이 얼음에 닿은듯 오싹해지며 으시시 떨렸다.

새삼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느라니 어둠속에서 죽음의 싸늘한 입김인양 차거운 랭기가 흘러나와 온몸에 칭칭 서려들며 감싸는것만 같았다.

그때 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성환의 널찍한 잔등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그러자 어쩐지 불안에 질렸던 마음이 다소 꺾이는듯 했다.

성환은 저녁녘에 잡혀 들어왔었다. 나는 창고문이 벌컥 열리고 《치안대》놈의 총탄에 떠박질리우며 들어서는 그를 알아보자 무척 놀랐다.

《아니, 성환형님!》

그는 엉거주춤하며 자기를 맞는 우리 세사람을 둘러보더니 반가와하였다.

《다들 여기 있었구만!...》

《성환형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요?!》

나는 놀라움과 함께 그와 같이 산으로 들어보낸 안해와 딸애가 걱정되어 성급히 들었다. 그는 나무람과 자책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다.

《산에 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네. 인민유격대에 들었어. 헌데 자네들은...에이, 못난 사람들 같으니!》

그의 질책앞에 나는 머리를 푹 수그리었다.

정권기관에서는 며칠전 미군놈들이 들어오기 전에 마을별로 후퇴를 조직했었다. 성환은 우리 마을사람들의 후퇴를 책임졌는데 나는 집에 찾아온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형님, 그러니 이 집이랑, 곡식이 다 여문 저 땅을 통채로 떠지고 갈수도 없고... 내버려두면 양코놈들이 죄다 난탕을 칠게 아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변변한 집은 물론 제 땅 한뼘기조차 없던 사냥군이였다. 그나마 말이 사냥군이진 실은 지주놈의 사냥터지기겸 물이군이였었다. 그렇게 산속에서 근근히 살아오던 내가 해방후에야 비로소 땅을 분여받고 마을에 새집도 짓고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남달리 집과 땅이 귀했고 그것을 버리고 간다는것은 생각도 못할 일처럼 여겨졌다. 결국 후퇴대렬을 따라가던 나는 안해와 딸애가 매달리는것도 뿌리치고 성환이 몰래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러나 읍에 미군놈들이 들어오고 《치안대》라는것이 생겨나자 나는 마을에 남았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감옥에 잡혀오게 되었다. 뽕뽕한 불안과 행여나 하는 미련속에 가슴을 조이던차에 산에 올랐던 성환이 유격대의 경찰임무를 받

고 마을형편도 알아볼겸 남은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마을로 내려왔다가 놈들에게 붙잡혀 감방으로 들어오게 된것이였다. 나는 후회와 자책속에 그를 선뜻 마주볼수가 없었다...

이제는 나의 머리속에서 설마 하던 생각이 낫질에 허리잘린 풀대처럼 푹 꺾이우고말았다.

난생처음 보는 노랑대가리에 짐승같은 노린내를 역스럽게 풍기는 미군놈들-자기들을 《해방자》(도대체 누구를 무엇에서 해방시켰다는것인지)라고 그리고 떠들어대는 양키들의짓을 보면 《해방》된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놈들자신인듯 하였다. 마치 우리에서 뛰쳐나온 미친 야수들의 무리인양... 게다가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치안대》라는것들이 생겨나 미군놈들의 꿈무늬를 줄줄 따라다니며 하는짓들도 볼수록 억이 막힌다.

미군놈들은 우리와 피가 다른 바다건너 짐승족속들이니 그렇다치고 조선사람이노라는 《치안대》놈들이 날뛰는 꼴은 가증스럽다기보다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도대체 그것들도 조선사람이 옳은지, 해방후 5년동안 저런것들이 어떻게 우리곁에 배겨있었을까 하고 새삼스럽게 놀랍기만 하였다. 마치 어느 구석에 숨어있다가 7~8월 염천때 시궁창에 끓이는 구데기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증오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기만 할뿐이였다. 인민군대는 멀리 북쪽으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고 놈들은 공화국이 이제는 없다고 기고만장하여 짓어대고 있었다...

《헤, 내가 룡갑친다구? 살기만 한다면사 지랄이라도 할판이지. 죽은 정중이 산 개만 하다던가!》

《그렇게 살고싶은걸 왜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안했소? 진작 후퇴를 하자니까 종시 뽕대더니... 어째 그렇게 지각들이 없소?》

특 내지르는 성환의 노여운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쿵 찢었다. 그래도 우리를 건져보겠다고 이 사지판에 다시 찾아온 그였건만 우리는... 나는 부끄럽기짝이 없었다.

처음 감옥에 잡혀왔을 때에는 봉관령감과 정필이가 함께 있어 그리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았었다. 평소에는 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건만 사지판에 같이 들고보니 어느정도 의지가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얼마안있어 그들과 함께 있는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혐오감까지 생겨났다.

봉관령감은 해방전부터 땅마지기나 가지고있던 부유한 자작농이였었다. 마을사람들은 그가 지나간 뒤에는 돌멩이 하나, 벼짚 한오래기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지어 오줌이 마려워도 꼭 자기 밭에 가서 눈다는 령감이였다. 그런데 욕심쟁이들이 그러하듯이 겹은 또 어찌나 많은지 감방에 잡혀온 순간부터 즐창 우는 소리였다. 물론 나도 죽음이 두려웠으나 령감의 추한 꼴에는 환멸만이 앞섰다.

그런가하면 정필이, 어느때라든 흠 한점 물을 세라 툭툭 털던 모직양복을 흠벅에 톱 기대고서 벼짚을 두툼하게 깔고앉은 그는 줄곧 말이 없었다. 늘 멧처럼 삐딱하니 쓰고다니던 쥐색모자는 어디로 달아났는지. 맨머리바람인데 뽀죽한 얼굴에서 항상 령리하게 반짝이던 둥그런 말눈썹안경이 지금은 불안으로 부엌게 흐려져있었다.

그는 해방전에 조끼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투전판이나 거간판에만 찾아다니던 사람이었다. 난봉군인 지주아들 용일놈을 쫓아다니며 투전판에서 심부름도 해주고 함께 눈속임도 해가며 푼돈이나 벌군 하여 용일놈의 《심부름군》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그러던 그가 해방이 되고 토지개혁을 하게 되자 돌연 열성을 부리며 지주청산에도 따라섰고 마을일에서도 남달리 앞장서는 척 하군 하였다.

감방에 잡혀와서 용일놈이 《치안대》대장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는 하내비라도 만난듯이 신이 나서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해방전 투전판에서 용일놈을 도와준적이 있으니 결코 모른척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이였다.

정말 용일놈은 정필이를 잊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옛 투전친구로서가 아니라 자기 집을 들이치고 토지문서를 빼앗아내는데서 열성을 부린 악질 《빨갱이》로서 기억하고있는것이였다. 용일놈에게 불리워간 정필은 술한 매를 늘씬하게 맞고 래일이면 총살해치우겠다는 으름장만을 듣고 돌아왔다. 그뒤부터 그는 줄곧 사색이 되어 말이 없는것이다.

그 두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어째서인지 해방된 이듬해 가을 이 현물세창고앞에서 우리 네사람이 얼굴붉히던 일이 생각났다.

그해 가을에는 처음으로 제 땅에서 농사를 지은데다가 작황도 흐뭇하게 좋았다. 높고 파아란 하늘에 태양도 노상 밝게만 빛나고 금물결이 굽실거리는 대지도 풍요한 행복을 노래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냥 크고 넓어만졌다. 고마운 나라에 바치는 현물세라고 모두들 정성껏 벼를 베여 털고 골라서 창고로 날라왔다.

나는 현물세관정위원인 성환을 도와서 함께 창고일을 보았었다.

그런데 봉관령감의 현물세를 받아들일 때였다. 창고앞에 가져다놓은 벼가마니들은 어찌나 어설프게 찼던지 손가락도 쑥 들어갈만큼 날이 성글었고 아구리도 대충 조여서 말이 해끈 아낙네일처럼 벌려져있었다.

육하기 잘하는 성환은 대뜸 봉관령감을 닦아세웠다.

《여보, 이게 가마니요 중태기요? 그 집 토방에 쌓아놓은 벼가마니들은 어찌나 탐탁한지 쥐가 쏠다가 이발이 부러질 정도인데 현물세가마니들은 왜 이 꼴이요?…》

그 두사람은 이미 현물세관정때에도 한바탕 다루었었다.

현물세관정은 논밭의 등급을 매겨놓고 중간등급에서 한평방당 이삭의 무게를 달구어 예상수확고를 낸 다음 그에 맞게 현물세로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헌데 봉관령감은 자기네 작황이 시원치 않다면서 무작정 현물세량을 깎으려 들었던 것이다…

성환의 닥달질에 봉관령감이 얼굴이 벌개서 어물어물하는데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속에서 정필이가 한마디 씩둑거렸다.

《그 령감 골통이 썩었수다. 나라에 바칠거야 의례 더 잘 마련해야지. 쳇, 저따위 구두쇠한테 애당초 땅을 준게 잘못이지요.》

그러자 봉관령감은 싹누런 눈썹이 닭똥처럼 말라붙은 우멍스러운 눈을 치뜨며 맛대거리를 했다.

《무어야? 실루말이지 난 토지개혁을 했대두 땅을 더 받은건 없었다. 원래가 내 땅이었지! 헌데 네놈은 손끝에 흠뻑하는 날보담 건달부리는 날이 더 많은 주제에 웬 샷대질이나, 샷대질이나! 너같은 놈한테 땅을 준게 되려 잘못이다!》

나는 쓰거운 낯으로 그들의 말싱개기질을 밀막아버렸다.

《됐수다. 내가 갖다놓았던 든든한 가마니들이 있으니 이걸 죄다 옮겨쫓읍시다.》

나의 말에 봉관령감은 우뚝한 눈이 툭 튀어나올듯이 커지며 황황히 손을 내젓는것이였다.

《아, 아니 … 그, 그저 이대루… 내 이제 집에 가서 덧가마닐 가져오지, 엉? 이대루 달구세나.》

《흥, 령감네 가마니짝이래야 또 이 모양일테니 석철적은이 말대루 합세다.》

하고 통을 준 성환이 제잡담하고 봉관령감네 가마니아구리를 헤치기 시작하였다. 벼 한가마니쯤은 망돌다루듯 하는 성환인지라 가마니를 썩들어올렸다. 나는 그앞에 새 가마니를 벌려잡고섰다.

봉관령감은 불판우에라도 선것처럼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좌르륵-시누런 벼알들이 가마니안으로 사태처럼 쏟아져들어갔다.

《가만! 이게 뭐요?》

나의 다급한 웨침에 벼사태가 똑 멎었다. 나는 가마니안에 손을 넣었다. 깔끄러운 벼알들속에서 무엇인가 크고 딱딱한것들이 손끝에 마쳐왔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들었다.

《아니, 이거 ... 돌맹이가 아닌가?!》

성환이 기가 막혀서 소리쳤다.

나는 눈길을 어데 돌지 몰라 허둥거리는 불관령감을 쏘아보았다.

《에익, 이 너절한...》

야장간 숯덩이처럼 달아오른 성환이 버럭 고향을 지르면서 쏟아만 쌀가마니를 힝 하니 불관령감의 발치에 메어꽃았다. 령감은 기겁을 하여 《에쿠우-》 하며 엉덩방아를 찰는것이였다.

모여섰던 마을사람들속에서 비난과 야유의 응성거림이 들려왔다. 성환은 무거운 벼가마니들을 모조리 령감앞에 내팽개치며 성난 황소처럼 펄펄 뛰었다.

《령감 나라를 속여도 분수가 있지. 에익, 배은망덕한...》

언젠가 령감의 마누라가 급성충수염으로 곤경을 겪을 때 리인민위원장이며 서기장이 나서서 먼 읍거리까지 달려가 의사를 데려오고 수술을 하여 겨우 살아난적이 있었다. 그때 령감은 리간부들의 손을 부여잡고 고마운 인민정권이 마누라의 목숨을 건져주었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었다...

며칠후 리민주선전실에서는 현물세와 애국미헌납을총화하는 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불관령감의 행위를 두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인것이 정필이었다.

《다들 생각 좀 해보시오. 그래 우리가 해방전에야 얼마나 지지리도 못살았나요. 하지만 저 불관령감은 제 땅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배를 굶지 않았수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했어두 자기는 땅을 더 란게 없으니 해방덕을 본것도 없다고까지 췌친단 말이요. 췌-반동이 뭐 별게요? 바루 저따위 낫도깨비들이 건국을 훼방하는 반동이지요!》

나에게는 어쩐지 그의 말이 뭘 묻은 개가 겨운 개를 홍보는 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리와 먼의 일부 사람들은 그가 회의때마다 곧잘 연설도 하고 남먼저 만세도 부르는것을 보면서 정필을 돌보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핵심》이 그날저녁 회의가 끝난 다음 리일군들과 현물세판정위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는 자기도 애국미를 적지 않게 냈는데 어째

서 표창장이나 상품을 주지 않는가고 들이댔었다. 성환을 만나러 그곳에 갔던 나는 듣다못해 그에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뭘 바라고서 애국미를 냈소?》

그러자 정필은 대뜸 안경알을 번쩍이며 내앞에 다가들었다.

《아니, 네가 누굴 축잡는거냐? <찌굴이>네 사냥개노릇이나 해먹던게... 너 이번에 애국미를 많이 바친것두 다 쪼간이 있는줄 내가 안다. 현물세창고일을 거들어준답시구 거기서 빼돌렸지?...》

《뭘가 어째?》

주먹이 우들우들 떨렸다. 그의 알팍한 입술을 짓조겨주고싶었다. 나는 틀어진 주먹을 버쩍 들었다.

순간 나보다 두세살이상인 그의 작고 여윈 몸이 바람앞의 초불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안경속에서 겁에 질린 눈알이 애원하듯 내다보고있었다. 에익, 비루한것!

《다시 허튼 수작을 췌쳤다면... 뽕다구가 성하지 못할줄 알아라!》

그후에도 정필은 회의때면 열변을 토하고 제일먼저 큰소리로 만세도 불렀으며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였다. 불관령감은 구린내나는 두엄무지갈은 욕심더미를 챙기면서 저 하나만을 위해서 욕심스럽게 살았고...

푸실푸실한 벽밀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할 때 내곁에 나란히 누워서 천정에 눈길을 박고있던 성환이 불쑥 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그 <찌굴이>놈을 기어쿠 잡았어야 하는 건데...》

흙바닥에 침을 탁 뱉는 소리가 들려온다.

《찌굴이》란 우리 마을 지주였던 문가놈의 아들 용일놈의 별명이었다, 그놈은 아이적부터 온갖 못된짓은 도맡아놓고 하던 망나니였다. 동네 우물에 대고 오줌을 갈기지 않으면 이웃집 병아리들을 마당에 무저놓은 채무지속에 묻어서 죽이고 외양간에 몰래 불을 지르기도 하고... 《찌굴이》란 별명도 말총을 뽑으려다가 말발굽에 채워 입이 비뚤어진데서 붙은것이였다.

토지개혁후 어느날 밤 농촌위원회를 습격했다가 자위대원들의 총에 맞아 애비놈은 췌지고 용일놈만 겨우 도망쳐서 남쪽으로 나갔었다. 그러한 놈이 미군놈들을 따라 들어와 《치안대》를 못하고 대장이 되어 날뛰고있었던것이다.

《그놈이 날더러 <치안대>에 들랍디다. 허-그러면 살려준다나요.》

《뭘? 그놈이 아직도 자넬 저희집 사냥군으로 아는게로군.》

성환이 분개한 어조로 내뱉는다.

나는 말이 없었다. 낮에 용일놈이 지껄이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이봐 석철이, 너희 세상은 이젠 볼장 다봤어. 미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단 말이야. 미군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어.

살고싶거든 우리 <치안대>에 들어. 그 길만이 네가 살수 있는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공화국놈들은 죄다 죽어야 해.

살든가 죽든가, 잘 생각해봐. 너의 총쏘는 재간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니 공연히 목대를 세우지 말고 생각을 잘하라우!》

용일놈은 험상궂은 상판으로 권총을 내두르며 울러메기도 하고 구렁이 담넘듯 술술 얼리기도 하더니 하루밤 생각할 시간을 주노라고 했었다.

나는 생각해야 했다. 삶과 죽음가운데서 어느것을 택할것인가를. 시간은... 겨우 하루밤, 이제 날이 새면 놈들은 우리모두를 끌어낼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생각은 앞으로가 아니라 먼 뒤전으로 자꾸만 흘러간다. 해방전 어느날 사냥때에 있었던 일이 지긋게 되새겨진다...

《야!-》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는듯 했다. 크게 흠뻑지는 눈앞으로 시커먼 총구가 다가왔던것이다.

차거운 쇠불이가 이마에 와닿자 선했다. 음산한 전율이 등골로 줄달음쳤다. 나의 경악한 눈길은 방아쇠에 걸린 살진 손가락과 심술궂게 비뚤어진 입을 거쳐 오만한 패감으로 유리알처럼 번뜩이는 용일놈의 뺨눈에 가닿았다.

《어... 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 새끼, 내가 잡으려던 똥을 왜 쏘니?》

어릴 때부터 나는 문주주놈부자가 사냥을 할때면 아버지와 함께 지주놈이 준 사냥총을 가지고 따라다니곤 했었다. 실은 물이군치지였으나 아버지와 나는 늘 놈들보다 더 많은 짐승을 잡곤 하였다. 하지만 놈들은 우리가 잡은것을 몽땅 빼앗아가지였다. 그리고는 사냥개들에게 큼직한 고기덩어리를 던져주면서도 우리한테는 작은 새 한마리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용일놈을 따라 사냥에 나갔었는데 쉼빠드가 시누린 콩밭속에서 장끼 한마리를 툇겨냈다. 용일놈이 런겨퍼 두방씩이나 쏘았으나 배부른 장끼는 날개를 무겁게 푸드득거리며 거침없이 숲속으로 날아들어가고있었다.

어지간히 거리가 멀어지자 조급해진 나는 재빨리 사냥총을 추켜들었다. 야무진 총소리와 함께

장끼가 돌덩이처럼 내려쫓혔다.

잠시후에 말같은 쉼빠드가 큼직한 로획물을 물고서 쾅쾅쾅 달려왔다.

나는 저르기 으쓱해져서 장끼를 받아들고 화려한 깃털을 들여다보았다. 총알이 면바로 목을 뚫고 나갔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허리를 펴는데 뒤에서 거치른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리 내!》

서운하고 억울했으나 별수없이 용일놈에게 넘겨주었다. 놈은 비뚤어진 입을 흉하게 실룩거리더니 똥을 통채로 개한테 던져주는것이였다.

《너나 먹어라!》

나는 눈살이 꺾혔다.

《내가 잡은건데 가지기 싫으면 도루 줄게지 언제 개한테 주는거요?》

갓 스물이던 나보다 나이도 우이고 키꼴도 큰 용일놈은 심술과 적의가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핵 돌아서버렸다. 더러운 놈!

그런데 뒤에서 야멸찬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차갑게 번뜩이는 뺨눈을 쏘아보며 부르짖었다.

《난 작은 주인님이 농친걸 쏘어요!》

차디찬 총구가 이마를 쿵 들이찔렸다.

《이 머슴새끼야, 누가 널보구 쏘라고 하던? 우리 쉼빠드만도 못한 자식이 감히...》

방아쇠에 걸린 살진 손가락이 슬며시 움직이였다. 나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놈의 이그러진 상판에 살기찬 웃음이 비주름히 비껴갔다. 머리칼이 쭈뼛해졌다.

《딸깍!-》

빈 격침소리와 함께 야수의 울부짖음같은 너털 웃음소리가 찌그러진 입세에서 터져나왔다.

《으하하, 죽는줄 알았지! 히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놈의 너털웃음소리만이 귀전을 세차게 두들기며 가슴속에 모질게 파고들어 심장을 갈가리 찢어 헤집는듯 했다.

너털거리면서 멀어져가는 놈의 뒤편을 쏘아보던 나는 문득 손에 총이 쥐여져있음을 느꼈다. 쌍대배기사냥총에는 탄알이 한발 남아있었다. 나의 눈에서는 불꽃이 번쩍했다.

총을 쳐들었다. 겨누었다. 그리고 힘껏 방아쇠를 당겼다. 골짜기를 두들겨 흔드는 총소리...

허나 그것은 상상일뿐이였다. 나는 부잇한 눈으로 손에 든 총을 뚝없이 내려다보았다. 두볼로 굵다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억한 가슴을 쿵쿵 두들기는듯한 심장의 고동소리, 그것은 무엇인가 하소연하는것 같기도 하고 피타게 웨치는것 같기도 했다.

밭밑에서는 세빠드가 쭈그리고 엎드려 기름진 고기덩이를 물어뜯으며 만족한듯 공공 소리를 내고있었다. 그러면서 경계하듯 이따금씩 나를 향해 눈알을 희뜩거렸다. 마치 《넌 나보다도 못해!》 하는듯싶었다.

설음과 분노가 한덩어리로 되어 목구멍으로 치받쳐올랐다. 점점 커지는 심장의 고동소리와 함께 피타는 웨침이 가슴속을 팡팡 두들겼다.

《아니다, 아니야. 난 사람이다!》

굵은 눈물방울이 막대기만도 못한 총을 쏘아 떨어지는 손등위에 무겁게 떨어져내렸다.

그것은 세월의 이끼로도 아물어지지 않는 가슴저리는 상처였다.

귀뚜, 귀뚜- 찌르륵, 찌르륵-

풀벌레소리가 감방안을 가득 채웠다. 지곳게 울리는 그 단조로운 소리는 쉬임없이 땅을 파헤치는 꾸준한 농사꾼의 팽이소리같다. 뚜지고 또 뚜지는... 것처럼 나의 머리속에서도 생각이 깊어갔다.

그때 나는 왜 용일놈의 가슴팍에 총알을 쏘아 박지 못했는가?

그날저녁 아버지는 엉엉 울면서 설음을 터치는 나에게 구들이 꺼지는듯 한 한숨을 지어보였다.

《어찌겠니. 그놈들이야 주인이구 우린 총신세인데!》

그날의 가슴을 찢어발기던 아픔이 다시금 심장을 옥조이는듯 했다.

놈들은 또다시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를것이다. 어제날엔 내 손에 총을 쥐여주어 짐승을 잡아 바치게 했다면 오늘은 그대신 사람을 잡아다 바치게 할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치를 떨었다. 용일이 이놈, 네가 아직도 대 주인인줄 아느냐. 내것을 뺏으려는 네놈은 주인이 아니라 강도이다!

《석철동무, 공화국이란 판계 아니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땅이구 이 집이구 동무자신이란 말이요! 장군님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저 명희를 좀 보우. 이게 정말 우리 세상이지!...》

공화국창건이 선포되던 날 리위원장이 하던 말이 생각난다.

그날 딸애는 학교에서 조직한 씨클공연에 참가하여온 군안의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독창을 했었다. 해방전 밭고랑에서 낳은 천덕꾸러기여서 고랑녀라고 부르던 딸애의 이름을 밝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명희라고 고쳐불렀다. 아, 새말간 눈동자에 찰랑거리며 넘쳐나던 명희의 밝고 깨끗한 웃음... 그것이 새삼스럽게 귀중한것으로 여겨지는것이다.

어느해 봄날의 달밤이 생각난다. 저녁밥을 싸가지고 밭으로 찾아나왔던 안해와 딸을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하얀 둥근달이며 그보다 더 밝게 웃음짓던 우리 세 식솔의 모습... 나는 광충거리며 앞서가는 딸애 몰래 안해의 손을 슬며시 더듬어잡고 걸었다. 안해는 얼굴을 붉히며 잡힌 손을 뺏으려고 움지락거리면서도 정이 넘치고 행복에 겨운 미소만은 아낌없이 나에게 안겨주는데, 딸애의 쟁쟁한 노래소리가 산천에 울려간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아, 유정한 달빛속에 전없이 아름답고 정겨웁게 안겨오는 고향산천, 늘 보아오던 산천이건만 마치 꿈속의, 그림속의 무릉도원인듯싶다. 오랜세월 선조들의 《초가삼간에라도 즐겁게 살아보자》는 소박한 념원이 꿈같이 이루어진 우리 세상!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사랑하는 안해와 딸이 있어 귀중한 그 모든것이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주기에 사람사는 락이란 이런것이로구나! 하는 걱정과 환희가 온몸을 휩싼다. 신이 나서 앞서걸던 딸애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사이로 끼어들더니 나에게 바짝 다가서며 소곤거린다.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려는듯싶다.

《아버지, 나 이제 크면 대학에도 갈수 있대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된대요!》

《에구, 꿈같은 소릴...》

《뭘, 네가 대학엘?!...누가 그러던?》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딸애는 빠기듯이 대답하고는 내 손을 잡아흔든다.

《아버지, 나 정말 대학에 갈수 있나?》

나는 잠시 말을 못했다. 너무도 벅찬 생각에 머리가 쾅해졌다.

그러나 이어 그 어떤 확신이 가슴속에 가득 들어찬다. 그래 우리 세상인데 왜 명희가 대학에 갈수 없으랴!

나는 딸애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 선생님이 말했다면... 그렇게 될게다. 암, 되구말구. 허허, 우리 명희가 대학생이라! 좋지, 좋구말구!》

《에그나, 정말 그랬으면...》

《야, 난 대학에 간다. 가수가 된다-아!》

딸애는 드높고 하얗은 하늘을 향해, 부러웁게 내려다보는듯 한 달님과 못별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밝게 웃는다. 그 웃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였다.…

그런데 이제 그 웃음이 흐려진다면, 영영 빼앗기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 명희의 그 밝은 눈동자에 설음과 고통의 어둠이 드리우게 할수는 없었다.

행여나 가장집물을 지켜볼가 해서 남았던 나였건만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감방에 잡힌 신세가 되었다. 자기의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주인은 벌써 주인이 아닌것이다.

나는 살고싶었다. 불현듯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뇌리를 쳤다. 살아서 딸애의 그 웃음을 지켜주어야 하는것이다.

감방안에 서린 음울한 성적은 시간이 갈수록 생각을 더욱 날카롭게 버려주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 귀중한 모든것을 지켜내야만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없는 한가지 생각의 곪을 파고 또 파다가 그 만에야 지쳐버린 나는 깜박 선잠에 들었다.

또다시 꿈이 찾아왔다. 뽕얀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 동구길이다. 명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달려오며 소리친다

《아-버-지-이!》

그뒤로 노랑대가리들과 찌굴이놈이 피묻은 손을 내들고 쫓아온다. 나는 허겁지겁 딸애를 향해 달려나간다.

《명희야, 이놈들 안된다. 그 앤 못다쳐!》

그러나 놈들은 어느새 명희의 뒤에 바싹 따라섰다.

찌굴이놈의 손이 금시 덮치려드는 순간 명희가 그만 넘어진다.

《악!》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나의 심장을 쿵 찢른다.

나는 있는 힘껏 고함쳤다.

《이놈들아, 안된다. 안돼!》

나는 소스라치며 눈을 번쩍 떴다. 생시인듯 너무도 선명하고 생생한 꿈이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틀어쥐었다.

《명희야, 이 아버지가 있는 한 누구도 너를 어찌지 못하게 할테다!》

그 순간에야 나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 싸워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그러자 딸애의 한껏 웃는 모습, 즐겁게 노래하는 그 귀엽고 대견한 모습이 눈앞에 가득 안겨왔다. 그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모든것이었고 내가 지켜싸워야 할 공화국이였다.

이영이 엉성한 천정에서 푸름한 새벽빛이 흘러 내리고있었다. 새날이 밝아오고있는것이였다.

우리 네사람은 《치안대》마당으로 끌려나갔다.

사진기를 든 미군장교놈과 《치안대》놈들이 우

리를 빙 둘러쌌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한 표정들인데 술과 락탈과 살륙으로 해서 동공이 게풀어진 눈썹마다에는 광적인 빛이 번뜩이고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승냥이무리같았다.

살벌한 기운이 겨울날의 맵짠 추위처럼 뼈짚으로 스며드는듯 하였다.

용일놈이 미군장교놈을 힐끔 쳐다보더니 한걸음 앞으로 나서는것이였다.

《에-듣거라. 미군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이다. 바로 너희들을 공화국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고 왔단 말이다.

이 미군장교님은 너희들이 빨갱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마을에 남은것을 대견하게 여기고계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살려주자는거다. 그대신 한사람씩 나서서 미군장교님한테 자유세계에 충실하겠다는 맹세를 해라. 끌어엎드려서 말이야…》

열이 올라서 뒹어대던 용일놈의 희떠운 수작이 돌연 터져나온 묵직한 기침소리에 툭 끊기웠다. 성환이였다! 그는 용일놈에게로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미군놈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주었던 말이지?》

용일놈은 잠시 눈을 데룩거렸다. 그러더니 미군장교놈을 다시 힐끔 쳐다보고는 머리를 끄떡였다.

《암, 너희들은 공화국의 치하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몸이 되였다.》

《허, 우린 공화국세상에서 한번도 바줄에 묶이우고 감방에 갇힌적이 없어. 현대 지금은 이게 뭐냐. 이렇게 자유냐?》

용일놈의 찌그러진 입이 금시 흉하게 이그러졌다.

《이 자식이! 너 토지개혁뎌 농촌위원이였구 그 후엔 현물세판정위원을 했다지. 신통히 빨갱이수작을 하는걸 보니 네놈도 로동당원인게구냐?》

《그렇다!》

성환은 꺼리낌없이 대답했다.

《흠-모범농민으로 표창장도 받구?》

《그래!》

용일놈은 이그러진 입을 묘하게 찌긔하더니 코웃음을 날렸다.

《너 살구싶지 않아?》

《…》

《살구싶을테지. 아무리 빨갱이라도 사람이니까. 널 살려줄테니 미군장교님앞에 끌어앉아서 한마디만 해라. <공화국은 이제 없다>하구 말이야. 어서!》

성환은 어처구니 없다는듯 코웃음을 쳤다. .

이때 지금까지 용일놈의 뒤편에서 흥미있다는 듯이 지켜보던 미군장교놈이 불쑥 나서며 제법 알아들을수 있게 조선말로 지껄어댔다.

《당신은 살고싶지 않은가?》

아마 어느 조상때 이 땅에 기여들었던 선교사의 후예인듯싶었다. 성환은 멋없이 짓어대는 개를 흘려보듯이 놈을 쏘아보았다.

《살구싶다. 우리 공화국세상에서... 마음껏 길이 살린다!》

《공화국?... 그런데 그 공화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미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아직도 공화국을 찾는가?》

미군놈은 자못 놀랍다는 표정으로 빈정거렸다. 그러나 성환의 얼굴에는 근엄한 표정이 어리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똑똑히 보라. 공화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억센 가슴을 불쑥 내밀며 힘있게 말했다. 미군놈의 눈이 한순간 쾅해지는것이였다.

《당신이... 공화국이란 말인가?》

《그렇다. 공화국은 바로 이 심장속에 살아있다. 우리 사람들모두가, 이 나라 사람들모두가 살아있고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공화국은 영원한거다. 이땅처럼, 저 하늘처럼!...》

정황의 단호하고 힘있는 어조에 기가 질린듯 미군놈은 쇠메에 맞은 병든 황소꼴이더니 살기에 찬 노랑눈깔을 번뜩이며 고아댔다.

《노우-노! 그렇다면 난 너를 죽일테다. 그래도 공화국이 있는가?》

《어리석다.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 공화국은 어찌지 못해. 조선사람모두를 다 죽이기 전에... 그래도 우린 굴하지 않는다. 굴하지 않아!》

미군놈은 《치안대》놈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야, 모두 이놈을 쏘라. 쏘란 말이다!》

그러나 성환의 당당하고 엄엄한 모습에 놀려서인지 놈들은 발길에 채워 꼬리를 사타구니에 꽂진 개처럼 슬슬 몸을 사리려 했다. 그러자 악이 반친듯 미군놈은 권총을 빼들고 놈들을 위협했다.

《어서 총을 들라. 안들면 모조리 쏘죽일테다!》

그 소리에, 눈앞에 다가드는 총구에 겁을 먹은 놈들이 주춤주춤 총을 꼬나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도도하고 불같은 성환의 기상앞에 놈들은 기를 펴지 못했다.

성환은 추상같은 호령을 내질렀다.

《이 벌거지만도 못한 놈들아, 그래 공화국이 너희들에게 밥을 안주더냐, 땅을 안주더냐! 제 부모버린놈들은 옛날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이 쓸

개빠진 열간망둥이들같으니. 저 양코놈이 너희네한테 뭘 준게 있다고 굵적거리는거냐!...》

그리고는 미군놈을 향해 웨쳤다.

《이놈아, 잘 알아들라. 이 나라엔 이따위 개들보다 공화국의 진짜 주인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공화국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영원하단 말이다!》

이어 놈의 상관을 향해 가래를 돈구어 힘껏 내뱉었다. 총성이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듯 피땀락엽 하나가 눈앞으로 너울너울 날아 떨어진다.

나는 눈을 감았다. 천길 낭떠러지끝에 선듯싶더니 금시 온몸이 허공에 붕 뜬것 같기도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의 눈에는 악에 받치고 당황하여 허둥거리는 놈들의 물결이, 그러면서도 어쩔지 겁에 질린듯 한 놈들의 눈깔이 함정에 빠져 단말마를 하는 야수의 그것처럼 안겨왔다.

그 어떤 비장한 생각이, 결심이 나의 뇌리와 심장속에, 온몸에 들어차는듯 했다. 한편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것이였다.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다만 나도 성환이처럼 장하게 싸워야 한다는 각오가 굳어질뿐이였다.

미군장교놈은 악의에 찬 어조로 알수 없는 꼬부랑말을 씨벌이더니 역증어린 눈길로 용일놈과 줄개들을 흘려보며 터벌터벌 마당에서 나가버렸다. 더 있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였다.

송구한 낯짝으로 머리를 숙이고있던 용일놈은 살기와 악의가 넘치는 표정으로 줄개들과 남은 우리 세사람을 쏘아보았다.

《이 새끼들, 모조리 죽여버릴테다-아!》

그때 털썩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에 젖은 락엽들이 찍힌듯이 널려있는 땅위에 후줄근한 바지저고리가 었드려있었다.

《어이구- 난 죽지 않겠수다. 살려...주우!》

메스메스한것이 목구멍으로 치받쳐올라왔다. 용일놈의 축축한 지껄임이 봉관령감의 머리에 떨어졌다.

《네따위 늙은 노새는 필요없어 !》

《이보슈. 제발 하느님을 봐서라두...》

용일놈이 내뱉은 침이 잔등우에 떨어지자 령감은 쇠덩이에라도 맞은듯 풀썩 쓰러졌다.

《너의 그 <하느님>한테 보내줄테니 내 땅에 거름이나 보태거라!》

가차없는 총소리...

가련한 죽음이였다. 나는 치를 떨었다...

《그래 너희들도 이 꼴이 될테냐, 아니면 무릎을 꿇겠는가?》

용일놈의 오만하고 살기면 눈초리가 나와 정렬이를 노려보고있었다. 시커먼 총구가 눈앞에 다가왔다. 저도모르게 속이 후두둑 떨렸다. 하지만

눈길을 총구에 모으는 순간 오래전의 일이 다시금 생각났다. 그때는 주인과 종으로서 마주섰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인과 강도로서 마주선 것이다. 제 집에서 강도앞에 무릎을 꿇다니, 안된다. 안돼! 나는 속으로 부르짖으며 총구를, 용일놈의 낫짝을 쏘아보았다.

그때 곁에서 기가 질린 떠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난…살려주면 시키는대로 다…하겠수다. 제발…》

《흠-네가? 너도 공화국에 꽤 열성분자였다더니 어찌 맘을 고쳐먹었어?》

《그, 그건…사실 난 공화국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사, 살아가자니까…》

그랬었구나!… 어째서인지 놀랍지 않았다. 그저 그 알팍한 입술을 다시한번 보고싶었다. 평시에 누구보다 만세를 그리도 잘 부르더니 지금은 그 입으로 뭐라고 짚어대고있는가!

가소롭고 역겹고 분노가 치밀었다.

《좋-다. 그럼 살려줄테니 어서 뚫어엎드려. 내 앞에 꿇어 엎디란 말이야!》

털썩! 용일놈의 발이 정필의 잔등우에 올려졌다. 정필은 죽은듯이 까딱하지 않았다. 정녕 저렇게라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용일놈은 의기양양해서 나를 바라보며 씨벌여댔다.

《석철이, 봤지? 이런 <열성분자>도 무릎을 꿇는데 넌 아직도 뽕대겠단 말인가?… 내 옛주인된 인정으로 하루밤 더 시간을 줄테니 다시 생각해봐라. 야-감옥에 끌어가라.

그리구 정필이 넌 이 시체들을 치우고 피자욱 이랑 깨끗이 지워버려. 그담엔 땔나무를 패구.》

감방으로 끌려가면서 나는 다시한번 정필을 바라보았다. 나의 서늘한 눈길앞에 그는 머리를 깊숙이 수그리는 것이었다.

정필이, 명심해라. 개는 사람으로 될수 없지만 사람은 개처럼 될수 있어!

또다시 벽밑에서 귀뚜라미가 울고있다. 나는 뒤결박을 당한채로 짚더미우에 누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귀뚜, 귀뚜… 나는 지금 혼자뿐이다. 어제밤에 저 소리를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더는 내곁에 없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환형님, 내가 잘못생각했댔소. 그때 형님말로 산에 함께 들어갔어야 했을텐데 설마 하고 생각했었으니… 현대 난 형님앞에. 나라앞에 또 죄를 지었수다. 저 찌굴이놈이 왜 나를 살려주었겠소? 아마 내가 비겁해보였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날 어쩌보자고 살려주었겠지요. 보시오. 놈들은

감방보초마저 세우지 않고 술추렴을 하고있소. 내가 저것들한테 어떤 꼴로 보였는가보오. 현대 이상하지 않소? 죽기는 싫었지만 막상 살고보니 이게 더 가슴에 맺히우다. 마치 오강뚜쟁으로물을 떠마신것처럼. 그러니 찌굴이한테는 내가 정필이나 다름없는 인간으로 여겨진게지요. 아니, 난 그렇게는 살지 않겠수다. 믿어주시오. 내 이제 형님몫까지 해서 내가 할바를 할테니까!

이보우, 봉관령감. 령감은 늘 제 목숨이 귀하고 자기 재산이 귀한것만 알았지 나라가 무엇인지 얼마나 귀중한것인지는 몰랐소. 그걸 몰랐으니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거요!…

생각을 더듬는 나의 눈앞에 뚜렷한 모습들이 안겨온다.

미군놈과 곳곳이 맞서 싸우는 성환의 장한 모습, 그와 대조되는 봉관령감이며 정필의 추한 몰골들… 그리고 벌써 몇번이나 찾아오는 딸애의 모습도, 그 환한 미소가 가슴을 쿵 찌르며 안겨온다. 어디선가 그애의 맑은 노래소리도 들려온다. 나는 불현듯 감옥바닥에서 몸을 솟구었다. 그리고 결박당한 팔과 온몸에 힘을 주었다.

정신이 가물거릴 때까지 온몸의 힘을 팔뚝에 집중하였다.

툭!-

…결박을 한 바줄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쉽게 끊어져나갔다. 그것을 들여다보니 새삼스럽게 분한 생각이 들었다. 이따위 바오래기에 맥없이 묶여있는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자책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다음 이발을 사려물고 토담벽에 달라붙었다. 한동안 신고하니 토담벽에도 구멍이 뚫리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구멍을 넓히었다. 찌굴이 이놈, 기다려라!

…이전의 지주집으로 조심히 새여들어간 나는 코고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사랑방의 미닫이를 슬그머니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어둠에 익숙해진 나의 눈은 푸름한 달빛이 피피하게 비쳐드는 벽에서 낮익은 사냥총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벽걸이에서 벗겨들었다.

나는 이부자리에 어푸러져 모주먹은 돼지처럼 씨근거리며 자고있는 용일놈의 이마뺨에 총구를 들이댔다.

《뭐, 뭐야?》

놈은 잠결에 게두덜거리며 옆으로 돌아누우려 하였다. 나는 총대를 지그시 내려박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가 왔다!》

《어-영?》

제스처를해서 껌벅거리던 눈썹이 대뜸 툭 불거져 나왔다.

《움쩍말아!》

《서, 석철이…》

《너한테 대답을 하려고 왔다. 어디 다시 지껄여봐라. 우리 공화국이 어쩔다구?》

용일놈은 비뚤어진 입을 앙다물었다.

《너희네 공화국이라구? 그게 도대체 어디 있어? 다 북쪽으로 밀려갔는데…》

나는 총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엄숙하게 말했다.

《꼭바로 봐라. 이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흥, 그건 내 총이 아닌가?… 그전에 너 그 총을 쥐고도 날 쏠 엄두도 못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쏘겠다구?》

《옳다. 그땐 네놈을 쏘지 못했다. 난 짐승만도 못한 처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난 사람이고 너 흉악한 짐승이야. 이제 난 너같은 짐승들을 모조리 쏘아잡을테다!》

용일놈의 눈에 돌연 겁기가 비졌다.

《여, 여보게 석철이, 제발… 날 살려주게. 영?》

나는 결연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 너 죽어야 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너 뉘지기 전에 푹푹히 알아둬라. 지나간 세월을 다시 되돌려세우지 못하는것처럼 너희 세상은 아무리 날쳐도 다시 오지 못해.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영원하다. 공화국은… 이 총

이구 우리 사람들모두이고… 우리의 오늘이고 래일이기때문이다!》

놈의 입에서 거품이 피어올랐다.

《그래. 날 썰라. 네가 날 죽이고 무사히 살아날 것같으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다. 너 죽고 나는 살아야 해!》

나는 힘있게 방아쇠를 당겼다.

시뻘건 불줄기가 발악하러던 놈의 골통을 뚫고 나갔다. 비명소리대신 힘차고 아무진 총소리가 방안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동터오는 새벽하늘가로 날아퍼졌다.

그것은 야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인간의 승리. 공화국의 영원을 선언하는 우렁찬 웨침이었다!

×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흘러갔다.

오늘은 나의 손자가 총을 잡고 전연초소를 지켜서있다.

공화국과 총, 총과 미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도 총이였고 그것을 영원히 지켜주는것도 총이다.

그 잊을수 없는 50년가을에 나는 이것을 심장에 새겼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 가을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곤 한다. 잊지 말라고, 영원히, 영원히!

가사

일심단결아리랑

문기창

우리 서로 마음속에 뜻이 같아 아리랑
손을 잡고 혁명의 길 함께 가니 아리랑
장군님 한품에 천만이 뭉쳤으니
아리랑 내 나라는 일심의 강국이요

동지애로 한가정이 되었으니 아리랑
믿음으로 친혈육이 되었으니 아리랑
장군님 따라서 천만이 뭉쳐가니
아리랑 내 나라는 단결의 강국이요

가슴속에 뿌리내린 우리 일심아리랑
대를 이어 다져가는 우리 단결아리랑
장군님 옹위해 성벽이 되었으니
아리랑 내 나라는 불패의 강국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요
조선의 아리랑은 일심단결아리랑

시조

이 땅에 통일이 온다

박세욱

아름다운 꿈

그리워 꿈에도 그리워
이 땅에선 만나는것조차 어려워
긴 가시철조망이 장벽이 지뢰밭이 막아
꿈으로밖에 만날수 없었던 이 땅에서
하나 하나의 따스한 꿈이 모이고모여
이제는 꿈이 아닌 생시가 된 꿈
생시가 되어 서로 부둥켜안고

부둥켜 안고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꿈을
나는 자주 꾸노라 환희에 나래치며
6. 15가 후련히 열어준 하늘아래서
뜻도 혈맥도 넓도 하나로 되는 꿈을
아름다운 통일의 꿈을

나는 밀노라

가끔 나는 생각하노라
통일이 불쑥 찾아올것만 같은
그렇게 문득 맞이할것만 같은

문득 내 8. 15를 맞았듯이
긴 고동소리 울리는 동구길에서
문득 내 7. 27을 맞았듯이

그날에 그 뉘 생각이나 했던가
조국해방이 8. 15 그날에 오리라고
그날에 우리 생각이나 했던가
전승의 그날이 바로 7. 27에 오리라고

그렇게 오리 통일은 문득
우리는 통일의 생명에
피와 살과 심장을 다 바쳤거니
그날로 가득한 이 마을에 그렇게 오리
8. 15를 내 맞았듯이 7. 27을 내 맞았듯이

자고 깬 이른 아침에

우리 민족끼리

이 땅에 외세가 없다면
아마도 조국은 통일된지 오랬으리
이 땅에 외세가 없었다면
군사분계선도 전쟁의 참화도
오늘의 핵전쟁위협도 이 땅에 없으리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남쪽땅에 외세가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벌써 통일강국이 되었으리

화목과 안식이 이 땅우에 나래치리
이 땅우에 명화가 깃든지 오랬으리

우리 민족의 가슴가슴에 웅어리진
분렬의 암, 불행과 고통의 암
미제를 이 땅에서 들어내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민족대단결로 삼천리가 진감할 때
그때면 이 땅에 통일이 온다

그날의 나를 본다

통일렬차의 첫 기적소리
가슴은 뛰고 눈굽은 젖어온다
나에겐 생각되여라 마치 그 소리
통일의 메아리를 남기고
먼저 우리결을 떠나간 그들의 목소리인듯

멀리 기적소리 사라져도
내 마음에 그득차는 기적소리
자기의 목숨으로 이 땅에 통일을

한걸음 한걸음 당겨놓고
지금은 소리없이 땅밑에 누워있는 그들

통일의 환호로 진감하는 이 땅은
어쩐지 흠만갈지 앓구나
저 통일렬차의 침묵을 떠받든
그들을 생각하며
환희의 눈물에 젖은 손수건을 쥔
그날의 나를 본다

먼 후날에

내 이 시를 씀은...
먼 후날에 먼먼 후날에도
우리에 대하여
말하리 우리의 후대들은
오늘의 우리가
백년 천년전에 대해 말을 하듯이

그렇게 그들은 말하리
그때 분별을 모르는 그들은
남으로 북으로 오며가며
우리에 대해 오늘의 통일에 대해
옛말처럼 말하리

그들은 반세기 넘어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해 다는 알수 없으리
우리가 당한 불행을 알지도 못하리
그것을 겪은 우리들처럼
그들이 어찌 알수 있으랴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싶다
만약 그때에도 미제가 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이 있다면
미제는 우리의 분별의 원쑤였음을
두고두고 잊지 말라고
우리처럼 미워하고 용서치 말라고
...

그때문에 나는 이 시를 쓴다

유모아

《 ? 》

어느 한 유명한 작가가 이웃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그 나라 수도에서 제일 큰 책방에 가보려고 결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책방주인은 너무나도 기뻐서 작가에 대한 자기의 존경과 환영을 보여주려고 바빠 돌아왔다. 이리하여 책방의 책들이 모두 내리워지고 진렬장마다는 온통 그 작가의 책들로 가득 찼다,

이 책방에 온 작가는 보이는 책이 모두 자기의

책이라는데 처음에는 기뻐고 다음에는 놀랐다.

《어찌된 일이요. 다른 작가들이 쓴 책은 팔지 않는가요?》

책방주인은 덤벼치며 대답했다.

《물론 팔지요.》

《그런데 왜 다른 작가들의 책은 보이지 않는가요?》

《그건 저- 저... 다 팔렸답니다.》

《?》

밤열차의 기적소리

송병준

나는 얼마전에 북과 남의 합의에 따라 개풍과 문산사이의 철도가 곧 개통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접했다.

드디어 반세기가 넘게 끊어졌던 나라의 동맥이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나는 곧 개풍역으로 달려갔다. 날이 저문 저녁이었다. 나는 기차를 탈 승객처럼 역구내에 들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떠날 시간을 기다리듯 흥분된 기색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열차는 방금 출발을 앞둔듯 제동을 풀며 기적소리를 기운차게 울렸다. 나는 그만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굳어졌다.

밤열차의 기적소리! 아, 얼마나 오랜 세월 이 가슴속에 서글픔을 안겨주던 음향인가.

어디에 가서는 때없이 밤열차의 기적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심란해지며 잊을수 없는 피로운 추억에 빠져들곤 했다. 56년전 서울역두, 철쭉은 가을비가 주룩주룩 떨어지고 작별하는 세모자의 눈물겨운 그 정상이 불현듯 나의 눈앞에 떠올랐다.

밤차의 기적소리는 어서 헤어지라 재촉하는듯 구슬프게 울리는데 가슴아픈 작별을 하는 우리 세 모자는 눈물만 비오듯 흘릴뿐이었다. 그때 내 나이는 일곱살이었고 서울에서 깨엿장사, 물지게장사를 하며 고학을 하던 형님은 열다섯살이었다. 그무렵에 우리 가족은 군사분계선 말뚝이 박힌 남쪽의 연안땅에서 살았다. 우리 집에서는 고학을 하는 형님에게 학비를 보태주기 위해 온 집안이 떨쳐나서 돈을 벌려고 애썼다. 나는 둘째형과 하루종일 논고에서 물참봉이 되어 미꾸라지를 잡느라고 반두질을 했고 어머니는 물고기를 초롱에 담아 서울로 올라가서 판 얼마간의 돈을 형님의 손에 쥐여주고 돌아오곤 했다. 원래 미꾸라지는 누구도 먹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인종이 많은 서울의 어물점에서는 녹거리로 사주었다. 1949년 가을이었다. 그해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간만에 미꾸라지초롱을 들고 형님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일이 안될 때라 우리는 기차칸에서 물고기초롱이 전무에게 발각되어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기차에 비린내 풍기는 물고기를 실었다고 벌금을 물었고 초롱은 달리는 기차의 창밖으로 내던져졌다. 나와 어머니는 할수없이 다음역에서 내리여 초롱을 찾아 20리길을 걸었다. 다행히도 늑가에 던져진 초롱은

감탕판에 깊숙이 박혀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다시 초롱을 보자기에 쫓다듬 후에 오는 차에 올랐다. 서울의 동대문 어물점해서 미꾸라지를 팔고 호떡 몇개를 산 우리가 형님이 하숙하는 집을 찾아 갔을 때는 저녁이 썩 지났을 때였다. 그때까지도 깨엿목판을 메고 나간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에는 깨엿을 팔고 새벽에는 물지게를 지고 집집을 찾아 다니며 물을 판 돈으로 중학공부를 하는 형님이었다.

저녁도 먹지 않고 형님을 기다리며 하숙방에 앉아있노라니 밖에서 《군밤사세요!》, 《군고구마 사세요!》 하는 처량한 소리가 쉬임없이 들려왔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하숙집에 피투성이 된 형님이 나타났다, 어머니와 나는 깜짝 놀랐다. 사연인즉 형님이 깨엿목판을 메고 미군병영결을 지나는데 보초놈이 찾더라는 것이었다. 형님은 멋모르고 보초놈의 곁으로 가니 깨엿목판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공짜로 처먹겠다는 수작이었다. 형님이 거절하고 돌아서자 놈은 군견을 풀어놓았다. 사납게 달려드는 군견에게 여러곳을 물리고 간신히 피해 돌아온 것이었다. 생각할수록 원통하기 그지없었다. 미군놈들이 이 땅에 기여들어 주인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도 어디 가서 하소할데가 없었다. 어머니는 피흐르는 형님의 다리를 싸매며 슬피 울었다.

《야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공부를 해야 소용없을것 같다. 미군놈들이 있는 한 이남땅은 사람살데가 아니다, 우리도 38도선을 넘어가자. 그곳은 우리같은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형님에게 설복했다.

《어머니, 이제 얼마 안있으면 졸업이예요. 학교나 마친 다음 생각해보자요.》

형님은 한가닥 미련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불행이 될줄이야.

다음날 밤, 나와 어머니는 형님을 하숙방에 남겨둔채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겨 서울역으로 나왔다. 가을비가 내리고있었다. 형님을 하숙방에 눕혀놓고 우리만 기차에 오르니 어린 내 마음도 슬프기 그지 없었다. 이때 기적소리가 밤공기를 흔들며 세차게 울렸다. 나는 왜 그런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때였다. 바래주는 사람들속에서 《어머니!》 하는 귀익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내가 그쪽을 바라보니 형님이 절뚝거리며 뛰여 오다가 세멘트포장길 위에 넘어지는 것이었다.

《형님!》

나는 당장 차에서 뛰여내릴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웨쳤다. 형님은 넘어진 채 손을 뻗치고 또다시 소리쳤다.

《어머니, 내 인차 집으로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애야, 이 예미가 기다린다. 집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다시 울리는 기적소리로 하여 동강이 났다. 기차가 덜컥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도 나의 망막에는 가을비속에 얹어져 절규하던 형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아마도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관화처럼 새겨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후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연안땅이 해방되어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형님은 여전히 집으로 오지 못했다. 또다시 군사분계선이 가로막혔던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이 집으로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얼마동안은 매 끼 형님의 밥을 떠놓곤 했다. 나역시 남조선에서 누군가가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릴 때면 행여나 하여 그 이름을 서둘러 찾아보기도 하고 해외에서 누가 조국을 방문했다고 하면 그 교포이름이 누구인가고 묻기도 했다. 죽지 않았으면 우리 형님은 어머니의 품을 찾아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분별의 세월이 흘러 60년의 년륜이 새겨지고 나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렸다. 기다리다가 지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어찌 나의 한 가정의 비극만이라, 우리

민족이 겪는 분별의 고통은 조국해방 60년 동안 어느 한 순간도 덜어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내 가슴속에 새겨진 밤별차의 기적소리도 피로움과 서글픔의 상징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적소리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고고성을 터치는 아기처럼 기쁨과 환희의 메아리로 울리고있지 않는가. 이제는 통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력사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북남의 철도가 이어지고 도로가 열리고 사람들이 래왕하며 분별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제경기장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하여 조선민족의영예를 떨치고 북남예술인들이 서로 오고가며 《아리랑》을 부르고 흠여졌던 가족들이 눈물속에 상봉하고있다.

비록 미제놈들이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하지만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려는 민족의 이 의지, 이 열망, 이 숙원은 막지 못할 것이다. 력사는 지켜보고있다. 누가 이 성스러운 통일 위업에 역행하려고 하는가 만약 그 누구든지 이 장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그는 천추만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제동을 푼 저 렬차는 기필코 앞으로 달릴 것이다. 그러면 60년 동안 막혔던 철길을 타고 민족의 가를수 없는 피와 정은 굵이쳐 흐르게 될 것이다.

나는 금방 떠나는 차에 오르듯 렬차에 올랐다. 오르니 마음은 자꾸만 앞선다. 어서 가자. 통일의 기적소리를 삼천리강산에 울리며 질풍같이 달리자. 서울로, 부산으로...

가사

못잊을 대동강

정성환

거울같은 강물위에 평양이 비끼였네
우리의 구슬땀이 강물위에 꽃피었네
성스러운 로동속에 내 정든 강이여
억세인 그 흐름과 유정한 물소리는
이 가슴에 영원한 노래로 울리네

건설의 설참에 널어말린 손수건의
싱그런 물냄새는 이 마음 적해주네
언제나 새 힘을 안겨주는 강이여

아름다운 네 모습에 마음도 밝아지니
우리 인생 너처럼 영원히 푸르리라

어머니조국의 력사를 새기는 강
내 인생의 길동무 나의 사랑아
나서자란 정으로는 잊을수 있어도
땀으로 맺은 정은 더욱더 땀수 없어
우리의 대동강은 떨어져 살수 없네

일제의 과거죄행을 끝까지 결산하며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공 동 구 호 에 서-

평론

력사의 교훈과 조국의 섬

-장편력사소설 《울릉도》를 두고-

김정철

어머니를 향하여 달려오는 아기처럼 동해의 푸른 물을 헤가르며 끝없이 끝없이 어머니대지의 품으로 달려만오는듯 한 조선의 섬-독도. 백두대산줄기에 그 뿌리를 둔 독도는 수천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동해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다.

독도, 그것은 곧 우리 조국의 한부분이다. 우리 조국의 한부분인 자그마한 한개의 섬도 애국으로 불타는 심장만이 지켜낼수 있다.

장편력사소설 《울릉도》(리성덕작)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실재한 역사적사실과 인물들의 예술적형상속에서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사건보다 성격에 근본적인 의의를 부여하는것은 문학의 발전과 인민대중의 미의식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안룡복이라는 실재한 인물이 2번씩이나 일본에 건너가 일본막부내를 뒤흔들어놓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임을 명백히 밝혀놓은것은 세상이 다 아는 역사적사실이다

장편력사소설 《울릉도》에서는 이런 역사적사실을 보여줌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평면적인 역사기록식이 아니라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인물들의 개성적이며 전형적인 성격들을 탐구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감으로써 역사적사실과 교훈을 예술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기본이야기는 울릉도문제를 두고 펼쳐진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가 200리 떨어져 조선동해의 한가운데 솟아있으며 예로부터 두 섬이 불가분리의 령토에 속하여있었던것으로 하여 울릉도에 대한 문제는 독도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것이다.

독도는 동도, 서도 등 수십개의 바위섬과 암초들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섬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 선조들의 뉘이 깃들어있다.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랑해온 조선의 섬이다.

조국땅의 한부분인 이 섬을 우리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서야 하며

그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사랑도 다 바쳐야 한다. 그럴때만이 지켜낼수 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섬이다.

이것이 바로 장편력사소설 《울릉도》의 주인공 안룡복을 비롯한 인물들의 투쟁에 대한 예술적형상이 안겨주는 역사의 교훈, 피의 교훈이다.

소설에서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 왜놈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을 안고있는 인물들의 개성적이며 전형적인 성격형상속에서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봉건국가의 관료도 아니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책임을 직접 맡은 사람도 아닌 일개 경상도 좌수영 수군의 한사람이 어떻게 단신으로 일본에 까지 건너가 일본막부를 전복케 하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지켜낼수 있었겠는가. 작품에서는 주인공 안룡복의 개성적이며 전형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해명하여주고있다.

작가는 주인공 안룡복의 성격적바탕에 놓여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구체적인 사실과 생활들로 보여주면서 그가 안고있는 성격의 핵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데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있다.

안룡복이 살고있는 부산 동래부의 초량마을에는 1678년부터 왜인들이 장사하며 거처하는 《신왜관》이라는것이 있었다. 여기에 든 왜인들은 봉건정부의 통치체제가 문란해짐에 따라 저들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자 제멋대로 나라안의 곳곳을 돌아치며 조선사람들을 속여 장사하고 략탈하면서 비밀을 내탐하기도 하였다. 어릴 때부터 이런것을 목격하게 된 안룡복은 왜놈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왜말을 배우면서 간특하고 간악한 왜놈들을 어떻게 눌러버릴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된다. 원래부터 총명하고 실천력이 강하며 립기응변의 기지를 가지고있던 안룡복은 점차 자라면서 제 또래 아이들을 휘동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왜인들을 혼살내주기도 한다. 이런 생활은 주인공 안룡복으로 하여금 왜놈에 대한 증오를 더 깊이 간

직하도록 하여주었다.

안릉복으로 하여금 왜놈들에 대한 증오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 굳게 하여준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울릉도에 오른 안릉복의 앞에는 왜놈들에 의해 당한 섬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 불타버린 집터에서 울고있는 어린 어순이, 무참히 학살된 어순이의 부모와 오빠의 시체, 불타버린 집들, 그런데 그 다음날 왜놈들은 성의 서쪽에 있는 주칠굴의 주토를 파가지 않는가. 룡복의 아버지는 한가마니의 주토를 파가지고 도망치는 마지막놈들마저 처죽이려고 따라가다가 그만 놈들의 칼에 맞아 숨지고만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룡복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말은 그로 하여금 이 나라 강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뇌리에 새기게 하여준다.

《 룡복아, 흔한 흩이라두... 오늘 한줌을 주면 래일은 한배를 주게 되고... 나중에는 섬을 통으로 먹히운다. 흩 한줌, 돌 한개라두... 안되지... 이 섬도 내 나라땅이 아니냐...》

룡복이가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은 그로 하여금 왜놈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성격적특질로 만들게 하였다. 왜놈들과 피맺힌 원수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주인공 안릉복의 형상, 이것은 역사적으로 왜놈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없는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대한 전형적인 형상이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주인공의 형상을 당대시대의 전형적인 인간형상으로 탐구하여 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무친 원한의 감정을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역사적사실의 본질과 의미를 예술적으로 해명해주고있다.

증오는 사랑을 더 굳게 한다.

왜놈이 미우면 미울수록 그놈들이 그토록 탐욕을 감추지 못해하는 우리 땅, 우리의 섬이 안릉복에게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왔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안릉복이 안고있는 이러한 성격의 본질을 왜놈들에게 붙잡혀간 어순이를 찾아떠나서 사랑보다 먼저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도 내대며 왜놈들과 혈투를 벌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형상은 곧 역사적사실에 대한 깊은 의미와 본질에 대한 예술적해명으로 되고있다.

1693년 3월 두척의 고기배에 수십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안릉복은 울릉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것은 어순이를 끌고간 왜놈들의 배가 여기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았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순이를 태운 배가 일본으로 이미 떠난 뒤였으며 섬으로는 자연부원을 도적질하러 왜놈들이 기여들고있었다.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섬으로 기여드는 놈들의 배에 불화살을 날리던 안릉복은 며칠후 또다시 달려드는 놈들과 담판을 한 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인정시키기 위해 놈들의 배에 올라 단신으로 일본땅으로 건너간다.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원쑤의 소굴로 파감히 맞받아나가는 우리의 주인공,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원쑤의 소굴로 찾아가 조선사람의 위용을 당당히 세우며 왜놈들을 꾸짖고 다불러대는 안릉복. 작품에서는 이런 주인공이 안고있는 지혜롭고 용감하며 기지있는 개성적인 인간성격속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력대적으로 조선의 섬이었음을 예술적으로 통쾌하게 확증시키고있다.

안릉복과 오끼시마 도주와의 대결장면 하나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안릉복의 개성적인 성격과 문제의 섬들에 대한 깊은 리해를 받게 된다.

울릉도를 저들의 섬인듯이 으시대는 오끼시마 도주에게 안릉복은 오히려 이 오끼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고 반문한다. 일본땅에 가까이 있고 일본사람들이 살고있기때문에 일본에 속한다고 하는 그놈의 대답에 안릉복은 통쾌하게 웃어대며 그렇다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서는 하루길이요 일본에서는 닷새길이며 천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섬으로서 조선사람들이 살아왔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조선땅이 아니겠는가라고 기지있는 분노로 그놈을 규탄한다. 이어 그는 조선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위엄과 기풍을 가지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임을 인정하도록 맹활동을 벌려나간다. 지어 조선사신의 명분으로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벌리는 안릉복의 기지있는 언변과 배짱있는 활약앞에서 오끼시마도주뿐 아니라 오끼주 태수도, 도꾸가와막부독목도 도적질해온 울릉도의 금불상과 함께 문제의 섬들이 조선의 섬임을 인정하는 국서를 보내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 룡복은 그토록 찾고찾던 사랑하는 어순이를 놈들의 손에 잃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라의 법을 위반했다는 죄안인 죄를 쓰고 귀양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결국 안릉복은 조국의 섬,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자기의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바쳐야만 하였다. 이것은 애국으로 불타는 사람만이 자기의 생명도 사랑도 기꺼이 바쳐 조국을 지켜내게 하며 그렇게 지켜야 하는것이 조국이고 우리의 한치의 땅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주인공 안릉복의 개성적이며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그러한 성격발현과정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감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문제에 대한 력사적사실의 깊은 의미와 리해를 안겨주고있으며 력사의 교훈, 피의 교훈을 예술적으로 감동깊이 새겨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주인공을 도와나서며 운명을 함께 하는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지켜온것은 인민대중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신의 부귀와 공명, 안락만을 추구하며 나라의 방위는 안중에 없이 무위도식을 일삼는 동래부사 리희룡이를 비롯한 봉건조정의 관리들과 임금, 동래의 부호이며 밀수상인인 박충량이와 같은 왜놈의 앞잡이노릇을 하는자들에 대한 형상과 함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안고있는 박어둔과 박어순, 순천송광사의 장사중인 퇴헌, 풍류방랑선비인 리생원, 동래부의 관청기생 진향 등의 형상들도 당대시대의 력사와 인간모습들이 안겨오도록 전형적이며 개성적으로 탐구되어 형상되었다.

특히 안룡복과 함께 일본땅에 주저없이 찾아들어가는 박어둔과 안룡복으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죽음으로써 이끌어주는 사랑하는 약혼녀 박어순의 형상들은 주인공이 안고있는 애국의 감정이 어떤것인가를 더 깊이 부각시켜주는 애정이 가는 인물들로 형상되어있다. 울릉도에 숨어살면서 안룡복을 도와나서는 쇠동이와 섬년의 형상도 이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나서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다음으로 작품에서는 왜놈들이야말로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려온 백년숙적의 원수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피의 혈투를 벌리는 주인공을 비롯한 우리 인민과 왜놈들의 대결을 중심에 놓고 작품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면서 간교하고 끈덕진 왜놈들의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력사의 교훈을 더욱 강하게 안겨주고있다.

무지막지한 칼부림과 략탈로써 피를 즐기는 요시라와 함께 조선의 섬에 대한 야욕에 미쳐 스스로 뚝지고야마는 찌시마도주 소요시미찌의 형상 그리고 조선인민이 지닌 애국의 녀앞에 벌벌 떨면서도 은근히 조선침략의 길로 부하들을 추겨대는 도꾸가와막부두목에 대한 형상 등은 왜놈들이야말로 력사적으로 조선침략의 칼을 버려온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반드시 피의 복수를 받아내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 굳세게 가다듬게 하여준다.

이처럼 장편력사소설 《울릉도》는 개성적이며 전형적인 인물들의 성격형상속에서 력사적사실을 본질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

오늘도 우리의 가장스러운 원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며 침략의 야망을 드러내고있다. 우리는 어느때든지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야 하며 우리의 섬-독도를 기어이 지켜내야 한다.

장편력사소설 《울릉도》는 이런 교훈과 의지를 더깊이 새겨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있다.

상식

《을사5 조약》

《을사5조약》은 1905년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날조한 불법 무효한 허위문서를 두고 말한다. 이를 두고 또한 《한일협상조약》이라고도 한다.

1905년 로일전쟁에서 로씨야를 이긴 일제침략자들은 지체없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권확립에 매달렸다. 놈들은 이른바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로일전쟁에 투입하였던 기본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왕궁을 2중 3중으로 포위하는 한편 도처에 군대를 풀어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억눌렀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일본 《천황》의 《특사》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약》안을 가지고 서울에 나타나 황제 고종과 정부대신들에게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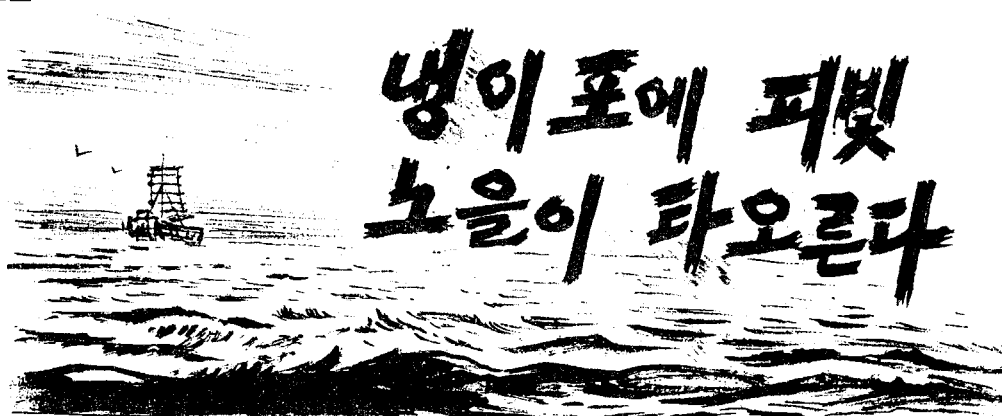
11월 17일 이등박문의 위협과 공갈, 회유에도 불구하고 고종과 많은 관리들이 《조약》을 반대하자 놈들은 강압과 협박의 방법으로 《한일협상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공포한 이른바 《을사5조약》의 내용은 5가지로 되어있는바 이는 모두 침략적이고 기만적인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을사5조약》은 조선봉건왕조

정부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나라의 모든 실권을 강탈당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에 《을사5조약》이 일방적으로 공포되었으나 그것은 나라의 최고주권자(황제 고종)의 승인, 수표, 국새날인을 받지 못한 비법무효한 협잡문서였다. 당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세계면전에 선포하였고 반일의병운동을 벌릴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내리었다.

우리 인민들은 그후 《을사5조약》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었다.



한원희

1

중낮이 가까와 올수록 피악벌이 불비를 퍼붓듯 하였다. 산과 들 그 어디나 초목이 더위에 시들고 논밭의 곡식도 사정없이 말라 죽어갔다.

냉이포성밖으로 느슨히 비탈진 밭에는 일여덟 방수패 군정들이 헉헉- 숨을 몰아 쉬면서 부지런히 보리를 베어 나갔다. 이맘때쯤이면 보리장마가 구질거리 백성들을 괴롭혔건만 이해에는 오히려 가물이 들어 사람들을 더욱 괴롭힌다. 그루마다 갓난아기 손가락같은 보리이삭이 내밀다말고 그나마 빈죽정이가 태반이다. 보리밭에 불을 질러 놓아도 아까울것이 없다. 그러나 군정들에겐 낱알 한알한알이 소중하였다. 그래서 이처럼 둔전농사를 제집터밭처럼 힘을 다해 짓는다. (둔전이란 지방군사들이 자체로 농사지어 군량을 마련하는 땅이다.) 농사를 망치면 그만큼 배가 고프고 또 그만큼 여기 냉이포앞바다를 지켜내기 어렵다.

냉이(제포)는 왜인들이 거류하는 삼포(제포, 부산포, 염포)중에서도 제일 많이 거류하는 곳이다. 왜인들은 갖가지 구실을 붙여서 무슨 사신배요, 장사배요, 고기잡이배요 하면서 음식그릇에 파리끓듯 달려들었다. 그중에는 증빙문서가 없는 왜선들을 단속하여 돌려보내면 불평을 토해놓고 돌아가는듯 하다가 우리 연해를 싸다니면서 민가에 침노하여 로략질을 하고 방화, 살인, 강간을 일삼았다. 김을지의 집도 그렇게 불타버렸고 어머니도 그렇게 목숨을 잃었었다.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성을 쌓고 방비하도록 하면서 경상도 관찰사, 수군절도사, 병마절도사 동래와 진해부사에게 명하여 왜인들을 엄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내려 보냈었다.

그래서 김을지네와 같은 방수(왜인들을 담당한 기찰대)들을 더 많이 늘이되 여기에 주먹이 드센 군정들을 골라넣도록 하였다.

그래야 까부는 왜놈들을 다룰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을지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무술에서도 그를 당할자 없고 글도 알고 말과 행동에도 리치가 뚜렷하여 만호까지도 그를 중히 여겨 방수패장을 삼았다.

해풍에 구슬린 구리빛 얼굴에 독수리 날개같은 눈썹, 그아래 시원스럽게 크고 부리부리한 눈, 우뚝한 코와 무직히 다물린 입, 어디를 보나 대장부다웠다. 아무리 불량한 왜인이라도 그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갑작거리었다.

김을지는 군정들에게 《좀 쉬고 하세.》 하고 제먼저 땀을 씻으며 발머리로 나갔다.

《벌써 그랬을걸... 한중간이라면 이보다 더 하겠나. 이놈의 날이 사람들을 다 삶아놓으려드는구나.》

《날씨심보가 왜인들의 심보 한가지로다!》

이때껏 말없이 일만 하던 군정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김을지를 따라 나와 여기저기 소나무 그늘을 찾아 앉았다.

김을지는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과 담벽같은 가슴팍으로 즐기저흐르는 땀을 베수건으로 연방 씻어내면서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활 두어바탕 거리를 두고 시원하게 펼쳐져있다. 울울창창한 숲을 떠이고있는 산줄기가 바다를 안고 돌아가며 만을 이루어 놓고서 먼 바다의 풍랑을 막아주고있다.

저멀리 갈매기들이 날아에는 수평선우에 흰돛배들이 두둥실 떠가고 가까이로는 돛을 내린 배들이 한가로이 쉬고있는것이 한폭의 그림처럼 정겹게 안겨온다. 그러나 그 그림의 가장자리에 시꺼먼 먹칠을 한듯이 보여오는 계딱지같은 왜인들

의 움막집들이 오구구 붙어있어 기분이 언짢아진다.

《저기 왜놈의 배가 또 하나 들어오나베.》

어느 군정이 가리키는 곳을 모두 땀흐르는 목을 빼들고 바라보았다. 그 왜선이 사신배인지 장사배인지 아직은 멀어서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 놈들의 배는 어떤 배이든지 하나처럼 간악한 왜놈들이 타고있는것이다.

한낮이 가까와올수록 대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나무숲속에서 구성지게 울던 산비둘기와 뻐꾸기도 더위에 노그라졌는지 울음을 그쳤다. 하지만 김을지는 포구로 들어오는 왜선을 보게 된 때부터 이상하게도 더운줄 몰랐다. 왜인들에 대한 서리발같은 저주와 분노가 가슴속에 얼음장처럼 덧쌓이기때문인지 몰랐다.

2

왜선이 포구에 닿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호의 전갈이 나왔다. 빨리 부두가에 나오라는것이었다. 그들은 지금껏 땀흘려 일하던 사람들 같지 않게 푸른 전복에 산수털병거지를 바로 썼다.

김을지는 긴칼을 옆구리에 차고 부하 방수들은 긴창을 들었다. 하나처럼 그 모양이 림름하였다.

그들이 냉이포성문앞을 지나는데 웬 샷샷중 하나가 길을 비켜주며 읊하고 서서 군정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김을지는 그 중이 어텐가 낮익어 보였지만 알아볼 사이가 없었다.

잠시후 그들은 부두가에 도착하여 일자배기대를 지었다. 마침 냉이포 만호 김성걸이 색동다리 관복과 전립을 갖추고 말우에 뚜렛이 앉아왔다. 변방장수의 기풍이 주르르 흐르고 거동이 엄엄하였다.

《다들 만단준비가 되었느냐?》

《네.》

김을지가 한발 나서면서 량수거지를 하였다.

《금일에 우리 나라에 온 배는 일본국 송상국의 사신배라고 한다. 사신은 저의 나라 다복사의 주지로서 이름은 정수라고 부른다 하고 여기에는 목적은 우리나라 선대임금인 세조대왕의 화상을 선원전(력대임금과왕후의 화상을 둔 곳)에 모시려 함이니라. 우리 나라 임금을 사모하고 받드는 이웃나라의 충정이 가상하노라. 이는 우리 임금을 높이는 뜻이니 너희들은 그들을 레의로 대하며 몸가짐을 조심히 해야 하느니라. 하오나 기찰을 소홀히 하라 함은 아니로다. 사신의 증빙문서에는 사신일행의 인원수와 가지고 온 기물목록이 적혀있고 배의 크기가 써여있으니 패장은 그것이 틀림없는가를 맞추어 보도록 할지이다.》

만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직이 말하였으

나 그 마디마디에는 엄정함이 굳건하였다. 그는 왜인들의 증빙문서를 김을지에게 넘겨주고 사신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었다.

김을지는 너무나 놀랍고 경이스러워서 바람만 난 바다처럼 가슴이 들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 우리선대임금의 화상을! ... 참으로 나라의 경사가 아닌가. 그는 밀물처럼 그득히 넘쳐오르는 감격을 안고 만호를 따라 왜인사신배에 올랐다.

앞고승이가 넓직한 배의 상갑판우엔 사신이라는 주지 정수가 두손을 합장하고 냉이포 만호 김성결과 김을지를 맞이하였다. 삭발한 머리는 푸르스름해보였고 두눈섭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고 그아래 반쯤 내려감은 눈은 큰지 작은지 눈꺼풀이 쳐져내려 알수 없었다.

《나무아미타불... 소승은 일본국 사신의 중임을 맡아 안은 백주의 다복사 주지 정수이옵나이다.

조선을 따르는 마음 한결같아 이름도 조선식으로 고쳤나이다.

조선의 선대임금 세조대왕의 화상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온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바이옵니다.》

김성결은 정수앞에 마주 읊해보이면서 레를 갖추었다.

《소신은 냉이포 만호 김성결이옵니다. 귀족의 증빙문서를 보아 알겠거니와 이렇게 풍랑을 헤쳐온 성의에 감복을 금치 못하리로소이다. 일본이 우리 나라 선대임금을 사모하는 충정에 우리는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부디 청컨대 먼저 우리 임금의 화상을 뵈옵게 하여 주기를 바라나이다.》

김을지는 진심으로 목이 껍껍 메이는 만호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더워오는 눈시울을 습벽이었다. 왜인들이라면 다 악착스런 족속으로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냐. 왜인들이라 해도 우리 임금을 높이 받드는 사람도 있구나. 그는 임금의 화상을 어서 뵈고싶었다.

사신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두루마기 같은 재빛장삼에 주홍빛 가사를 입은 그는 생불과도 같았다.

서느러운 해풍이 불어와 그의 장삼자락을 가벼이 스치고 배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듯이 파도에 조용히 흥떡이었다.

《자기 나라 임금의 화상을 한시바빠 뵈옵고저하는 그 심중을 소승인들 어이 모르리오. 하오나 기울거리는 배상에서 어찌 상감마마를 모실수 있으리오.》

정수는 반쯤 감고있던 눈을 치떴다가 스르르 감아버리었다. 김을지는 그 눈이 사납게 밟짝이는것을 보았다. 임금을 임금답게 모실수 없는 장소에 모시려는 만호를 질책하는것인가. 그렇다면 그 눈길은 너무나 웅당하다. 나는 왜 그것을 미

처 생각지 못했는가. 그것은 아직 충의가 모자라는것임을 말해준다. 그는 이렇게 자책해보았으나 아무래도 그 눈빛이 꺼림직히 여겨졌다. 어데선가 오래전에 그 흉악스런 눈빛을 본것 같았다.

《주지님의 말이 참으로 가당하오이다.》 하고 만호 김성결이 매우 송구해마지 않았다.

《그러면 물에 올라 뱃속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선대임금의 화상을 받들고 오게 된 사연을 우리가 알도록 하옵시오.》

정수는 그제야 안심하듯 두손을 모아 다시 합장하면서 등근 머리를 수그렸다.

《소승이 경극전의 사신으로 왔을 때에 세조대왕이 저를 불러 만나보고 <네가 본국에 돌아가서 불상만드는 장공인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소승이 장공인 세사람을 구하여 주방국까지 왔는데 세조대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때의 슬픔이 되살아오르는듯 갑작스럽게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장삼소매로 눌러씻은 다음 말을 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고 땅이 꺼지는것 같아서 어떻게 오던 길을 되돌아섰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꿈에 세조대왕이 불현듯 나타나 <네가 나의 화상을 만들어가면 나위 손자인 지금의 임금이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베풀것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소승이 대왕의 지시를 받들어 3년을 두고 일심전력 공들여 화상을 만들어가지고 왔더니 전에 있던 변방장수가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았나이다. 그때 소승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자고 화상을 만들었느냐. 본국에 돌아가서 모시고 아침, 저녁 뵈우리라.> 하였습니다.

그후에 화상을 박다의 성복사에 모시였더니 절의 주지가 말하기를 <대왕의 화상은 때때로 반디불같은 빛을 뿜는다. 빨리 조선국에 옮겨모시라.> 하였습니다. 만약 임금의 화상을 영접하여 서울에 모시게 된다면 나의 성심은 조금이나마 표시할수 있을것이옵니다.》

정수의 이같은 이야기에 뒤에 서있던 왜인 부사신과 종사관들도 그 말이 다 옳음을 립증하듯이 함께 고개를 깊숙이 숙이었다.

《우리 나라 선대임금은 살아계실 때나 승하하신 때에나 신기한 덕을 베푸시니 어이 대궐의 선원전에 모시지 않으리까. 어서 물으로 올라 화상을 뒹게 하여 나로 하여금 상감께 삼가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하옵시오.》

만호 김성결은 고마운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수 없어 정수의 손을 덥석 잡아 흔들었다. 진정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나.

지금껏 오고간 일본사신들은 우리 나라에 토산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조공한것보다 몇백배나 더

많은것을 뜯어갔었다.

일본국왕이 직접 보내오는 사신도 많았고 일본의 각지, 각주의 태수들이 너도나도 사람과 배를 보내어왔었다.

수많은 일본봉건령주들이 우리 나라 임금을 황제폐하라고 부르면서 일본국의 문물은 조선에 군원을 두고있다, 그래서 폐하의 장수를 빌고있다, 일본에서는 사방에서 병란이 일어나 농사를 버린 까닭에 먹을것과 옷감이 귀하게 되었다, 군사들이 얼어죽게 되었으니 쌀, 무명, 비단을 보내주면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고 손을 내밀었었다. 또 어떤 때는 병화를 입어 절간들이 모두 불타다, 폐하의 어진 덕을 믿는바이니 절간을 지을 비용을 보내달라, 비용이 4만냥이나 든다, 주로 동전, 명주, 무명을 요구하는바 쓸데는 많다, 불경을 찍어달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고 려치를 가리지 않았다.

허나 오늘은 무엇을 바라는것은 없고 우리 나라 선대임금을 지극히 존대하는 충의뿐이다. 그 려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도 짐승은 아니고 사람인지라 때늦게나마 우리 임금의 덕을 알고 공경하고 교화되어야 할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힘이 솟듯이 은혜를 입으면 보답할 의리도 저도 모르게 생기는 법이다. 어찌 착한 왜인이 만에 하나야 없겠는가. 김성결은 이같은 생각이 젖어든 눈길로 뒤에 서있는 김을지를 돌아보았다.

3

만호군영의 대장마루에 임금이 타고다니는 련을 본따서 만든 《련》이 놓여있었다. 그 모양은 흡사 작은 집같이 생겼다. 여기에 임금의 화상이 《앉아》 있는것이다.

왜인사신 정수는 이 《련》앞에 한줄기 파아란 연기가 곧추 피어오르는 향불그릇을 두손으로 삼가 받들어 내려놓고 무슨 주문같은것을 입속으로 외웠다.

그뒤로 몇걸음 떨어져 만호 김성결과 김을지가 나와 부복하였다. 임금의 화상을 뵈기 위해서였다.

이윽고 왜인악공들이 장중하고도 부드러운 우리 나라 아악을 연주하였다. 우리 임금이 대궐에 들고날 때 리용하는 음률이였다.

정수는 《련》의 문을 소리없이 열었다. 그러자 세조대왕의 화상이 꿈같이 나타났다. 아아- 저분이 세조대왕이신가. 존안에 황황 타는듯 한 눈, 마치 두개의 해가 나란히 빛나는것 같다. 오색구슬이 꿰여있는 아홉개의 술이 좌우에 달린 면류관을 쓰고 어깨에 룡의 무늬가 그려진 푸른색

의 웃웃과 《쌀》, 《불》을 수놓은 붉은색의 아래웃으로 된 곤룡포를 떨치고 통상에 앉아있는 모습이야말로 금시 천하를 호령할것 같았다.

김을지는 한생에 임금을 처음 뵈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악곡의 높낮은 가락과 더불어 온몸을 휩싸안는것 같아서 가슴을 설레이었다. 하기는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자기 임금을 한번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던가.

옆에 부복을 하고있던 만호 김성걸이 황망히 몸을 일으켜 네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절을 드렸다. 그때마다 《황공무지로소이다.》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왜인악공 누구인지 《키득-》하고 웃음을 겨우 참아내는것 같은 소리가 가만히 들려왔다. 이 무슨 일인가. 김을지는 열결에 정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정수는 날카로운 눈길로 어느 한 악공을 번개처럼 쏘아보고는 언제 그랬나싶게 거적논꺼풀을 스프르 덮어버렸다.

김을지는 가슴이 선득하였다. 벌써 두번째로 보는 섬찍한 눈빛이었다. 저런 표독스러운 눈빛을 내 어디서 보았던가. 문득 섬광처럼 병곳 떠오르는 기억의 불빛속에서 어느 한 검은 샷갓중이 보여왔다.

어느해 김을지는 파발의 중임을 말아안고 감영을 향해 질풍처럼 말을 몰아갔다. 그때에도 냉이포에 왜인사신이 왔기때문이었다. 파발이 늦어지면 그만큼 왜관에 머물러 기다리는 왜인들에게 량식을 대주어야 하는 등 여간만 역겨운 꼴을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백리길을 쉬지 않고 달려서 락주고을의 역참에 닿았을 때에는 사람과 말이 다 땀에 흠뻑 젖었다.

낮가락같은 상현달이 락주성우에 걸려있었다.

사람도 말도 무엇이든지 먹고 쉬어야 했다.

《주인님 계십니까, 냉이포 김을지읍시다.》

그는 말을 끌어다가 마구간에 들여세우면서 허물없이 말하였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여물칸에서 역참아전이 반갑게 나왔다.

《냉이로 김을지라고?! 어서 오게. 또 파발인가? 어이구, 이것참 야단났군.》

《야단은 무슨 야단이우? 있는 밥 주구 있는 말 주면 될걸 가지고...》

이미 파발을 몇번 다녀본터이라 아전과 친숙해진 김을지는 제 집 프락에 들어선것처럼 말과 행동이 자유스러웠다.

《암, 밥이야-어려할라구. ...헌데 갈아탈 마필이 다 나가서 난사가 아닌가.》

《다 나가다니 그건 또 웬소리유? 저기 있는 말

은 무엇에 쓰는거요?》

그중에서 파발은 공무중에서도 제일 중한 공무여서 선참으로 말을 주게 되어있다.

《흥, 그참... 그 마필은 벌써 말아놓은 주인이 있네. 래일 아침에 떠날 차부인가부네.》

《래일 아침? 난 이밤으루 떠나야 하니깐 이러구 저러구 할것없수. 내 밥먹을 짬도 없수. 자, 어서 그 말을 내주우.》

김을지는 무작정 마구간으로 발걸음을 옮겨갔다. 아전은 참으로 난처한 꼴에 들었다. 파발군에게 역마를 내주지 않아서 후탈이 생기면 국법죄인으로 되기 쉽다. 그러나 김을지에게 내줄 역마가 당장 없다. 말들이 비루먹고 병이 나서 더러는 죽어버리고 더러는 폐마가 되어 뒤마당에 매여있다. 두마리는 나갔다가 상기도 들어오지 않고 요행 한마리가 남아있었는데 웬 샷갓중에게 어쩔수 없이 내놓게 되었었다.

《여보게 이 사람, 오늘은 여기서 자구 래일 아침에 떠나라구. 밤에는 파발이 위험하기두 하구 또 하루밤 쉬느라면 임자가 타고온 말두 기운이 생길테니... 사실은 어떤 중이 말을...》

김을지는 역참아전이 말끝을 맺기도전에 두눈을 똑 부릅떴다.

《뭐요?! 중이? 그래 중이란 놈이 역마를?》

중은 원래 역마를 리용할수 없다. 중은 사민에 속하지 않는 기생층부류에 속한다. 사민이란 농부, 장공인, 상인, 선비로서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세상의 근본이다. 그때문에 나라에서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해온다. 허지만 세조때 와서는 불교가 성행하여 중들이 늘어나고 백성들이 지어놓은 난알을 공짜로 먹어치우면서 못하는것이 없게 되었다.

《쉬- 듣겠네. 스님이 객밤에 등불을 밝히고있네.》

《그렇다고 어쨌단 말ियो? 보아하니 그 중놈한테 꼼짝 못하는구려.》

《아니 이 사람, 중놈, 중놈하지 말게. 그 스님은 레사 스님이 아닐세. 무슨 조화통인지 신선한가지라니깐. 판관백지에 흰글을 나타내기두 하구. 그게 아마 도술일테지. 난 말을 내놔네구려.》

역참아전은 자기가 본것을 자초지종 다 얘기하고나서 《자네도 당해보면 정신이 나갈테니 두고보게.》하고 뒤를 달았다.

김을지는 말고삐를 풀어쥐고 절절 웃고말았다.

《그간놈이 무슨 지랄을 다 부려두 내 갈 길은 가야겠으니 그리알구 탄말 마우.》

그는 당장 떠날 차비로 말을 끌어냈다. 역참아전이 얼른 그의 웃자락을 잡고 매달리었다.

《임자성미를 내 아네만 가더래두 그 스님에게 량해를 얻고 떠나게. 그렇지 않으면 나나 자네한

레두 재앙이 들지 누가 알겠나.》

《재앙은 무슨 빌어먹을 재앙이우. 그래 그 잘난 스님이 어디 있수?》

《날 따라오게.》

김을지는 역참아전이 이끄는대로 객방으로 갔다. 과연 방등아래 검은 장삼을 입고 검은 삿갓을 쓴 중이 두억시니처럼 앉아있었다. 중이 마주하고있는 조각상우엔 물이 담긴 접시와 흰종이가 보였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승은 경기도 X X사의 중 신옥이옵니다. 무슨 일로 소승을 보자 함이니까?》

중은 눈두덩이까지 내려쓴 삿갓머리를 수그리면서 두손을 합장하였다.

김을지는 대관절 어떻게 생겨먹은 중놈인지 보려고 삿갓밑을 더듬었다.

《난 냉이포 수군 김을지이우. 나는 이 밤중으로 가야 하우. 내가 역마를 타야겠으니 그리 하우.》

중 신옥은 삿갓을 들어올리고 눈을 치며 상대를 한번 보고 다시 삿갓을 내리웠다. 중의 눈빛은 등골이 오싹하도록 차갑고 음흉스러웠다. 김을지는 그러나 말거나 문박을 나서려 하였다. 역참아전은 큰일이나 난것처럼 그를 붙잡았다.

《아니 이 사람아, 스님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 야지.》

김을지는 문지방을 넘으려던 발을 멈추고 《할 말이 무엇이요?》 하고 통명스럽게 물었다.

《파발군은 소승이 타려는 마필을 빼앗지 마시소. 이제 보면 알수 있으리다.》

신옥은 조각상의 흰 참지를 두손으로 받쳐들고 물이 담긴 접시앞에 삿갓을 숙이고 저만이 알아들을수 있는 입속말로 중얼대더니 흰 참지를 슬며시 적시였다. 그다음 참지를 꺼내서 다른 빈 접시에 펴놓고 그것을 내밀어보인다. 접시우에 놓인 참지에 뜻밖에도 아래와 같은 글자들이 살아올랐다.

《석가여래는 말하노니 검은 삿갓중의 앞길을 막지 말라.》

김을지는 한순간 얼흔이 나간듯이 접시를 든 두손을 어찌할줄 몰랐다. 이야말로 신선이나 일으킬 도술인가부다. 귀신도 경에 막힌다고 그는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김을지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내 이 무슨 꼬락서니인가. 나라의 급보를 몸에 지닌 파발이 가는 길에 기피한 일을 당한다 해서 발목을 붙잡히다니 이 어이 나라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이 민망스러워졌다. 얼굴이 벌개지도록 몸을 달구는 수치감을 털어버리듯이 그는 검은 삿갓중을 향해 거칠게 말하였다.

《역마를 파발로 쓰는것은 누구도 이래라저래라 못하우. 검은 삿갓중이든 흰 삿갓중이든.》

김을지는 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밤으로 말을 몰아갔다. 그러나 그 중놈의 이상스런 행동거지와 사나운 눈빛은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리면서 수백리길을 끝까지 따라왔다.

...

만호군영의 대청마루에 올리던 아악이 멎고 임금의 화상이 《앉아》있는 《련》의 문도 닫았다. 임금의 화상을 뵈옵는 의식이 끝난것이다.

그러나 김을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임금을 뵈온 감격이 점차로 식어갔다. 왜그런지 일본사신 정수의 눈빛과 몇해전의 검은 삿갓중의 사나운 눈길이 베틀에 복나들듯이 엇갈리는것만 같아서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불안하였다.

4

밤은 깊어갔다. 왜관은 피피한 정적에 싸여있었다. 사신방에는 사신 정수, 부사신, 종사관이 콧코이 앉아 덩불을 외웠다. 바다를 건너온 피로가 쌓이고 찌물쿠는 더위가 온몸을 땀으로 매닥질해놓았지만 장삼을 벗지 않았다. 밖에서 조선사람들이 보아도 사신일행의 체모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불가에 몸을 둔 불교승의 청렴고결한 뜻을 보여주자는데 있었다. 그래야 화상을 가지고 온 비밀한 목적이 구령이 담념듯이 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오늘 낮 화상을 보여주는 의식은 변방장수를 속여넘기는데 충분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요시무라악공이 창줄간에 웃어버렸다. 다행히도 그 소리가 모기소리같아서 조선측이 그 무엇을 눈치챈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만 요시무라를 따져보아야 했다. 그가 세조의 화상이 가짜라는것을 알고 가짜 화상앞에 꼬박꼬박 절하는 변방장수가 우스워 그랬는가. 요시무라가 진짜 비밀을 알고있다면 그를 죽여없애야 하였다. 또 모르고 철없이 웃었다 해도 용서할수 없었다. 그들 셋만이 아는 비밀을 다른 그 누가 알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

숨막히도록 무덥던 날은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비바람을 몰아오고 소낙비를 쏟아부었다.

왜관의 네 기둥에 걸여놓은 초롱불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울밖의 수양버들이 미친 아낙네의 머리칼처럼 흔들리면서 태질하였다.

그러나 청수와 부사신, 종사관은 깎아세운 망두석처럼 말이 없었다. 다만 이 세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초롱불에 커지기도 하고 난쟁이처럼 작아지기도 하면서 거물거리였다. 마치 심술바르지 못한 그들의 흉심이 그림자로 나타나서 도

깨비춤을 추는것 같았다.

《종사관은 악공 요시무라를 데려오시오.》

하고 정수는 처음으로 늙은 몸을 움직이듯 마듯하였다. 머리를 삭발하여 유별나게 커보이는 두귀는 오가는 실바람소리조차 가려들으려는것처럼 주라주둥이마냥 넓게 퍼져있었다.

이윽하여 요시무라는 세사람앞에 무릎을 꿇었다. 방바닥에 내짚은 두손이 후들후들 떨린다.

《요시무라는 어인 일로 웃었소? 조선의 변방장수가 화상앞에 절할 때 무엇이 우스웠소?》

정수의 목소리는 점잖고도 부드러웠다.

《네, 엉덩이를 하늘에 대고 엎드리는것이 마치 오늘날 개구리갈길래 참지 못하였나이다.》

요시무라는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였다. 만약에 순수 가짜 화상앞에 속아서 절하는것이 우스웠다고 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것이다. 왜인들이 대개 어렸을 때부터 간특하듯이 요시무라도 거기서 례외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에 오기전에 벌써 화상이 가짜임을 우연한 기회에 알았고 그들이 화상을 앞세우고 조선에 가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였었다.그러나 그것을 입밖에 내서는 안된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임금을 높이 섬기는 조선사람의 총의를 악리용하여 세조대왕의 화상을 가지고와서 벌리는 이런 놀음이 요시무라에겐 더할나위없이 재미있는 일이었다. 이제 두고 보자, 그러면 조선이 여물없이 큰 상을 내리지 않나. 그러면 나에게도 섭섭치 않는 재물이 차례지리라. 내 앞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런 신통한 수를 써서 향락을 누릴수 있게 하리라. 눈치가 역으면 절간에 가서라도 젓갈을 얻어먹는다더니 그 말이 옳긴옳구나. 이런 생각, 이런 기쁨이 배속에 가득 차올라 그만 웃음으로 새어나갔었다. 그것을 제때에 삼켜버리기는 했었지만 이미 입밖을 빠져나간 소리는 날아간 새처럼 다시 붙잡을수 없었다. 이젠 영악없이 죽을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에 들면 살 수도 든다는데 나에겐 그것이 왜 없겠는가. 요시무라의 속궁리는 살아나갈 구멍을 찾아 돌아치는 쥐처럼 머리속을 분주히 헤매였다.

《요시무라의 대답에 거짓이 없음을 알수 있소. 그러나 나라와 나라간에 행하는 거대한 의식을 하찮게 여기는 죄는 죽음으로 씻어야 하오.》

정수는 품속에서 짧고도 예리한 단도를 꺼내어 요시무라앞에 내주었다. 자결하라는것이다.

요시무라는 정작 칼을 보니 흠칫 놀라 쩡충 뒤로 물러나 앉았다.

《한번 웃은 실수로 죽는것이 원통하오이다. 길가의 개미도 죽일까봐 밟지 않는 스님이 사람을 어찌 죽이려 하나이까. 살생은 불가의 뜻이 아니오이다.》

《그 말은 옳으나 제 손으로 제 목숨을 끊는것은 불가의 교리와 상관이 없는즉 자기의 죄를 씻고 극락세계로 떠나시오. 나무아미타불...》

정수와 부사신, 종사관은 다 함께 합장하고 념불을 외웠다. 요시무라가 죽기를 기다리는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인들 아까우리까...》 하고 요시무라는 칼을 높이 들어 이를 악물면서 제 배를 폭 찢어박고 《옥-으윽.》 우비였다. 피가 내배어나오는것이 보였다. 그는 단말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듯이 이리굴고 저리굴러 마침내 토방아래로 쿵- 떨어져내렸다. 역수로 내리는 비줄기는 그의 꼬부린 몸뚱이를 사정없이 채찍질하였다. 하늘을 가르는듯 한 번개가 번쩍이고 세상을 들부시는것 같은 퇴성이 터졌다. 그때까지도 념불을 외우고있던 정수는 스르르 눈을 뜨면서 좌우를 돌아보았다.

《부사신과 종사관은 다그쳐 시신을 거둘것이며 누구도 모르게 행하시오.》

《예, 비몰이 요시무라의 피를 깨끗이 씻어간뒤라야 흔적을 남기지 않을것이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그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사신이 빙그레 웃으며 얼굴을 자신있게 들어 올렸다가 숙이였다.

《아니요, 서둘러야 하리다.》

부사신과 종사관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밖은 캄캄하였다. 잠시후에 나갔던 두 사람이 황황히 다시 들어왔다. 그들의 몸에서 비몰이 줄줄 흘러내렸다.

《큰일났소이다. 요시무라는 종적이 없나이다.》

《그놈이 살아 도망한줄 아오이다.》

정수는 화닥닥 솟구쳐 일어났다.

《그렇다면 급히 뒤쫓아야 하리다.·· 아니, 그만 두시오. 이는 바다속에 놓쳐버린 고기새끼와 같소이다. 제나라, 제땅이면 몰라도 남의 나라 땅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수 있소이다. 그놈이 도망쳐도 우리의 비밀을 모르는것이니 별탈이 없겠소이다. 조선측의 기찰을 당한다 해도 근심할것이 없지요. 세조대왕의 화상앞에서 무엄하게 놀아난 요시무라를 용서할수 없어서 자결하라고 했다면 썰먹고 알먹는 격이올시다. 우리가 얼마나 조선임금을 중히 받드는가를 보여주기때문이라 할가...》

정수가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 요시무라는 비발을 뚫고 어둠속으로 출행랑을 놓고있었다.

그는 그때 칼날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제배를 찢르는 시늉을 했었다. 칼끝으로 배가죽을 핏퀴여놓고 피를 보이게 하였을뿐이었다. 이렇게 서로 속이고 서로 속는것이 왜인들의 기질이였다.

지난 밤에 내리던 비는 새벽녘에 멎고 바다는 아침노을에 붉게 물들었다.

만호군영에 불리워온 김을지는 거울진 몸을 대청섬돌앞에 우뚝 세우고 담벽같은 가슴을 들먹이고 있었다.

어제 저녁에 냉이포에 내려온 진해부사는 대청마루에 나와서서 김을지를 오래동안 굽어보았다.

《왜인들을 기찰하는 방수패장이 파발로 떠나면 안될 일이지만 일본사신이 임금의 화상을 모시고 온것만큼 일이 매우 중한고로 너를 끌라보내자 함이니 먼길에 수고가 많으렸다.》

진해부사는 새벽부터 불그스레 위기가 오른 얼굴로 이같이 말하고 옆에 있는 만호를 돌아보았다. 만호 김성걸은 부사의 말을 수궁하여 빙그레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들은 탑전에 올리는 공문을 지성을 모아 초를 잡고 밤을 새워 꾸며놓고서 만족스레 주안상 앞에 마주앉았던 모양이다. 선대임금의 화상을 가져온 일본사신의 소식을 올려보내는 이 기쁜 날 어찌 술 한잔 없으랴 하고...

《용모가 장수같으니 믿음이 가는지라 그대는 오늘 해떨어지기전에 감영에 실수없이 달아야 하니라.》

부사는 이같은 말로 김을지를 고무하고 방울을 세개씩이나 단 가족부대를 내주었다. 거기에 공문이 들어있는것이다.

가족부대에 방울을 하나 달면 보통급보이고 두개 달면 그보다 더 급한것이고 세개를 달면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는 급보중의 급보이다. 만약에 어떤자가 그것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리운다. 파발군이 그것을 도적당하거나 잃어버리면 그 역시 중죄를 면치 못한다.

김을지는 이 가족부대를 몸에 품고 떠날것이나 아무래도 여기 일이 마음에 걸리었다. 왜인사신의 사납고 음흉스런 눈빛과 어데선가 본것같은 그 얼굴, 왜인악공이 자기도 모르게 내보인 웃음소리, 피이한 점이 많아보였다. 그는 자신이 여기 남아서 방수패 군사들을 신칙해가며 왜인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여보았으면 더 좋을것 같았다. 그러나 고을부사와 만호의 령을 어길수는 없었다.

김을지는 그달음으로 감영을 향해 말을 달렸다. 바람이 그의 귀바퀴에 매달려 뽁뽁 소리쳐 울고 무명필을 늘어놓은것 같은 행길이 쏜살같이 달려와 말다리사이로 흘러들었다가 또 그렇게 뒤로 뒤로 빠져나갔다. 그는 한낫때에 벌써 수백리를 달려서 락주역참에 다달았다.

《아니, 이게 누군가?! 엉?! 분명 김을지가 옳긴

옳은가?》

역참아전은 어리벉벉한 눈길로 멍하니 바라본다.

《형님두 참... 내가 아니구 누구겠수. 일이 막중하우. 어서 역마를 내주우.》

《그건 걱정말래두. 현대 임자 죽었다더니... 어이구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응, 이 사람아...》

역참아전은 무등 반가워서 이발이 다 빠진 입을 드러내며 웃는다. 그는 이 몇해사이에 폭삭 늙어버렸다.

《죽기는 왜 죽겠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헛참...》

《그 스님이 임자가 죽었다고 하길래... 또 이 몇해째 임자가 파발을 안하길래 정말루 믿구...》

《아니 그 삿갓중놈이? 허 이런 우스운놈 봤나. 그래 그놈이 내가 왜 죽었다고 하던가요?》

《임자가 흰 종이에 나타난 글을 보고도 말을 빼앗아 탔으니 천지신명을 노엽히구 재앙이 들어서 아무날 아무시에 벼락을 맞았다구...》

역참아전은 그 말을 듣던 때가 떠올랐던지 무섭증이 살아올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바루 엇그제두 그같이 말하고 말을 내라구 해서 내주었구마. 동양은 안쥐두 쪽박은 깨지 말했다지 않나.》

《그건 또 웬소리우? 그놈이 동양증이 아니라 나라의 파발말을 빼앗는 놈이 아니우. 현대 그놈이 지금 어디로 갔수? 또 여길 몇번이나 오갔수?》

김을지는 눈을 푹 부릅뜨고 옆구리에 찬 칼을 짹 그러쥐었다.

《그 스님이 여러번 왔다가 가군 했지. 근간에도 여기서 며칠밤 묵었드랬네. 무슨 절간을 지을 자리를 잡는다고 저 락주성주변을 돌아다녔던가봐. 거기서두 맞춘한 자리를 못잡았다구 하면서 엇그제 남쪽을 바라구 떠났네. 그 스님이 풍수에도 밝더라니. 무슨 지맥이 어떻게 동남간이 어떻게 땅속까지 행하니 꿰뚫고있는가봐. 그러니깐 임자두 그 스님을 함부루 욕하지 말게. 그 스님이 신통력이 있어서 백리밖에서두 하는 말을 다 듣는 모양일세.》

김을지는 문득 어제 냉이포성문앞에서 만났던 중이 생각났다. 혹시 그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형님, 그간놈의 허튼 수작을 끝이 듣지 마우. 이렇게 신수편편한 나를 벼락맞아 죽었다고 생똥같은 거짓말루 어리숙한 형님을 속여넘긴걸 봐두 알게 아니우. 내 그놈을 처음 만났을 때 주둥아리를 박살내야 했었는데... 빨리 역마를 내슈.》

역참아전은 말을 풀어다가 말고삐를 넘겨주면서 쪼꼬만 수팜송이같은 상투머리를 기웃거렸다.

《하긴 그래…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 하니 이게 말짱 거짓말이 아닌가베. 모를 일이야. 그러고보니 수상쩍군… 밤마다 흰참지에 땀물을 찍어 뱉지 않는 글을 쓰는걸 봐두 그래. 또 왜나라사신이 왔다는 소문이 나들면 슬그머니 나타나는데 봐두 그래…그참…》

김을지는 말에 오를 생각도 잊은듯이 역참아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었다. 몇해전에 그 검은 삿갓중이 물에 적신 참지를 내보이던것이 돌이켜졌다. 그때는 난생처음 당해본 일이라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었지만 이번에 두번째로 당해보니 그놈이 생판 오그랑수를 쓰는것이 험동해졌다.

《형님, 그놈이 땀물로 글을 쓰는걸 제눈으로 보구하는 말이우?》

《암, 보구말구. 밤마다 그 스님이 아까운 소기름등잔을 말리우는것이 내 뼈기름을 말리우는것 같지 않겠나. 그래서 도대체 무얼 하느라구 저러나 하구 문짬으로 가만히 보았었네. 그랬더니 글씨… 무엇인지 그리더구만.》

《음, 알겠수다.》

김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에 올랐다. 그는 파발길을 어떻게 다그쳐 급보를 감영에 전하고 또 어떻게 되돌아 질풍처럼 말을 몰아왔는지 자신도 몰랐다. 빨리 그 삿갓중놈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 하나 생각밖에 없었다. 냉이포성문앞에서 어슬렁거리던 중이 미심쩍었다. 그놈이 성주변을 오가고 흰참지에 보이지않는 글을 써넣는것을 보면 필시 려탐군인지 모른다. 왜인 사신이 올 때마다 그놈이 매번 보인다고는 않는다. 그놈이 우리 나라 길이란 길과 산성이란 산성은 다 돌아보고 낱알이 적었다가 왜놈들에게 넘겨주는지 누가 안단 말인가.

김을지는 밤이 깊어 락주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고 또다시 말을 세판게 몰았다. 어느덧 진해현지경을 이루는 골짜기에 들어섰다. 여기로 가면 냉이포까지 몇십리를 질러간다. 그대신 위험하다. 대낮에도 혼자 다니기 무서운 승냥이굴이었다. 이따금 호랑이도 출몰하여 사람을 해친다고 하는 곳이다.

새벽이 푸르스름해왔다. 풀숲에 묻힌 오솔길이 어슴푸레 보인다. 그는 칼을 빼들었다. 그리고 전후좌우를 경계하면서 말을 몰았다. 문득 말이 걸음을 멈추고 두귀를 쫓긋거리다. 어디선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뒤미처 사람의 비명소리가 났다. 승냥이가 사람을 해치는 모양이다.

김을지는 《이라!》 하고 급히 말배때기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리나는쪽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송아지만 한 승냥이 세놈이 어떤 사람을 에워싸고 달려들고 있었다.

《에라, 이놈들!-》

그는 벽력같이 소리치면서 칼을 어떻게나 세차게 내리쳤는지 승냥이 한놈이 두동강이 나서 휘뿌러지고 나머지 두마리는 도망쳐버렸다.

김을지는 말잔등에서 내려 정신없고 쓰러진 사람을 불안아 흔들었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자그마한 칼이 떨어져내렸다. 아마도 승냥이와 싸울때 그것으로 맞서본것 같았다.

웃은 갈가리 찢기우고 온몸은 얼굴과 함께 승냥이발톱에 활키였다. 사나운 이발에 물려뜯긴 자리에서는 피가 량자하게 흐른다. 아직 숨결은 붙어있었으나 금시라도 절명할것 같았다.

김을지는 풀숲에 떨어진 작은 칼을 찾아 간직하고 그를 조심히 말에 안아올렸다. 마치 죽어가는 자식을 안고가는 부모처럼 그의 큰눈에 근심이 짙게 어려들었다.

날은 흰히 밝아왔다. 맑은 시내가 나졌다. 그는 말을 멈춰세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에 눕혔다. 그리고 마디굵은 손을 오그려뜨려 손바가지를 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씻어주었다. 그러자 소년티를 갖 벗어난 애송이청년의 모상이 나타났다. 그의 입술이 알릴듯말듯 움직여거렸다. 그리고 눈을 떴다.

김을지는 한시름 놓고 반갑게 마주 웃었다.

《정신이 좀 드나?》

세상에 인명보다 더 귀한것이 어디에 있던가. 사람이 사람을 죽을 교에서 건져낸것보다 더한 기쁨이 또 있던가. 김을지의 눈에 붉은 눈물방울이 번쩍이었다.

《너는 어디서 사는 누구인데 무슨 일로 승냥이굴에 들었나?》

인정사정이 따스하고 근심이 후덥게 흐르는 김을지의 얼굴을 이윽도록 올려다보던 애송이는 한순간 좌우를 살피더니 화닥닥 놀라 일어났다. 그리고 화들화들 떨리는 무릎을 꿇고서 갑작갑작 머리를 조아리었다.

《한…한번…만… 살려주십시오… 방수패장님… 어제 화상을 뵈던 폐식…에 왔던… 난 거기서 악공… 요시무라… 난, 난 죄가 없습니다.》

《뭐?》

김을지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아니 이게 뭔가. 내가 구원한게 왜놈의 새끼인가. 어쩔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에 꿈틀꿈틀 퍼져갔으나 꼭 눌러참았다. 야밤에 이놈이 왜 이런 험한 산길을 탔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이는 간특한 왜인들이 어떤 음모를 꾀하자고 어느놈에게 연통을 띄우는것 같았다.

이때껏 동정이 가득 어렸던 그의 두눈이 번개불을 일으켰다.

《너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알겠다.

네가 도적고양이처럼 야행한 까닭을 말하지 않

으면 당장에 요정낼테다. 어서 말하라.》

《네, 네… 한번만 살려… 주…주십시오.… 그러면… 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시무라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띠엿띠엿 자기가 보고 겪은것을 끝까지 다 말하고 앞으로 꼬꾸라졌다.

6

《여봐라, 게 누가 없느냐,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수백리 파발길을 다녀온 방수패장에게 주안상을 하나 잘 차려 내오너라. 내 그와 자리를 같이 하리라.》

군영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호령하고 난 만호 김성걸은 섬돌아래 김을지를 대견히 굽어보았다.

그는 기분이 흥떳다. 왜인들이 우리 나라 선대 임금의 화상을 잘 받들어 상감마마께 보이면 상감마마인들 그 기쁨을 어이 다 누리랴, 또 자기도 그 공로가 없지 않으니 벼슬품계를 한등급 높이 제수받든가 아니면 후한 상을 받을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옵니다. 감히 뉘앞이라고 주안상을 마주 하리까?》 하고 김을지는 진심으로 사양하여 량수거지를 하였다.

사실 그는 배가 몹시 고했다. 온 하루 밥먹을 짬도 못내고 뛰어다녔다. 지금 밥을 먹고있을 게 제가 못된다. 한초가 새롭다.

그는 만호에게 요시무라의 이야기를 대충 여쭙고 그놈을 맡기었다. 그 검은 삿갓중놈의 속내를 까뻐쳐서 악랄한 왜인사신 정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귀를 맞추어놓아야 했다. 이 왜놈들이 우리 임금을 이리도 무쌍히 통략하려든단 말인가.

김을지는 만호에게 거듭 사례하고 군영을 나와서 냉이포성문을 향해 씨엿씨엿 걸었다. 몇끼를 굶는데다가 날씨까지 찌물쿠어서 갈증이 목안을 지지고 오장을 태웠다. 허나 밥먹고 물마실 생각은 까맣게 잊었다.

그는 성문앞에 이르러 성문지기에게 말을 건네었다.

《자네 역쇠가 아닌가. 헌데 웬 중이 성안에 들어가는걸 왜 막지 못했나?》 하고 자기가 다 알고 있는것처럼 중떠보았다.

문지기는 놀라운듯 눈을 휘둥그래 떴다.

《그걸 어떻게 다 아우?》

《내가 아는 중일세, 성내에 절간을 지을 자리를 본다고 했잖나?》

《허허, 그참 방수패장이 귀신 찜찌먹겠수다. 처음엔 나도 안된다고 딱 잘라냈수다. 그런데 절터를 잡는다고 하길래… 아침결에 들어갔으니깐 지

금쯤은 나올 때가 됐는데…》

문지기는 목을 빼들고 성안을 두루 살피더니 병긋 웃으며 《내 말이 그르데가 없군. 저기 중이 내려오는구려.》 했다.

김을지는 문지기가 가리키는쪽으로 번쩍 고개를 돌렸다. 참말 웬 중이 고개를 짓수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나 검은 삿갓에 검은 장삼을 입은것은 아니고 재빛장삼에 재빛삿갓을 썼다.

《역쇠, 이번엔 저 중을 엄히 기찰하게. 나는 내가 찾는 중이 적실한지 물러나 볼테니.》

그사이에 중은 벌써 성문앞에 가까이 왔다. 역쇠는 이때라 그를 멈춰세웠다.

《게 서우. 나갈 때는 제맘대로 나가지 못하우.》

중은 공손히 두손을 합장하면서 멈춰섰다. 폭 늘려쓴 삿갓속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없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중놈이 녀불의 끝을 길게 부르는 소리는 깊은 산속 절간의 범종소리처럼 삼라만상을 자애깊이 쓰다듬듯 한 여운을 남기면서 신비롭게 사람의 심혼을 흔든다.

김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중놈이 옳구나. 저놈은 또 저런 요사스런 소리로 사람의 넋을 빼앗는구나. 장삼과 삿갓을 바꾸어 못사람의 눈을 가리운다고 해서 내 어찌 몰라볼수 있겠는가.

김을지는 성큼성큼 걸어나와서 중앞에 떡 뺨치고섰다.

《네 온갖 잔꾀로 백성들을 속이면서 간특한짓을 마음대루 하는구나. 그 낯판대기를 감추고다니는 삿갓을 벗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네놈이 죽었다던 사람이다.》

그러나 중은 타하지 않고 나직이 응대하였다.

《소승은 불가에 몸을 두고있기로 속세의 무지한 모함과 욕설이 당치 않나이다.》

《파시 스님답구나. 허나 그 바탕을 이리 내와라. 네가 절터를 잡는다고 이 나라 8도강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렴람한것을 적어놓은것이 그속에 들어있음을 내가 다 안다. 어서 순순히 내놓지 못할가. 네 이름이 신옥이란것두 알고있다.》

신옥은 제가슴에서 염통이 푹 떨어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어떻게 저놈을 여기서 만날줄 알았는가. 몇해전에 락주역참에서 본 놈이 분명했다. 저놈이 감때사납긴 해도 걱정할건 없다. 렴람한것을 참지에 적어넣은것은 보이지 않으니 저놈이 속지 않으랴.

《소승의 바랑속엔 하루 삼시 끼니로 먹는 솔잎가루뿐이요, 흰종이뿐이니 무슨 흠이 될것이 있으리까.》

신옥은 태연히 제손으로 바랑을 열어내보였다.

김을지는 그 순간에 독수리 병아리뎡치듯이 바람을 통채로 빼앗아들었다.

김을지의 불시의 행동에 성문지기는 한순간 깜짝 놀라고 다음순간엔 더더욱 깜짝 놀랐다. 바람을 빼앗긴 중은 별안간 큰 절구공이처럼 한길이나 공중 떠올랐다가 김을지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는 것이었다. 허나 김을지는 어느틈에 몸을 피하면서 떨어져내리는 중의 몸뚱이를 세차게 차버리었다. 중은 엄청난 타격에 날아가 성벽에 부딪치는가 싶더니 두발로 성벽을 힘껏 밀어버리면서 이쪽으로 hing-하니 날아와 문지기의 창을 나꾸쳐갔다. 언제 벗겨졌는지 중의 샅갓이 수레바퀴처럼 덩굴덩굴 굴러갔다.

김을지는 칼을 빼어들었다. 눈깜박할 사이에 창과 칼이 돌개바람을 일으켰다. 서로 있는 힘을 다해 찌르고 막고 서로 눈부신 무술과 용력으로 날고 솟구친다. 중의 긴창에 김을지의 가슴이 꿰뚫릴지, 김을지의 서리발칼날에 중의 목이 호박처럼 떨어질지 아슬아슬함이 뒤바뀌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나 두사람은 칼과 창을 맞대이고 서로 노려보게 되었다.

독수리의 날개같이 퍼덕이는 검은 눈섭아래 번쩍이는 김을지의 눈, 눈섭마저도 삭발한듯이 맨 눈방울에 사나운 살기가 뿔쳐나오는 중의 눈, 눈과 눈의 맞부딪치는 소리가 금시 성벽을 흔들며 일어날듯 싶다.

창을 든 사람이 유리하고 칼을 든 사람이 불리한가 하는것은 여기서 말할바가 못된다. 칼은 갈대로, 창은 창대로 각기 우단점이 있는것이다. 중요한것은 누가 무술에서 용력과 지혜, 슬기와 총명한 두뇌를 겸비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요긴한것은 누가 의로운 싸움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자기 한몸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임금을 지키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싸움이면 비록 단신으로 나섰지만 그에겐 온 나라의 힘과 슬기를 지닌다. 바로 그것이 이 시각 김을지의 몸에 살아 숨쉬었다.

《음, 네놈이 부처님처럼 점잖을 빼더니 무술에 날고뛰는걸 보면 과연 어떤놈인지 더잘 알겠다. 이 왜놈의 종자야.》

김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신옥에게는 무서운 철추가 되어 날아간듯이 신옥은 신음소리와 같은 《악-》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창대를 버리고 번개처럼 김을지의 손을 비틀어잡고 전신의 힘을 다해 엮어메치었다. 허나 어찌된 일인지 신옥이 먼저 넘어지고 그우에 김을지가 타고 앉아서 쇠메같은 주먹으로 족쳐대었다.

신옥은 사지를 뻗으며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7

이날도 날씨는 몹시 찌물쿠었다.

합각고래등지붕을 떠받든 주홍색 두리기둥이 묵직히 늘어선 만호군영의 대청마루에는 까만 옷칠이 번들거리는 앞락을 사이두고 북쪽엔 냉이포 만호 김성걸과 그의 부하 장졸들이 근엄하게 앉아있고 남쪽엔 왜인사신 정수, 그의 부사신, 종사관이 마주 앉아있었다.

지붕우엔 불별이 내리고있었지만 지붕아래엔 차거운 랭기가 떠돌았다.

《...지엄한 우리 나라 선대임금을 가짜화상으로 조롱하고 위엄을 떨구는 이러한 행위는 이 나라 신하들과 백성들의 격분을 자아내는것이니 부복사죄치 않으면 나라와 나라사이에 불화가 생기리라라는것을 알아야 하오.》

만호 김성걸의 분노가 서리발치듯 하였다. 그 분노는 왜인들에게 속은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여 더더욱 치밀어올랐다.

《조선의 변방장수는 지인지감이 없어서 이같이 세조대왕의 화상을 가려보지 못하고 자기 선대임금을 가짜라 하니 이는 불충이라 소승은 조선임금에게 상소하겠소.》

정수는 사신의 체모를 잃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배심이 든든한체 하였으나 속으로는 돌사태를 만난것처럼 당황하였다. 어떻게 되어 조선측이 세조의 화상이 가짜라는것을 알아냈단 말인가. 어떻게 그 비밀이 새어나갔는가. 처음엔 진짜로 알고 꺾박꺾박 질하지 않았던가.

《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격이요. 여봐라, 방수패장 있느냐. 어서 그 비수를 이리 가져오너라.》

《알았소이다.》

대청마루옆에 대령하고있던 김을지는 한자루의 짧은 흉기를 내놓았다. 칼손잡이는 뼈로 만들었고 거기에 정교한 돌을무늬가 새겨져있었다.

《이것은 사신의 칼이요. 악공 요시무라는 이 칼로 자결할것을 강요받고 도망쳐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것이요.》

정수는 거적눈을 치뜨고 칼을 마깝지 않게 응시하였다.

《칼자루에 <다복사주지 정수> 라고 뚜렷이 새겨져있소. 이리함에도 자복사죄치 않겠는가.》

김성걸이 이렇게 엄히 증거물을 동반하여 들이대었다.

정수는 큰 귀를 말귀처럼 주빚 일으키듯 하더니 이내 랭소를 지었다.

《악공 요시무라는 세조대왕의 화상앞에서 무엄

하게 웃은지라 이런 잠인들을 처결하는것은 지당하오. 례의지국인 조선에서도 이같은 경우라면 용서치 않을것이니 더 말하지 마시오. 또 귀족이 말하자는 본뜻이 이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김성결은 정수의 이 말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여 잠시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정수의 삭발한 머리, 가리워줄 머리털이 없어서 거기에 가득찬 음흉하고 교활무쌍한 못된 꾀들이 마치 앞은 물속에 꼬리치는 고기처럼 보이는것 같았다.

그는 자신을 복통이 터지도록 지탄한 급보를 재차 조정에 보내고 송구히 열흘나마 기다리였었다. 마침내 조정의 공문이 어제 저녁에 내려왔다.

그는 그 공문의 지시를 받들어 이렇게 왜인사신을 불러들인것이다.

《여봐라, 방수패장은 요시무라를 끌어내라.》

그 령에 정수는 화닥닥 놀라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섬돌아래 끌려나온 요시무라는 고개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목숨을 부지하겠거든 네가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아뢰라.》

그러자 요시무라는 고개를 푹 숙이었다,

《지난 3월이었습시다.》

요시무라는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요시무라는 길거리에 앉아서 통소를 불고있었다. 지나가던 중이 한참이나 서서 듣더니 요시무라를 불러 자기를 따라가면 운수가 트일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중을 따라 깊은 산중의 다복사라는 절간으로 갔다. 거기에는 이미 자기와 같은 소년들이 악기를 가지고 똥똥거리고있었다.

요시무라는 그들과 함께 주지 정수가 정해준 조선악곡과 조선말을 배웠다. 이 두가지를 익히면 조선에 건너가서 일이 잘되면 조선임금이 내리는 큰 상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호박이 절로 떨어지는판이다. 그들은 암팡스럽게 조선악곡과 조선말을 배웠다.

어느날 악공들은 조선임금의 화상을 맞아들이는 의식절차를 연습하였다. 과연 엄숙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연습이 줄곧 진행되었다. 장중하고도 부드러운 조선궁중의 음률속에 조선임금의 화상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요시무라는 입술이 부르르도록 땀을 흘리면서 통소를 불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휴식하고 다시 연습하라는 주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요시무라는 절간의 뒤모퉁이를 돌아가서 오줌을 누었다. 현대 자기앞 멀찍이 먹음직스런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려있는 살구나무가 호젓이 서있었다. 입에선 군침이 스르르 돌고 머리속에선 남몰래 감쪽같이 따먹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누가 보지 않나 하고 앞뒤를 살피었다. 살구나무를 마주하고있는 절간 뒤창문이 열려져있어서 더구나 조심해야 하였다. 창문에서 사람이 내다보면 꼼짝없이 들켜날 위험이 있는것이다.

그는 발톱을 숨기고 걷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먼저 창문안을 가웃이 엿보았다. 현대 이런 변 보았다. 그는 단박에 두눈을 화등잔처럼 떴다. 주지와 스님 둘이 그렇게도 거룩하게 모시던 조선임금의 화상을 손가락질해가면서 눈섭을 좀 더 진하게 그려야 한다느니 눈꼬리를 위로 치켜지게 해야 위엄있게 보인다느니 하면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는것이였다.

《조선의 냉이포 만호가 자기네 임금을 한번 보거나 하겠소. 그저 위엄있게 그리면 그들이 진짜로 알리다. 세조가 수양대군시절에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에 맞게 기상이 나타나도록 그려놓으면 만사성취되리다. 나도 세조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그리라 저렇게 그리라 할수는 없지만 영웅호걸로 보이도록 해야 하리다.》

주지 정수는 옆에 있는 두사람을 돌아보며 뜻있는 미소를 지었다.

《웁소이다. 여기에다가 례식을 그럴듯 하게 벌리면 그들이 화상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리다. 우리는 그들의 충군지의를 잘 리용해야 하오.》

그들 셋은 마음이 개운하여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가리우고 웃었다.

《악공들이 조선의 궁중음률을 그만 하면 잘하는데 좀 더 연습시켜 실수가 없도록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격양시킬수 있습니다. 의식절차에 음률이 없으면 그 의식은 별거벗은 의식이지요, 하하...》

《그리고 연습할 때 보니 향불이 도중에서 죽었습니다. 의식이 끝날 때까지 향불을 피워서 그윽한 향기가 그들의 기분을 돋구어야 자기 임금의 체취처럼 향내를 맡을것이지요. 이는 마치 눈을 감고도 꽃향기를 맡으면 봄이 온것을 아는것과 마찬가지로...》

요시무라는 창가에 눈과 귀를 딱 붙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다 보았다. 그는 살구를 따먹을 궁리도 감감 잊고말았다. 그들이 꾸미는 일이 재미나기도 하고 요술처럼 교묘하기도 하여 호기심이 부쩍 살아올랐다. 가짜를 진짜처럼, 허위를 진실처럼 보이게 하자면 이런 허례허식이 필요하누나 하는 생각으로 입을 딱 벌리였다.

《아, 이번 거사야말로 내 한생의 대업을 성취하는 길이올시다. 12살 내 아들 신옥이를 조선의 바다가에 던져넣은 뜻을 스님들도 잘 알고있는 바이로소이다. 그 애가 조선사람으로 귀화하여 중이 된지 32살이 되도록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

워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그리워 서로 꿈에 오가는 세월이 20년이 되었소이다.》

정수의 축 늘어진 눈꺼풀아래로 뿌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흰 명주장삼소매로 눈두덩을 꼭꼭 눌러 씻고 마늘교를 벌름거리었다.

《우리는 조선을 먹어야 살수 있나이다. 통채로 삼키는 야금야금 뜯어먹든 그 먹는 방법은 상관할바 아닙니다. 승자는 언제나 정당하고 패자는 아무때나 부당한것이 세상리치로소이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덤속같이 괴괴한 정적에 요시무라는 숨이 막혀오는것 같았다. 그는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리치를 앞으로 반드시 써먹으리라고 속다짐하였다.

《주지님은 넘려마시오이다. 중 신옥은 조선의 지리와 군사수, 병쟁기들의 좋고 나쁨까지도 다 렴탐한것을 이번에 우리에게 넘겨줄것입니다.》

스님 하나가 정수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요시무라의 귀에 알아들을만큼 들려왔다.

《이번 길에 그 애를 아주 일본으로 빼돌려야 하니 일처리를 탐탁히 해야 하리다.》

《네, 털끝만치도 허실이 없으리다. 냉이포거류지엔 소송의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맹약하고 일을 벌리고있소이다.》

《오, 그렇지요. 하기는 냉이포, 부산포, 염포의 우리 거류민들은 일이 있을 때 모두 우리 군사로 일어날것입니다.》

요시무라는 또 한번 경탄하였다. 참으로 무서운 비밀이었다! 그는 자기의 온몸에 꿰어쫓는 욕망이 번져가는것을 느끼면서 창가를 물러나 쥐도 새도모르게 빠져나왔다. 이제 다시 시작될 의식련습에 늦으면 뒤탈이 생길것이었다.

말을 마친 요시무라는 그 자리에 폭 꼬꾸라졌다.

왜인사신 정수는 시퍼런 대낮에 날벼락을 맞는것 같았다. 부사신과 종사관도 눈알이 뒤집히는것과 같은 전률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요시무라와 같은 애새끼가 수십년 공든 탑을 무너뜨렸구나. 그날 밤에 자결하라고 칼을 줄것이 아니라 직접 죽여버렸어야 했구나. 개미하나가 큰 제방을 허문다더니 보잘것없는 악공이 대업을 망쳤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가슴을 쥐어뜯었건만 소용이 없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깨친 때처럼 정수는 사지가 나른해졌다.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선듯선듯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수습하였다.

《어떻게 아직 미성년과 같은 아이의 말을 듣고 두 나라의 관계를 원썬과의 사이로 만들자고 하오? 그것은 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요. 우리 나

라가 귀국의 덕에 살아가고있는데 어떻게 천륜을 어기고 조선을 먹으리오. 염라국의 지옥에 가서라도 씻지 못할 대죄를 어찌 자행하리오.》

정수는 간뜩한 피를 써가며 거침없이 말했다.

《웁소이다. 우리 주지님은 불가에 몸을 둔 스님으로서 아들이 있을수 없나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헤아린다고 우에서 열거한 모든 사실은 다 요시무라를 등대고 저 패장이 지어낸 랑설이니 저놈을 그냥 둘수 없소이다.》

부사신이 김을지를 노려보면서 눈독을 돌구었다.

김성걸이 참지 못하고 부르친 주먹으로 앞락을 쾡- 내리쳤다.

《요사한 무리들과는 언저언래가 당치 않다. 여봐라, 중놈 신옥을 잡아들여 아버지와 아들의 무릎맞춤을 해야 하리로다.》

이윽고 오라를 진 신옥이 끌려나와 섬돌아래 무릎을 꿇리웠다. 신옥은 냉이포성문앞에서 김을지와 판가리대결끝에 붙잡혀서 옥에 갇혀있었다. 박박 밀어버린 둥근 머리와 눈두덩이가 불거지고 귀바퀴가 주라주둥이처럼 넓게 퍼진것이라든가, 마늘쪽같은 코라든가 신통히도 왜인사신 정수와 꼭같이 생겨먹었다.

《사신은 역적 신옥이를 보라. 생김부터가 제 아들임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정수는 딛고선 마지막 한치의 땅마저 천길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것 같았다. 그는 섬돌아래로 눈길을 돌렸다. 정녕 자기 아들 신옥이 틀림없다.

이 무슨 일이냐. 신옥이가 붙잡히다니 ... 어찌다가 이리 됐느냐. 장차 조선을 정벌하고 고관대작의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릴가 했더니... 이 어찌된 일이냐. 신옥이만 붙잡히지 않았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인제는 끝장이다. 아니 그럴수 없다. 신옥이가 내 아들이 아님을 끝까지 뻔쳐내면 된다. 그러면 신옥이 렴탐했다는것도 나와 상관없고 그러면 모든것이 저절로 풀린다. 요시무라가 했다는 말은 말뿐이고 증거는 없다. 정수는 천천히 등을 돌려 본래의 자세를 취하였다.

《세상에는 별일이 많은거요. 생김생김이 같은 사람도 많고 이름이 같은이도 많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나는 아들이 있어본적이 없소.》

정수는 혼연히 시치미를 뻘다.

《다복사 주지는 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다. 여봐라, 신옥의 바랑속에 감추었던 참지묵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방수패장은 그것을 보여주어 아버가 제 아들을 20년만에 만나볼수 있도록 하라!》

김성걸은 정수를 왜나라사신으로 보기를 이미

그만두었다. 그래서 사신이란 말도 붙이지 않고 일개 절간의 주지로 부르면서 죄인취급을 하였다.

김을지는 신옥의 때물은 바랑을 가져다가 두툼한 참지뭉음을 꺼내놓고 또 흰 종이에 싼 흰 가루약같은것을 들추어냈다.

《이 흰 가루는 백반가루입니다. 이것을 물에 풀어서 글을 쓰면 종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리웠다가 물에 적셔보면 썼던 글이 보입니다. 신옥은 이것으로 나라의 지리를 련담해서 참지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곁보기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떤 글이 나타나는지 당신들은 제 눈으로 보시오.》 하고 참지 한장을 떼내어 물에 적셨다가 앞상에 조심히 퍼놓았다. 거기에는 냉이포로부터 서울까지 가는 동쪽길과 서쪽길이 그려져있었다.

동쪽길은 동래, 경주, 영천, 레천, 상주, 조령, 세재, 충주, 레주를 거치는 서울길이었고 서쪽길은 부산, 김해, 양산, 성산, 추풍령, 정주, 죽산을 거치는 서울길이였다.

종이마다에 다 이렇게 조선의 각 도, 각지에 쌓은 산성의 위치와 크기, 어느 부분은 돌과 흙으로 되었다는것을 밝히였다. 동래성, 웅천성, 냉이포성은 변방에 있는 성이여서 더 세세히 그려놓았다. 마지막종이에는 《부친전상서》라고 제목을 달고 신옥이 정수에게 보내는 편지도 살아올랐다.

《아직도 부인할터이나. 지은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면 살길이 열린다. 용서를 빌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김성걸의 추상같은 호령에 정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신의 자세가 아니라 법앞에 뻔대는 죄인의 가련한 물골을 나타내였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소.》

정수의 대답은 섬돌아래 무릎을 꿇고있는 신옥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는 20년만에 만나는 부자간의 상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것을 불행하게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부친이 장하게 여겨졌다. 허나 막부득할 때에는 굶혀들었다가 다음 기회를 위해 목숨을 살려두어야 한다. 폭풍이 몰아칠 때 잡초들이 허리를 굽히면 살아나고 허리를 펴면 뿌리채 뽑혀버린다. 일본민족은 잡초를 닮아서 일본땅에서 살아간다. 조선에 반역했다가 복종하고 복종했다가 반역하면서 시간을 얻고 힘을 키워서 조선을 삼켜버려야 한다. 이것이 부친의 장구한 계책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가. 왜 사죄치 않는가.

신옥은 오늘 비록 20년공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반드시 살아서 장래를 기약하고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잊지른 물과 같이 주어담을수 없

게 되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없다!》

하고 신옥은 누가 어쩔사이도 없이 무릎을 일으키며 앞으로 몸을 날려 섬돌에 머리를 짓조았다. 당장에 머리통이 박살났다.

정수는 아들의 죽음앞에 거적눈을 흘뜨고 그 자리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로써 그들은 서로 부자지간임을 스스로 나타냈고 임금의 화상도가짜라는 오욕을 스스로 남겼다.

×

냉이포 만호군영박의 공지에서는 일찌기 불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활활 불타는 가짜화상앞을 지나 물고기궤미처럼 한줄로 묶이운 왜놈사신 정수와 그의 부사신, 종사관이 악공들과 저희네 종들과 함께 방수들에게 물리워 나가고있었다.

놈들의 뒤모습을 지켜보며 두주먹을 우들우들 떨던 김을지가 별안간 노성을 지르며 뛰쳐나갔다.

만호 김성걸이 급히 웨치면서 달려나가 김을지를 막아나섰다. 그의 눈빛에도 참을길 없는 증오와 저주가 엉켜돌았고 그의 목소리에도 놈들을 살려보내는 분함이 서리발친다. 우리 나라가 선의를 가지고 한보 양보하면 왜놈들은 악의를 가지고 백보 침입하노니 그 한걸음을 지키는것이 백걸음을 굳건히 지키는것이 아니냐.

《안되오이다. 저놈들을 용서함은 후세의 화근을 오늘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묻어두는 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 아, 분하구나, 원통하구나 -》

김을지의 피타는 웨침이 하늘가 멀리 저 멀리 울려갔다. 그 메아리에는 결코 그대로 사라질수 없는 력사의 교훈이 어려들었다. 그것은 후날 온 경상도땅을 불태운 3포왜란과 또 그후에 온 국토가 전란의 참화를 입었던 임진왜란이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근세에 이르러 우리 나라 고종 황제의 날인도 없는 가짜 《을사5조약》을 가지고 나라를 통채로 빼앗은 왜놈의 극악한 침략사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앞날의 일이었다.

하늘가에 노을이 피빛으로 더 짙게 타올랐다. 그 붉은빛에 휩싸인 김을지의 몸은 그대로 타오르는 하나의 불길같이 보여왔다.

아, 얼마나 장한가. 이 나라의 평범한 군정이 왜놈들을 용서치 않으려는 그 의기야말로 만백성의 의기인것이다. 왜놈들을 쏘아보던 김을지는 으스러지게 칼자루를 틀어쥐였다.

김을지의 절통한 마음이런듯 냉이포앞바다는 온통 불노을을 안고 쇠가마처럼 끓어번지고있었다.

《야스구니진자》에 부치여

곽명철

세계의 량심은
차단봉을 내린지 오래건만
사무라이후예들은
오늘도 살기를 풍기며 밀려간다
군국주의망령이 끝없이 배회하는
《야스구니진자》 에로

못이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안고
세계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을
무서운 야심을 비수처럼 품은 미치광이들이
죽어자빠진 전쟁광신자들앞에서
피의 복수를 다지려
앞을 다투며 밀려가고있다 《야스구니진자》 에로

세계제패에 들떠 제정신이 아닌
섬나라오랑캐들은
물과 불을 가려볼
리성의 계선을 이미 넘어섰더라

《야스구니진자》에서
독이발을 갈며 맹약한대로
놈들은 이미 도전의 첫발을 내디렸거니
요즘 세계는 얼마나 소란스러운가
조선의 《독도》문제
중국의 《조어도》문제
로씨야의 《쿠릴렬도》문제...

오, 《야스구니진자》에는
평화의 리정표가 없더라
기어이 《야마도정신》을 부활시켜
또다시 세계를
제놈들의 《히노마루》아래 끓어있힐
무서운 야망의 화살표만이 뻗쳐있거늘

어찌 바랄수 있으랴
온통 정신은 《야스구니진자》에 가있는
복수주의로 눈에 달이 오른 저 사무라이들에게서
그 어떤 성근한 사죄와 배상도
그 어떤 믿음직한 평화의 공약을

오, 각성한 세계는 보았다
온 인류의 증오의 대상인 《야스구니진자》에서
오늘 피를 물고 살아나오는
《도쿄》와 그 전범의 무리들을

새겨두라
산 사람의 넋을 버리고
제국주의망령을 따르는 길은
그들을 따라 무덤으로 가는 길임을
후날에 너희 무덤에
일본의 후대들이 침을 뱉으리란것을

경구, 격언

량심, 지식

- 작가는 물론 살아가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벌이를 하여야 하지만 벌이를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글을 써서는 안되는것이다.
- 학식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령리한것은 아니다.
- 낯은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좋은 선율을

- 낼수있다.
- 량심없는 지식은 정신의 죽음이다.
- 려행은 참다운 지식의 큰 원천이다.
- 령리한 사람에게는 모방이 모욕으로 된다.
- 리성과 친숙해지라, 시는 언제나 리성으로 하여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것이다.

성구, 속담

강의성, 인내성, 참을성

-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 걸음새 뜬 소가 천리를 간다.
- 소금이 쉴 때까지 해보다.
- 작은 도끼로 아름답드리나무를 찍어놓힌다.
- 꽃은 계속 피어야 꽃이다.

- 참을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 정성을 들였다고 마음을 놓지 말라.
- 공부는 늙어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 닭알도 굴러가다 서는 모가 있다.

밀 천

변장을

《기자동무.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어가는 우리 농장엔 문인숙리당비서동무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지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우는지 그 비결을 말해야 하겠으니깐요.

허허, 그것이 더 구미가 동한다구요?... 그럼 세해전 그가 우리 농장 리당비서로 왔던 시기 있는 일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평농장 부기장 림만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첫 인상

농장초급일군회의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분위기로 번져졌다. 당면한 거름생산과 반출정형을 총화하는 회의였다. 오늘 군에서 있는 중간총화에서 비판을 받고 돌아온 나이 지숙한 관리위원장은 첫 시작부터 어성을 높였다. 그는 그중 나은 단위부터 추궁하면서 회의도수를 점점 올렸다. 변죽부터 울리면서 회의의 분위기를 한껏 긴장시켜놓고 기본대상을 치는 관리위원장의 수법이였다.

맨 나중에 7작업반장 차승일이 불리워 일어섰다.

따질것은 따지고 추궁할것은 추궁하는 과정에 이미 하고싶은 말은 다 한뒤라 이번에는 상대의 심증을 몹시 자극하는 말부터 하였다.

《우리 농장에서 미달한 량의 절반은 동무네 몫이요. 그러니 7작업반장은 군적으로도 마지막이란 말이요. 오늘 당일 세대별 거름생산실적 하나만 놓고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요. 최근에 7반이 앓아몽개기만 하면서 일을 치지 못하는데 도대체 원인이 뭐요?》

《...》

차승일은 그썸한것은 각오하고있었던듯 덤덤히 서있었다.

《부기장동무.》

관리위원장의 부름에 만성은 난감한 기색으로 일어났다. 그는 7작업반 담당일군이였다.

담당관리일군을 추궁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차승일은 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듯 앞질러 입을 열었다.

《우리 작업반은 거름원천이 걸렸습니다. 개인세대 열두바닥과기도 다 한뒤여서 더 나올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니탄원천을 찾아내던가 도시거름을 실어오든가 해야지... 게다가 우리 반은 트랙토르가...》 관리위원장은 듣고싶지도 않다는듯 코바람을 불었다.

《동문 언제봐야... 도시거름이나 니탄도 한계가 있단 말이요. 트랙토르부속품이나 연유사정은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농사를 잘 짓겠다는 각오가 없이 밤낮 우는소리만 하면서 자리지킴이나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소. 초급일군자격이!》

생김부터가 얼굴이고 가슴이고 온통 넘적넘적하게 생긴데다 웬간해서는 주눅을 모르던 차승일은 그 소리에 낮빛이 거뭇게 질렸다. 그는 펼쳐들었던 사업수첩을 소리나게 접으며 머리를 들었다.

《자격이 없다는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의장에는 갑자기 무거운 정적이 드리웠다.

작업반장으로는 난다긴다하던 저 담벽같은 사나이가 오죽했으면 저러라하는 동정심이 솟구쳤다.

하면서도 온지 사흘밖에 안된 리당비서에게 사직서부터 냈다니 너무 무례하고 야박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직리유가 새 리당비서와는 전혀 무관계하다고 쳐도...

정작 차승일이 그렇게 나오자 관리위원장은 할말을 못찾고 노력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옆에 앉은 리당비서에게 얼굴을 돌렸다. 리당비서가 한마디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표정이었다.

회의시작부터 줄곧 사업일지에 눈길을 박고있던 문인숙리당비서가 얼굴을 들었다. 그는 낮이라도 익히려는듯 매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었다. 회의장의 눈길이 처음 마주앉은 40대안팎의 녀성리당비서에게 쏠렸다.

간편하게 다듬어진 머리단장, 굴곡있는 겹썸한 얼굴에서 예리하게 느껴지는 눈빛, 수수한 옷차림과 단정한 몸가짐 할말을 고르듯 잠시 눈길을 떨구었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서 할말이 없습니다. 단지 제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는데서도 농장원대중이 한사람같이 펼쳐나 주인구실을 바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시기당이 제시한 농업혁명방침대로 두벌농사, 감자농사를 더 잘짓고 다수확품종이 은을 내게 하는것

이 우리 초급일꾼들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봅시다.》

일꾼들을 분발케하는 참신하고도 모가 난 말을 기대했던 만성은 그의 말에 다소 실망감을 느꼈다. 다같은 심정인지 회의장분위기는 좀처럼 개일줄 몰랐다.

회의를 결속하고나서 관리위원장은 느닷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각 작업반들에서 농사밀천으로 쓰겠다고 내놓았던 비경지콩을 농장원들에게 다시 분배해야겠습니다. 부기장동무가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하십시오.》

(그럼?...)

만성은 락심한 눈길로 관리위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리당비서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건가? 하긴 리당비서가 규정대로 하자고 요구하는데 용빼는 수가 있었겠는가? 만성은 손맥이 풀려남을 느꼈다.

한해농사를 어떻게 짓겠는지 근심부터 앞섰다. 일꾼들치고 농장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차례지고 보래지길 바라게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성이 자신의 경우도 다를바 없었다. 농사를 위해서 당장 급한 대목을 넘기기 위해서 아껴오던 농장재산이 나갈 때면 제 살점을 뜯기우는것처럼 가슴이 아팠고 농장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맹물을 마셔도 명치끝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허실할세라 눈을 밝히고 요구성을 높였다. 그런탓인지 구평리농장원들은 같은 재산이라도 제손에 쥐여진것보다 부기장의 주머니에 든것이 더 믿음직하고 훨씬 값이 있다고 말하곤 했다. 열번 따져보고 백번 생각한끝에 내놓았던 농사밀천을 말짱 내놓으라니 ... 밀천이 없이 농사를 지으라는거야 두 발목을 매고 뛰어보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일꾼이 현실적인 안목이 없이 아래사람들과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파를 초래할수 있다.

회의를 마치고 삼삼오오 떼지어 흩어져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만성은 《부기장동무》하고 자기를 찾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니 문인숙리당비서였다.

회의에서 받은 인상때문인지 그의 얼굴엔 얇은 음영이 비껴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만성은 아까 회의에서 차승일이 하던 말이 생각나 몰았다.

《비서동무. 7반장이 정말 사직서를 내긴 냈습니까?》

그러자 문인숙은 말없이 손에 든 사업일지를 펼치더니 갈피에 끼워있던 종이한장을 내밀었다. 차승일의 사직서였다.

《사직리유-능력부족.》

만성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니 차승일의 해임을 결심했는가?)

《이 사람을 정말 해임시킬 작정입니까?》

《...》

《실상 반장재목으로는 그만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낸건 아마...》

《새 리당비서가 미덥지 않아서이겠지요.》

《그런게 아닙니다. 워낙 우리 농장은 경작조건도 불리한데다 최근에 와서는 농사밀천이 넉넉치 못해 애를 먹지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7작업반 같은데는 소재지 반보다 관심이 덜 가는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때문에 우리사이에 언쟁이 있었습시다.》

만성이 7작업반에 갔을 때 차승일은 잔뜩 뿔이 돌아있었다. 어제 비료를 다른 작업반보다 적게 주었기때문이다.

《우릴 이붓아들 대하듯 하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니요. 제밥도 못찾아먹는 반장을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농장원들의 열의를 저락시킨다는걸 왜 모르는가 말이요.》

그래서 한동안 말씨름을 하고있는데 탈곡장쪽에서 늙은 녀인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일본새냐? 이걸 버리고 그냥 가면 새끼돼지들이 짓몽개놓을텐데...》

목소리의 입자는 부대노력 인 백소렐녀인이었다.

처녀시절 모내기경쟁에서 하루 9백평의 모를 쏴아 1등을 한 후부터 《9백평》이 이름처럼 돼버린 그였다. 그는 곡식가마니를 쌓았던 자리에 널린 강냉이알을 쓸어모으며 앞에 서있는 애송이청년에게 욕설을 퍼붓고있었다. 말뚝에 매인 송아지처럼 우뚝쫘리며 엇드레질을 하는 청년은 얼굴이 갱끗한 명업이었다.

《참 할머니두. 대충 쓸어서 닭모이나 가져다 주랴요.》

억이 막힌 백소렐이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명업이녀석이 왜 차차 저 모양이 돼가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농사를 잘 짓겠다고 속을 태우는 반장이나 부기장이 잘 일깨워줘야 할게 아닌가.》

차승일은 입을 다셨다.

《나도 모르겠수다. 관리위원회에선 우리 작업반을 뒤전에 밀어놓고 생각하지, 농장원들은 반장이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뒤말을 하지... 두 팀에 끼워서 속썩일 필요가 없지요...》

그때 만성은 차승일이가 전처럼 또 화김에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흘려들었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직서까지 낼줄이야...

만성의 기색을 말없이 살피던 문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은 한해농사를 지어놓고 보자고 했어요.

부기장동무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직이 울리는 문인숙의 말에 만성은 고개를 틀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농사밑천이 넉넉하면 만사가 다 헐하겠는데 우리 농장은...》

《밑천이 넉넉해야 한다는것은 옳아요. 그런데 제보기엔 우리 농장밑천이 그리 약한것 같지 않는데요. 경지면적대 농장원수 하나만 놓고보아도 다른 농장에 못지 않아요. 부기장동무, 사실은 한가지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관리위원장동지하고는 토론이 있었는데 당장 이사집을 실어와야겠어요.》

《이사집이요?! 이 엄동설한에 이사를 한단 말이요? 집도 없이?...》

만성실 어지간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7작업반 명엽이네 옆집이 비어있더군요.》
《?!...》

그런 집이 있긴 했다. 거기서 살던 짧은 부부가 늙은 부모를 모셔야겠다며 큰집과 합치는 통에 두어달째 비어있는 집이었다. 작고 껍 낮은 집이었다. 농장에서는 봄이 되면 좋은 자리에서 새집을 짓겠다고 채목이랑 기와를 마련해놓고있었다.

《차만 한대 있으면 되겠어요.》

《설마하니 그 집에야 어떻게... 봄에 나가서 집이 마련된 다음에...》

《아니예요. 어쨌든 이사를 빨리 해야겠어요. 가능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만성은 그가 왜 이렇게 이사를 서두르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합숙생활이 불편해서인가? 아니면 두고 온 집걱정때문에?...

《정말 이 밤중에 이사를 하겠다는건가요?》

만성은 다짐을 받듯 다시 물었다.

《그렇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나직이 울리는 그의 어조에서는 거절할수 없는 요구가 느껴졌다. 잠시후 만성은 어둠속으로 나섰다.

웃사람

자동차는 전조등을 휘저으며 한겨울의 어둠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문인숙이 혼자 가겠다고 했으나 만성은 함께 떠났다, 80리가 넘는 로상에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라하는 녀려도 없지 않았지만 콩밭에 서슬을 치듯 덤비는 품이 도무지 마음을 놓을수 없게 했던것이다.

적재함우에 바람을 등지고 앉은 만성의 눈앞에는 멀리 흘러간 청년분조 시절 문인숙과 헤어지던 일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고향땅에 집단진출한 중학교졸업생들로 무어

진 구평리청년분조가 두해째 농사를 짓던 어느 봄날, 변화한 도시의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문인숙이 자원진출하여왔다.

랑만적이면서도 꾸밈이 없고 무슨 일에서나 주저를 모르는 그의 성격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몇달이 지나 그는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가 되었다. 그가 온 첫해에도 다음해에도 청년분조는 알곡계획을 넘쳐하여 신문과 방송에 몇번이나 소개되었다. 분조장인 만성이와 문인숙이가 호흡이 잘 맞아 쇠소리나게 일을 제킨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농사뿐이라, 합숙을 꾸리고 마을을 거두는데서도 그들은 힘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그시절 문인숙에게는 《소낙비》라는 판이름이 붙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장이 날 때까지 다그쳐대는 일본새때문이기도 했지만 잘못된 일을 놓고는 소낙비처럼 사정없이 두드려대는 그의 성격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소낙비》는 가뭄든 곡식밭에 뿌리지는 비처럼 꼭 필요한 때에만 내렸다. 만성은 그의 성격이 지나치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탓할수는 없었다.

몇해후 문인숙은 도소재지에 있는 집에 다녀오는 길에 알게 된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일로 한다리를 잃고 영예군인이 된 청년과 결혼을 하고 이웃농장으로 떠나갔다. 그 농장에서 입당도 하고 세포비서를 거쳐 리당부비서로 일하던 그가 15년만에 구평농장 리당비서로 다시 온것이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법》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우곤 하는 백소렬의 말을 빈다면 어제날의 《아래물》이 오늘은 《웃물》이 된셈이다.

그 문인숙이가 리당비서로 오자마자 이사부터 하겠다고 나선것이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깊은 밤중이었다. 온 동리가 떨쳐나서는통에 이사집은 잠간 사이에 차에 실렸다. 웬간한 집들은 이미 꾸러져 있었다. 식구들과도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던 모양이었다.

짐신는것을 살피며 잔소리를 하던 옆집의 늙은이가 문인숙에게 말했다.

《이사를 하더라도 봄에 나가서 하는것이 어떻나. 무슨 급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네.》

문인숙은 나직이 대답했다.

《사실은 엿저녁에 거름생산때문에 회의가 있었어요. 초급일군들과 처음 마주앉는 자리였지만 전 하고싶었던 말을 다할수 없었어요. 집도 없이 몸만 땡그라니 와서 합숙밥을 먹는 사람이 거름생산을 잘하자고 해야 빈소리뿐이지요. 한시라도 빨리가서 농사차비를 해야지요.》

《새 리당비서가 농사를 잘 짓자고 나선걸 보면 그곳 사람들이 정신을 버쩍 차릴거네.》

그제야 만성은 그가 무엇때문에 이사를 서두르는지 어렵잖이나마 알게 되었다. 일꾼으로서 대충앞에 나설 체면과 말할 자격은 행동이고 그것은 앞채를 메야 한다는것이다.

성격이 급하고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것은 예전이나 변함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사집을 실은 자동차는 동녘이 흰해질무렵 마을에 도착하였다.

갑자기 새 리당비서가 자기네 마을로 이사왔다는것을 알게 된 7반 마을사람들은 신혼바리나 맞이한것처럼 들쭉하니 떨쳐나섰다. 길바닥과 마당에 쌓인 눈을 쳐내는 사람, 방안을 거두고 짐을 날라들이는 사람. 부뚜막을 손질하고 가마를 거는 사람, 돼지우리와 집짐승우리를 손질하는 사람...

뒤늦게 달려온 차승일은 바빠맞아 집안밖으로 들락날락했다. 명업이네 늙은 부모들도 그릇가지들을 날라 들이는데 어울려 돌아갔다.

그제야 만성은 명업이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주의가 갔다. 옆집에서 이웃하고 살 사람이. 더구나 리당비서네가 한겨울에 이사를 왔는데 얼굴도 안내미는것이 도무지 철이 있는것 같자 않았다.

만성은 명업이네 트랙으로 들어서다가 굴뚝모퉁이에서 갠듯한 얼굴만 내미는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뭘하느냐? 얼굴도 안내밀고...》

《리당비서네가 정말 저 집에서 살겠대구 오나요?》

명업은 놀라와 물었다.

《여기가 무슨 정거장이라구 잠시 들렸겠니...》

《하필이면 우리 옆집으로 이사올건 뭐예요. 농장 막바지인데.》

농장을 책임진 일꾼이 농장원들과 함께 어울려 살자면 서로가 부자연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저어되는 모양이었다.

이사집 날라들이기가 마무리될무렵 어디론가 사라졌던 차승일이야 곡괭이와 지레대를 메고 담장앞에 나타났다.

《그건 뭐요?》

만성이가 덩돌해진 눈으로 쳐다보며 묻자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좁전에 리당비서동무가 이 집의 퇴적장부터 찾는데 헛참, 저길 좀 보오.》

차승일은 담장밖 한켠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황소 한마리 누울만 한 우목진 곳이 있었는데 그나마 눈이 덮여 퇴적장이라고 하기는 난처할 정도였다.

《어찌겠소. 어쨌든 우리 작업반 농장원이 살던 집이니 내가 이런 봉변을 겪어 싸지요. 리당비서동무가 속으로 욕인들 얼마나 했겠소.》

차승일은 뭐라고 연신 중얼거리며 퇴적장으로

갔다.

눈을 퍼던지고 헹헹 코김을 불며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한참 곡괭이를 휘두르던 차승일이 숨옷을 벗어던지는데 삽을 든 명업이가 그리로 주춤주춤 다가왔다. 구멍이안에 들어서서 삽질을 하던 명업이가 누구에게라없이 불쑥 입을 열었다.

《웃사람이 무서운 모양이지요?》

《그렇다.》 하고 차승일이 어이없이 대꾸했다. 멀찍이서서 지켜보던 백소렐이가 한마디 끼여 들었다.

《웃사람이 아니라 아래사람이 무서워 저러는거지. 말은 바른대로...》

명업은 눈이 울롱해서 백소렐을 쳐다보았다.

《그럼 리당비서가 아래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래사람들을 어렵게 대하는 일꾼이 제일 무섭다는 소리다. 언제가야 철이 들겠는지...》

명업은 뭔가 깨도가 되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설프게나마 집안확정돈이 끝났을 때 만성은 트랙을 나섰다. 문인숙이와 의족을 한 그의 남편이 따라나왔다. 얼굴이 길쭉하고 체대가 큰 문인숙의 남편은 식사라도 한끼 나누지 않고 간다고 못내 섭섭해했다.

보매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이 집 터받은 어느건가요?》

《터밭이요?》

만성은 문인숙의 말을 받아외우다가 담장앞을 가리켰다.

《이거지요. 한데 워낙 가물이 심한 곳이었어...》

문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인다운 눈길로 집 주변을 오래도록 더듬어보았다.

아래사람

겨우내 산과 들을 뒤덮었던 흰눈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어디라없이 하루가 다르게 푸른빛이 짙어갔다.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 들판에서는 봄갈이에 나선 트랙트르들이 보습날을 번쩍이며 논밭을 누벼나갔다. 방풍장을 둘러친 령상도판에서는 벼모들이 봄바람에 푸른 잎새를 흔들었다. 앞그루로 심은 밀보리밭에서는 덧거름주기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이 웃고 떠들며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창문밖으로 만성이 봄풍경을 내다보고있는데 차승일이야 관리위원회에 들어섰다.

그의 너부죽한 얼굴이 전에없이 환했다. 하긴 그럴만도 했다. 어제 7작업반에서는 군적인 거름생산 방식상학이 있었다. 하나와 같이 규격화된 집집의 퇴적장은 물론 논과 밭에 듬뿍듬뿍 쌓인 질 좋은 거름더미는 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했

다.

방식상학은 리당비서 문인숙이네 집앞에서 걸속되었다. 부엌과 집오래에서 나오는 퇴수가 흘러들도록 만들어놓은 큼직한 퇴적장, 돼지우리앞에 갖추어놓은 물거름받이시설... 방식상학을 걸속하면서 군농촌경영위원회일군은 구평리에서처럼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농장원대중이 주인구실을 하도록 불러일으키는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말 그랬다. 리당비서네집 퇴적장에서 거름무지가 솟아오르자 초급일군들의 집에서 거름무지가 날이 다르게 커졌고 농장원세대에서도 뒤질세라 따라나섰다. 온통 눈천지인 한겨울에 어디서 그런 거름원천이 생겨났는지 스스로도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7작업반에서는 한해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다 장만했고 농장적으로도 봄씨불임전으로 확고한 승산이 있었다. 만성이 일군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이번처럼 절실히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듣자니 전리당비서네가 이사를 간다더군요.》

만성은 자동차나 그밖의 부탁이 있었는가싶어 마주보았다, 혹시 능구렁이같은 7반장이 사람이 제나름으로 그 집을 넘보고있는것은 아닌가?

《누가 그 집에 가게 되는가요? 아마...》

《그 문제는 동무까지 걱정안해도 되요.》

만성은 두말못하게 밀막아버렸다. 관리위원장파도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집이었던것이다.

차승일은 《내 혼자 해보는 생각이요.》하고 중얼거리더니 작업실적표를 책상우에 놓고 나가버렸다. 만성은 그의 속심을 알수 없어 실눈을 지었다.

다음날은 마침 휴식날이었다. 만성은 점심때가 지나서 자동차를 타고 7작업반으로 향했다. 도중에 차승일을 만나 이사짐을 실을 로력을 몇사람 데리고 따라오라고 했다.

잠시후 자동차는 문인숙이네 집앞에서 멈춰섰다.

주인을 찾으며 프락으로 들어서던 만성은 무춤 굳어졌다. 프락이 온통 진흙블록천지였다. 한가운데는 이겨놓은 진흙더미가 해빛에 마르지 않게 비닐박막으로 가리워져있었다. 아직 물기가 번들거리는 블록도 있었고 통풍이 잘되게 길이방향으로 세워놓은것도 있었다. 다른쪽에는 거의 다 마른것들이 좁은 면만 땅에 대고 줄지어 서있는것도 있었다. 그사이로 햇병아리들을 거느린 어미닭이 구구거리며 돌아갔다. 담장 한구석에는 두부모처럼 네모방정하고 매끈한 마른 블록들이 몇차 잘되게 쌓여있었다. 오래전부터 째스간마다 빗어놓은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 집을 새로 짓자고?...)

문인숙이가 무엇을 바라고있는지 비로소 알게

된듯싶어 만성은 잠시 망설이였다. 그도 문인숙의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을 하였지만 새집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서 이사시키는 편을 택했던것이

다. 소학교에 다니는 문인숙의 딸애가 토끼풀바구니를 들고 프락으로 들어섰다. 아버지는 염소방목을 갖고 엄마는 빨래하러 강가로 나갔다고 했다.

만성은 강가로 향했다.

키높이 자란 황철나무들이 서있는 강둑에서 햇물을 뜯고있던 송아지며 염소들이 만성이가 나타나자 경충 뛰며 달아났다.

폭이 넓어지면서 흐름이 떠진 옷목의 강가에 녀인들이 앉아있었다. 저저마다 한모양으로 웃고 떠드니 누가 누구인지 분간키 어려웠다. 몸이 풍만한 한 녀인이 문인숙쪽을 돌아보며 《...학수엄마》하고 부르자 저쪽의 한 녀인이 밋지 않게 눈을 흘긴다.

《학수엄마? 리당비서보고... 요전번 운동회때 저 물독같은 몸을 끌고 운동장을 뛰느라 리당비서가 혼났을거야.》

즐거운 웃음이 터져올라 강반에 퍼져갔다.

《이달에 우리 집돼지를 발전소전설장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돼지우리가 비겠구만요, 학수네집에서 이번에 낳은 새끼돼지가 마음나서 그러는데 두마리만 골라놓았다가 주세요.》

《아니 우리 시아버님은 학수네집 터밭에서 자라는 부루이이 욕심난다며 그 씨앗을 부탁하누만요.》

《아이는 제 아이가 더 곱고 남새는 남의것이 더 실패보인다더니 저 쌍둥이엄마 욕심 좀 보지. 그 부루종자는 작년에 그 집에서 얻어다 심었던 걸 울봄에 내가 학수네집에 씨앗을 준거야...》

강변에 또 한차례의 웃음이 터져올랐다. 빨래가 아니라 즐겁게 웃기 위해서 모여든듯 싶었다.

《학수네가 우리 동네에 이사온 다음에는 우리 마을에도 노상 웃음이라니까. 이 재미에 휴식날만 오면 빈 버치라도 들고 나와야지 오금이 쭈서 못견디겠단니까.》

연록색의 잎이 핀 황철나무 우듬지에서 웃음소리에 놀란 새떼들이 확 풍겨났다.

어느틈에 만성을 띄여보았는지 문인숙이가 다가왔다. 한쪽 다리를 저는것을 보니 아직도 운동회때 박힌 독살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리당비서가 종목마다 출전하여 승벽을 부리는바람에 만성은 그 여독이 크리라는것을 알면서도 자개바람이 일게 뛰여다녔다. 그날처럼 농장운동회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적은 일찌기 없었다.

빨래터에서 부기장이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문인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 문제는 미리 토론했을걸 그랬군요. 사실

난...》

《집을 새로 짓는다는게 말처럼 쉬운가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것이니 이사를 합시다. 새집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옮겨갔을셈치고...》

《이렇게 하는것이 어떨까요? 그 집에 백소령어머니네를 이사시키자요, 그 집 막내아들네는 그냥 있게 하고.》

사실 문인숙이네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다 지난 달에 결혼식을 한 백소령의 막내아들네를 옮기려 했다. 허나 새집을 짓겠다고 ब्ल록까지 찍어놓은것을 보고온 뒤라 자신의 의향을 더 고집하지 못했다.

자동차가 백소령네 집을 향해 떠났다. 문인숙이도 함께 떠났다. 만성이와 함께 적재함에 오른 차승일은 《이럴줄 알았더니까...》 하며 검은 눈을 끄벅이였다. 옆에 선 명업은 건드러진 가락으로 휘파람을 불어댔다.

《넌 리당비서네가 그 집에 아주 눌러살겠다는것이 그리도 좋으나?》

《좋지요. 두고보라니까요.》

명업의 명민하게 생긴 눈이 반짝거렸다.

이사를 가야겠다는 만성의 말을 듣자 백소령은 한길이나 펄쩍 뛰었다, 내가 그렇게두 체신머리 없고 앓을자리 설 자리도 분간못하는 늙은이로 보이냐며 노여워했다. 두 부부가 아니라 세 부부가 함께 살아도 거기는 못간다며 쫓아버리듯 문밖으로 떠밀었다. 만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명업이가 백소령이앞으로 한발 다가섰다.

《할머니,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러는건데 이사를 가시라요.》

누구도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명업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 옆에 선 차승일은 웃고있었다.

《영큼한 녀석, 네가 왜 이 늙은이를 그 집으로 보내지 못해 안달인지 내 다 안다.》

백소령이가 문인숙의 손을 잡았다.

《리당비서네가 그리루 가는게 응당하지. 더구나 학수네야 영예군인가족이 아닌가. 아래사람들의 심정도 알아주게. 그러지않는다 해도 사람들은 리당비서의 마음을 잘 아네.》

《고마워요, 어머니...》

문인숙은 눈주위가 붉게 상기되어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만성은 슬며시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 집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문인숙이가 걸음을 땀다.

《함께 가보자요.》

모두가 말없이 문인숙의 뒤를 따라섰다,

문인숙은 집안에 들어서자 부엌이며 방안, 창고들을 일일이 돌아보았다. 물이 짹짹 흘러내리는 수도꼭지도 들어보고 해빛이 뛰노는 창문도

유심히 지켜보았다.

《창문이 이쯤 더 내려와야 좋을것 같군요.》

창문밀의 흰벽에 금을 그어보이며 차승일이가 하는 소리였다. 문인숙이도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묵은 포도농쿨의 그림자가 어롱어롱하게 비낀 마당을 살피던 문인숙이가 부엌앞으로 갔다.

《같은 값이면 프락에도 수도를 놓았으면 좋겠군요. 여름에는 밖에서 물 쓸 일이 더 많은데.》

《돼지도 기르고 염소나 토끼, 닭을 치자면 짐승우리도 따로 지어야 할것 같군요. 기본건물을 돈구어줄수 있게 문화적이면서도 쓸모있게...》

명업은 차돌처럼 회고 가쁜한 이발이 드러나도록 웃음이 가득실린 얼굴로 문인숙을 바라보고있었다. 이 집이 마치 자기네가 살 집이기라도 한듯... 담장의 높이며 나드는 문의 위치까지 정하고나서 문인숙이 만성에게 물었다.

《방금 토론한대로 집을 개조하자면 걸리는게뭔가요?》

기다렸던듯 차승일이가 제격 응수해나섰다.

《블록은 찍으면 되고 일손도 있으니 며칠이면 되지요. 다만 나무가 문제인데.》

집을 개조해서 어찌자는건가 하는 생각에 움해있던 만성은 나무라는 소리에 번개치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민성은 서둘러 대꾸했다.

《나무는 해결되거나 갈소.》

나무가 필요되면 후날 버짚 몇차 해결해주기로 하고 가져가라던 이웃농장 부기장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러니 이웃간에 호상 돕는거란 말이지요?》

문인숙은 마을쪽으로 눈길을 주며 말을 이었다.

《아니, 그건 다시 생각해봅시다. 공동생산물은 다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만성은 할 말이 없었다.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해를 등지고 마을쪽으로 멀어져가는 문인숙을 바라보는 차승일의 얼굴에는 웃음이 비졌다.

한주일이 지난 점심때였다.

새로 개조한 그 집으로 리급초급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환하게 개조된 집안팎을 돌아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저저마다 이런 집에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고 내놓고 말했다.

관리위원장과 나란히 선 문인숙은 얼굴에 미소를 지은채 그들을 지켜보다가 자신들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부족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해보라고 했다. 그만하면 손색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는데 한 녀성작업반장이 난방과 펌프문제를 주저주저 말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문인숙이 관리위원장의 얼굴을 의미있게 바라보았다.

관리위원장은 빙그레 웃으며 농장원들을 둘러

보며 한두해 안으로 작업반구역의 모든 살림집들을 이집처럼 현대적인 문화주택으로 일신시키고 북대천을 막아 전기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소형발전소까지 건설하고 메탄가스를 리용할 대책을 세우자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농장원들에게 이 집을 견학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리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문인숙이 앞에 나섰다.

《동무들을 모이라고 한것은 바로 그 문제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겠습니까.》

농장원대중이 발동되면 그리 힘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조가 비긴 얼굴로 전에없이 열정적으로 말하던 문인숙의 눈길이 담장너머로 향했다. 거기에 백소렬이가 서있었다.

프락으로 들어서는 백소렬의 손을 잡으며 문인숙은 부엌문쪽을 가리켰다.

《어머니, 마음에 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백소렬은 가는 주름이 얹힌 눈썹이 축축해져서 문인숙을 지켜보았다.

《그러지않아도 아침부터 몇번이나 돌아보았네.》

내 리당비서의 말대루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겠네. 우리 자식들과 젊은이들에게 농사일을 하나 해도 집을 한채지어도 어떤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이네…》

만성은 굳어져 움직일줄 몰랐다. 문인숙리당비서의 마음을, 농장원들의 지향을 나는 왜 몰랐던가…

땅을 가꾸면 ...

그날 아침도 만성은 관리위원회에 들어서자바람으로 군산림경영소에 전화를 걸었다. 문화주택 건설에 필요한 나무때문이었다. 멀지않아 김매기가 끝나면 첫단계의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나무가 결렸던것이다. 군에서는 대책중이니 좀더 기다리라는것이였다. 몇번째 같은 대답이였다.

송수화기를 놓기 바쁘게 문가에서 기다리던 작업반기술원들이 달려왔다. 다른 농장들에서는 비료공장에 가서 암모니아수를 받아오고있는데 우리 농장은 왜 속수무책인가고 물아냈다.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이 두벌농사방식상학 참가자로 며칠간 자리를 뜬 탓도 있었지만 보다는 이런 급한 대목에 쓸 밀천 하나없이 손털고 나앉은 부기장을 타매하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울리는 듯싶었다.

과학적인 비배관리에 대한 협의가 7반현장에서 진행되고 그 뒤끝에 그곳에서 리당, 관리일군들이 김매기를 했다. 풀안기습을 따라 길게 누워있는 비탈밭에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데 어울려

김을 매고있었다.

뒤늦게 온 만성은 중간쯤에 앉은 문인숙의 옆에서 백소렬이가 호미질을 하고있는것을 보고 그 쪽으로 다가갔다.

새 이랑을 잡을 때 만성은 그의 옆에 앉았다.

기다렸던듯 문인숙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산림경영소에 알아보았는가요?》 고개를 끄덕인 만성은 대답대신 한숨부터 내그었다.

《나무는 해결될겁니다. 당장 급한 암수(암모니아수)를 빨리 받아오자해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밀천이 마련되면 후날 보상할 셈 치고…》

문인숙의 호미질소리가 멎었다.

《후날을 믿고 급한 대목을 넘기고 보자는식으로 일한다면 우린 언제 가도 시대의 요구를 따라서지 못할거예요.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결린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밀천을 마련하는 길이 아닐까요?》

앞선 사람을 따라잡느라고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던 그가 문득 생각난듯 다시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말하고싶었는데 우리 집 터밭말이에요. 평수가 좀 모자라더군요.》

난데없는 터밭소리에 만성은 얼떠름해졌다. 한참만에야 그는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울봄 만성은 7작업반 농장원세대 터밭을 주는 일에 참가했었다. 문인숙이네는 기준량보다 퍼그나 모자랐다. 만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치고말았다. 리당비서 사업만 해도 아릅찬 그에게 다른 곳에 더 주었겠지 부담스러울것 같아서였다.

앞서나가던 백소렬이와 명엽이가 두대짜리 강냉이포기를 마주하고 싱갱이질을 하고있었다.

한대는 어느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한대는 대도 특별히 굵고 키도 한뼘이나 더 컸다. 바람결에 제법 잎을 흔들 때면 여봐란듯이 주변을 굽어보는듯 싶었다.

《모를게 있느냐? 남보다 더 먹었으니 크지.》

백소렬이가 하는 소리였다. 오래동안 잠복해있던 선대의 우수성이 몇대를 뛰어넘어 나타나는 격세유전현상인지, 정말로 생육조건이 특별히 좋았던탓인지 만성이로서도 아리송했다.

《큰것을 뽑자니 아깝고 작은걸 뽑자니 저혼자 우뚝 서있는게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명엽이가 강냉이대를 매만지며 하는 소리였다.

《아깝긴. 큰걸 슈야야 해. 그래야 일매가 들어.》

백소렬은 어쩔사이없이 큰것을 잡아 뽑아냈다.

《아직 두 모르겠냐? 눈치가 멀쩡한것 같으면서도…》

손바닥으로 뿌리를 감싸쥐고 주변을 두릿거리던 명엽은 발머리쪽으로 다가갔다. 빈 자리를 찾

아내여 속아낸 강냉이를 심고 쟈터에서 물 한바가지를 떠다가 부었다. 그것이 새뿌리를 내리면서 모살이하는동안이면 여느강냉이와 같아질것이다.

밭고랑에 주저앉아 명엽이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백소렬이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곡식과 사람은 키우기탓이라더니 저 녀석을 좀 보라구. 이젠 농사꾼이 됐단 말일세.》

백소렬의 말에 주변사람들도 새삼스런 눈길로 명엽을 지켜보았다.

《관리위원장동무도 없는 때이니 내가 암수를 받으러 떠나야 할것같은요.》

만성의 말에 문인숙은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꼭 받아오겠는지 자신심이 없으나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을 기다리고있을수 없었다.

저녁에 만성은 차승일이와 함께 마을로 향했다.

그들이 마을어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느집앞에서 녀인의 청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냐? 김도 제대로 매지 않고 남새는 가물에 시들어버리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무슨 일인들 쓰게 하겠냐? 뒤집 리당 비서네 터밭을 보아라. 이 왕가물에도 푸르청청한 남새가 꼭 들어찼단말이다. 한동네에서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이 큰 집에만 매달려 살수야 없지 않느냐...》

백소렬이었다. 재작년에 세간난 둘째아들 내의를 터밭머리에 세워놓고 닥달하는 소리였다.

문인숙이네 집앞에 가보니 터밭농사가 정말 볼만 했다. 이랑에는 감자를, 고랑에는 갖가지 남새를 심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강냉이포기들도 보았다.

한데 어울려 자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싱싱했다. 사람들의 말처럼 작은 《시험포》였다.

그제야 만성은 리당비서네 터밭을 적게 준것이 후회되었다. 새로운 작물을 또 심어보려는것이 분명했다.

얼마후 관리위원회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만성의 눈앞에서는 문인숙이네 집앞에서 본 터밭이 지워질줄 몰랐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아들내의를 질책하던 백소렬의 모습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군들의 집에서 가꾸는 크지 않은 터밭 하나도 농장원들의 열의와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채찍이 되고 추동력이 될수 있다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지금까지 문인숙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오고있다. 가을날의 알찬 열매를 바랄수록 땅을 더 직심스레 갈구는 실농군처럼...

문인숙리당비서가 가꾸는 일군의 본분이라는

《땅》에서는 인간이라는 《곡식》이 줄기차게 자라고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가꾸는 《땅》에서는 무엇이 자라고있는가? 일군들이 대중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만성은 비로소 깨닫는듯 싶었다.

큰 밀천

만성은 석대의 트랙토르와 함께 비료공장으로 갔다. 올해 정초부터 온 농장이 펼쳐나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작황이 여느때없이 좋았다. 기술적 요구대로 비배관리만 잘하면 올해농사에서는 장훈을 부를수 있었다. 그럴수록 부족되는 비료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것이다.

트랙토르를 타고 50리길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만성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원통형의 고층건물을 련상케하는 두개의 저장탱크가 나란히 서있는 출하장에서부터 료전기재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비료공장에서 생산공정을현대적으로 개조하면서 한동안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것이다.

출하장주변 한곳에 물이 고여있었다. 아름이 넘는 굵은 철관들과 그앞으로 파헤쳐놓은 도랑으로 보아 큰공사가 벌어지고있었다.

아무래도 오늘중에 암수를 받기는 틀렸다.

언제나 받게 될지?...

낮참에 그는 군으로 가는 차편을 리용하여 관리위원회로 돌아왔다.

문인숙이와 마주한 자리에서 만성은 그곳 형편을 말하고나서 돼치라도 몇마리 가지고 갈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만성의 말을 듣고나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된다! 하다면 어찌자는건가?)

《태일 나도 함께 가보자요.》

만성은 한숨을 지으며 마주보기만 했다.

《은 나라가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는 때 무슨 방도가 있겠지요.》

다음날 아침이었다. 만성이 비료공장쪽으로 가는 차편을 알아보는데 차승일반장이 관리위원회에 나타났다.

《비료공장에 간다지요? 우리반 트랙토르도 함께 가겠소.》

요즈음 그는 농사일에 활기를 띠고 돌아쳤다.

만성은 마뜩지 않은 눈길로 그를 흘겨보았다. 바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트랙토르를 내라는 만성에게 자기네 차는 수리중이라고 하던 그였다.

한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색인가.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하여튼 동문 언제 봐야...》

《혹시 알겠소, 떡이 함치채로 차례질지...》

누가 뭐라도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속심이였다.
《형편을 알구 덤비오. 나가있는 차도 늦어지는
판인데 무슨 뽕족한 수가...》

그무렵 7반트락포르가 기세좋게 관리위원회마
당으로 들어섰다.

뒤따라 문인숙이가 나타났다. 련결차에 실린
타원형의 통을 살펴보고나서 차승일에게 돌아섰
다.

《암수통은 제대로 정비했는가요?》

《비서 동무가 말한대로 발브목을 손질했습니
다.》

그들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사정은 마찬가지였
다.

그들이 출하장가까이에 갔을 때였다. 방금 암
수를 받아 실은 트락포르 한대가 이쪽으로 빠져
나오고있었다. 물속에 잠긴 길바닥이 고르롭지
못한지 몹시 기우뚱거리며 힘겹게 전진해왔다.
련결차가 기우뚱거릴때마다 암수통의 아구리로
흰 액체가 넘쳐났다. 다음차도 그 다음차도 한모
양이었다.

문인숙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출하장으로
향했다. 출하반장은 순서를 다루는 사람들에
끼워 눈코 뜰사이가 없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말았다.

다행히도 마지막순서로 녀대의 트락포르가 암
수를 받게 되었다. 한차 또 한차... 밝은 얼굴로
암수를 받는것을 지켜보던 문인숙이가 물속을 빠져
나가는 트락포르쪽으로 창황히 달려갔다.

《조심히 모세요! 천천히. 좀더 천천히...》

문인숙의 신호에 따라 트락포르가 가듯마듯 천
천히 굴러갔으나 암수통이 기우뚱거리기는 마찬
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섰던 7반 트락포르에 호스
를 넘겨주려는 때였다. 문인숙이가 손을 저으며
급히 소리쳤다.

《7반 트락פור트는 받지 마세요.》

출하반장의 큰 눈이 덩둘해졌다.

《왜 그러오? 한시가 새롭다던 사람들이.》

차승일은 무슨 정황이라도 생겼나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래도 한차는 래일 아침에 받아야겠어요.》

문인숙의 말에 출하반장은 머리를 긁적거리다
가 《그건 좋도록 하오.》 하면서 호스를 거두었
다.

영문을 몰라 굳어져있는 사람들에게 문인숙이
가 말했다.

《모두들 봤지요? 암수가 넘어나던 이 길로 다
른 차들도 여기를 통과해야겠는데 흘리는 비료가
아깝지 않나요. 힘들어도 우리가 오늘 밤 이 길
을 보수해놓읍시다. 차를 뽑아요.》

문인숙은 급히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니 흙을 날라다 물에 잠긴 차길을 보강하

자는것인가? 그것도 다른 농장 차를 위해서?

헐치않게 차례진 비료를 마다하고 남을 위해서
누구도 모르는 수고를 바치겠다는것이 얼른 남
득되지 않았다. 우리가 아니래도 공사가 끝나면
지대정리와 함께 길도 새롭게 닦아질것이다.

외등빛이 어린 물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차승일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입을 열었다.

《차를 제껴 뽑고 통을 부리우자구.》

그의 말에 젊은 운전수가 시들하니 대꾸했다.

《먹지두 못할 제사에 절만 한다더니...》

《동문 여태 뭘 배웠소? 남의 일이자 내 일이라
는걸 알아야지.》

《글쎄 아닌보살하는게 꽤썸하단 말입니다.》

농장에서 조직한 일을 놓고도 번번이 콩이야
팥이야 해서 체통이 아깝다는 소리를 듣곤 하던
차승일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속이 넓어졌는가?...

그때 지나가는 자동차불빛에 문인숙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어깨에 여러가락의 삽이 있었다.

삽을 하나씩 집어들고 도로와 린접한 공지의
둔덕진 곳에 흙을 파서 트락포르에 실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외등이 환하게 켜진 울타리밖의 출
하장으로 맞들이와 삽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뒤이어 흙을 실은 자동차도 달려왔다. 공장로동
자들이 조용한 시간을 리용하여 출하장 지대정리
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만성이네도 흙을 날라가기 시작했다. 거리가
가까운데다 자동차에서 허리떨사이없이 부지런
히 삽질을 했다. 한시간 두시간... 시간이 흐를수
록 길은 번듯해졌다. 흙을 공그며 삽질을 하는
로동자들속에서 나이 지숙한 사람이 허리를 폈
다.

《밤중에 동무들한테까지 수고를 시켜 안됐습니
다. 그런데 어디서 온 동무들입니까?》

가까이에 있던 만성이가 대답을 하자 그 사람
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직 비료를 못받았소? 받았다, 그럼 왜서 이
런 수고를 합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 정색해졌다.

《차들이 여기를 통과할 때 비료를 흘리는것
이... 어느 농장 곡식이든 먹어야 할 귀중한 비료
가 아닙니까.》

대답을 해놓고서야 만성은 자신이 좀전에 문인
숙이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는것을 알고
얼굴이 뜨끈해남을 느꼈다.

《남들이 흘리는 비료가 아깝단 말이지요...》

그는 체격이 다부지게 생긴 옆사람에게 말했
다.

《직장장동무, 우리가 이런 동무들을 더잘 도와
주어야 할것같소. 제것을 아까와하는 사람은 많
아도 남이 흘리는것까지 아까와하는 사람들이 쉽
소?》

직장장은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어울려 일하는 낯선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던 사람이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던차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라의 쌀독을 생각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누굴 돕겠습니까, 비서동지.》

직장장이 누군가를 소리쳐 불렀다. 잠시후 출하반장이 나타났다. 출하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 차에 암수를 실어주자는 것이었다.

암수를 받아실은 트랙포르가 새로 닦은 길로 거침없이 빠져나가자 커다란 통을 올려놓은 7반 트랙포르가 출하장에 들어섰다. 호스를 천채 자동차를 내려다보던 출하반장의 눈이 커졌다.

《일육십두 참, 하여튼 좋소. 우리 공장이 현대적으로 확장됐으니 조금만 있으면 암수가 광광 쏟아질거요. 그때 또 오시오. 그뎨 동무네가 선참이요.》

출하반장이 제멋에 겨워 웃음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동무네 농장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지 않고도 알만하오. 구평농장은 아무나 쉽게 가질수 없는 큰 밀천을 가지고있는셈이요. 사람을 바로 키웠단 말이요.》

암수를 다 싣고 문인숙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섰을 때였다. 너부죽한 얼굴이 환해져서 암수통을 바라보던 차승일이 입을 열었다.

《부기장동무, 내가 김치국부터 마시길 얼마나 잘했소. 안그랬던들 이런 떡이 차례졌겠소?》

둘러선 사람들속에서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만성은 웃게 되지 않았다. 속담의 《김치국》은 어리석은자의 헛된 기대를 비유한것이겠지만 차승일이 말하는 《김치국》은 확고한 믿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겠는가. 트랙포르들이 구평리를 향해 떠났다.

어깨를 들쭉이는 운전수옆에 앉은 만성은 방금 전까지의 일이 꿈속에서처럼 돌이켜졌다. 아까울 것이 없다고, 큰 밀천을 가지고있다고 하던 출하반장의 말이 귀가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생면부지인 나에게서, 아니 문인숙에게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 말인가.

만성의 눈앞에는 자기들이 싣고 가는 비료를 배불리 먹고 한껏 자라오를 푸르른 곡식들이 그리고 농장벌의 참된 주인으로 나날이 성장해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는듯 싶었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구평농장 문화주택건설에 필요한 나무가 해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은

만성은 리당비서에게 어서 알리고싶어 리당위원회로 갔다. 문인숙의 방은 비어있었다. 오늘도 어느 포전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따를 흘리고있는 모양이었다. 되돌아 나오던 만성은 트랙 한켠에

서 서성거리는 차승일을 보게 되었다. 만성과의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별스레 어색해하며 머리를 굽적거렸다.

《비서동무를 만나러왔소?》 하고 묻자 그는 허밀 바람을 들이켰다.

《거참, 이럴줄 알았으면 애초에...》

전에 없던 그의 거동을 거북스러워 지켜보는데 작업복차림의 문인숙이가 나타났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차승일은 문인숙을 외면한채 《사실은... 아, 그 참...》 하고 공공 갑자르다가 뒤를 이었다.

《우리 7작업반에서는 오늘 두벌깎매기를 끝냈습니다. 비료치기두 다 제대로 했구요. 저 그런데...》

《그래서요?》 하며 미소를 짓던 문인숙은 주머니에서 크지 않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혹시 이 사직서때문에 오시지 않았나요?》

바재이는 표정으로 종이장을 들여다보던 차승일의 눈이 번쩍했다. 그는 종이장을 받아쥐더니 현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두 이제 정신을 차렸수다. 이제 됐수다.》

무거운 근심을 털어버린듯 별쭉 웃어보이고 나서 그는 씨엥씨엥 멀어져갔다.

저사람이 사직서를 내게했던 장본인은 누구였는가? 진심으로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쓸대신 손에 쥐어진 《밀천》만을 생각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던가?... 진짜 사직서를 내야 할 사람은 자기였다는것을 만성은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부기장동무, 왜 그렇게 심각해 서있어요?》

만성은 자기 심중의 번민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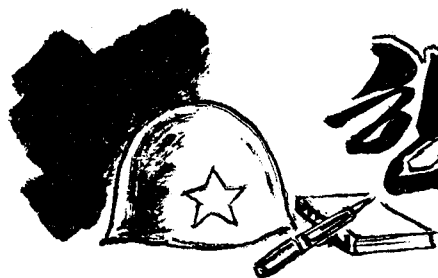
문인숙의 표정이 차츰 정색해졌다.

《부기장동무, 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농사의 주인이라는 본분을 자각하고 모든 일을 제힘으로 해내기 위해 떨쳐나선 농장원 대중이야말로 마를줄 모르는 밀천중의 가장 큰 밀천이라고 말이에요. 그 밀천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

문인숙리당비서의 말이 뇌리를 쳤다. 옳다, 자기의 본분을 자각한 대중이라는 밀천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문인숙리당비서처럼 일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진심으로 자기를 깡그리 바쳐가는 일꾼에게만 차례지는것이다. 나도 그러한 밀천을 마련할줄 아는 실농군이 되여야 할것이다....

새로운 결심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만성의 눈앞에는 큰 밀천에 떠받들려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농장의 래일이 그려지고있었다.



한 군관의 상념

아. 블라또노브

남 해 역

붉은군대병사는 나에게 옷에 찢려 났고 그것을 가지고있던 사람의 채취가 풍기는 수첩을 주면서 읽어보라는 것이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수첩의 임자인 한 중좌의 연락병이었다는 것이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머리글이 적여있었다.

《내가 기록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항상 사색을 거쳐 표현되는 훌륭한 정신상태의 반영으로 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 생각들을 적어두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 쏘베트군인 매 사람의 채부로 될 그 생각들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만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나에게 죽음이라는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으며 그것은 나의 직업적운명을 끝장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쟁으로 하여 그리고 모름지기 공통적인 중요성을 포괄하고 있을 오랜 생활체험으로 하여 산생된 몇가지 사상들이 나의 죽음과 함께 망각되지 말고 특수한 형태의 무기로서 내가 종사하여온 바로 그 위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싶다. 나는 조국이라고 부르는 우리모두의 고향집을 수호하는 위업에 복무하여왔고 복무하고있으며 아직 어릴적에는 천진란만한 느낌으로, 그후에는 생이 자기에게 조국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것을 깨닫고있기에 이 땅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려고 하는 군인으로서 리지적으로 사랑해온 우리의 땅을 한치도 잃지 말고 지키려고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다 바쳐 무기를 틀어잡고 싸우고있다. 인간의 생은 조국에게서 받은 선물이어늘 필요하다면 그 선물을 도로 바칠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여기에 군인의 모든 영예가 있는 것이다.》

나는 연락병에게 지금 그 중좌가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 연락병이 말하였다.

《나는 그의 부모님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의 사품들과 훈장들, 표창장들, 감사편지와 전사통지서를 가지고요... 그를 안치한 장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가족들에게 말해주어야지요. 폭격에 맞지만 않았던들 몸이 성해있을텐데... 우리를 폭격할 때 그는 부상당했지만 나는 그의 옆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살아남았거든요. 내가 죽는게 더 나았을텐데, 그런 우연은 안생기구...》

나는 전사한 군관의 수첩을 다 읽고 연락병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거나 혹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인간의 영상이 들여다보인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기억하였다.

《1943년 4월 10일.

언제였던지 오래전에 처는 나에게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모순되는 말이다. 나는 모순이란 진실성에 있어서 편리한 형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엔 이 허물이 유익해보이니가. 우리가 루가에서 살 때 처가 나에게 하던 말을 종종 회상해보면 마치도 자기의 인생을 다시 알게 되고 안해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느끼는 듯 하지만 추억의 감정은 오직 애수로만 짙어 있다. 나의 감정이 자꾸만 애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란 작별을 의미한다는 그것때문인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작별도 우리의 심장이 서로 떨어져있는데서 오는 이 무거운 애수감도 유익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늘 행복한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가까이 있으면 기뻐하는 그 착한 마음이 변함없으리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의 감정은 사상과 대립되게 지금 당장 안해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다문 몇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지는 것이다. 그리고난 다음에는 다시 이곳에 와서 또다시 사업과 전쟁의 긴장에 말려들 것이며 생생한 감자며 탄약의 축적, 햇내기군관들에 대한 교육, 군수물자, 찍하면 뒤바퀴축이나 적재함, 그 무슨 걸개가 날아나온 하는 자동차운수 등 수천가지의 끊임 없는 걱정거리들을 안고 돌아쳐도 무방하다.

나는 포병이다.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잔뜩 널려져있는 일들은 모두 나의 사업대상에 속한다. 남

새도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구역은 아직 조용하다. 나의 맞은편에는 12개의 도이첸란트포중대가 우리의 중심을 겨누고 배치되어있는데 그중 4개 중대는 중포들이다.

놈들도 우리도 잠잠해있다. 우리 포병들은 공부하고있다. 장령으로부터 운수부대전사까지 모두 학생이다. 우리는 하루 14시간씩 배우며 용기를 다진다. 지휘부의 위임으로 나는 우리 대대에서 《일반지식》 상학을 한시간 하였다.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군사와 관련없는 강의였다. 로씨야문학, 조국의 력사, 세계의 지리,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들이다. 나와 다른 상급군관들은 청중에게 이 과목들에 대한 강의를 해준다. 나는 로씨야문학과 조국의 력사를 강의하였다. 우리가 하는 전투학습에서 이 인문강의를 하는것이 공연한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전투상학을 하는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전투상학이 좀 지루해질 때마다 일반지식을 끼워넣으면 더잘, 더 깊이 소화되는것이다. 이 일반지식을 조금만 주어도 그 교육은 일반군사과학과 포병학을 오히려 습득하는데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것이다. 이것저것 모두 천편일률적이라면, 지어 위대한 사변일지라도 그것이 단조롭다면 사람을 지루케 한다. 나의 이 경험을 류의하였으면 한다.

1943년 5월 8일.

정적, 간간이 적들의 박격포가 정신착란에 걸렸는지 우리쪽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것같아 쿵쿵거린다. 그러다가는 또다시 침묵, 병사들은 햇빛이 좋아 째만 있으면 옷을 벗고 해바라기를 한다. 마치 나이많은 친척벌이라도 되는듯 해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건니며... 나는 적들을 견지하고 물리칠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대포들은 맹렬한 사격을 가할것이며 우리에게는 화력수단들도 많다. 나는 물려설수 없다. 포들이 녹아 떨어지게 되고 포진지에 홀로 남게 될 때까지 불벼락을 퍼부을것이며 나의 포병들이 전부 쓰러진다면 하더라도 뒤로 물러설수 없다. 만일 내가 흔들린다면 나에게서 나의 본질 그 자체가 죽어버리는것이다. 그것은 내가 군사칭호와 견장으로만 군관인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나는 전인민적방어의 제일선에 서있으며 나의 임무는 오직 하나,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그러나 승리는 여기에서가 아니라 후방에서, 조국땅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후방을 강화하라!

그러니 후방의 강화는 나에게 달려있다. 자기의 뒤에 있는 후방을 튼튼히 한다는것은 다시 말하여 공격하는것이다.

1943년 6월 10일.

나는 전투기술기재와 공급물자에 대하여 말할때면 그것들이 이미 우리의 승리를 마련한셈이라고 한다. 우리는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언제인가

술립펜은 죽으면서까지 <우익을 강화하라!>고 되뇌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 문구는 전쟁일반의 전술적구상을 간단명료하게 규정하였다. 후방을 강화하라! 이것은 우리의 조국전쟁의 전략적구상이다. 후방을 강화하라! 이것은 우리 조국이 승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흔들리거나 기진하지 말아야 하고 전투적이며 또한 도덕적인 그 위력이 증대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전쟁의 특수성은 쇠퇴한 힘을 가지고는 결속할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와지는 인민의 양양된 정신력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한다는데 있다. 우리 정부는 승리의 요인이고 정신적지주이며 우리 위업의 성스러운인 후방의 비결을 알고있다.

1943년 6월 23일.

우리의 전 중앙전선은 정적에 싸여있다. 로씨야초원의 아름다운 여름이다. 곡식이 여물고 영원한 삶이 온 누리에 파도쳐가건만 우리의 마음은 격전을 기다리며 긴장되어있다. ... 나의 심중에는 한번이 아니라 몇번이고 죽는대도 자기의 생명을 조국에 바치려는 열망이 간직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하면 자신을 깡그리 조국에 바치고 매 전투마다에서 원쑤는 소멸하되 자신은 상하지 않고 구원되어 오래오래 살고싶다. 나는 다른 군관들과 병사들에게도 이런 훌륭한 열망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지만 누구도 그런 말을 입밖에 내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것은 후방을 더 강화하는것이다. 이 생각은 나를 지배하고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튼튼한 우리의 조국을 더 튼튼히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인민, 민족, 사회는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 개별적인간이 자기인민모두와 직접적으로, 험사리 결합될수는 없다. 인간은 많은 고리를 통하여 인민과 결합된다. 이 고리들속에 사업의 본질이 포함되어있고 그속에 군사적위력을 포함한 인민의 정신적 및 물질적능력이 있는것이다.

첫 고리는 사랑하는 인민들속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개별적인간들인 어머니, 자식, 안해가 살고있는 가정이다. 귀중한 사람들속에서도 이 존재는 가장 귀중하며 그것은 인간을 삶과 의무와 책임에 밀접하고도 엄격하게 편관시켜준다. 이 하나의 혹은 몇몇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위에는 인간의 신성한 자취가 있는바 그것은 집이며 살림살이,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얼마간의 가산들이나 이 가산은 쓸모있는 재물로서뿐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온 한생의 생동한 흔적들로서도 죽은 다음에도 자식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물질적유산으로서도 귀중한것이다. 하지만 가정에 대한 생각은 사랑과 성실성에 있으니 그런 성품을 지니지 않은 인간이나 병사는 하나도

없다. 어린애는 가정에서 사랑과 성실성을 처음엔 본능으로, 그후에는 의식으로 알게 된다. 인민과 그의 국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사적 위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을 민족문화의 발원지처럼, 군사력의 근원처럼 여기며 아울러 그와 물질적으로 편관된 것 즉 주택이며 가정의 실제적인 보급자리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하여 꾸준히 보살펴야 한다. 여기서 소홀히 하지 말고 친절을 기울여야 할 검은 물질적 재산들이 신성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고 불려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 70년 동안 보관되어오는 할아버지의 두터운 라사직의 투가 생각한다. 나의 할아버지는 니콜라예브시대의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전사하였는데 나는 그의 낡은 외투를 매만지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영웅적인 할아버지에 대한 생동한 상상에 잠겨 만족해하곤 하였다. 이 귀중한 가보가 나로 하여금 군인이 되게 한 원인들중의 하나로 되었는데도 모른다. 작고 눈에 띄이지 않는 계기들이 거대한 뱃을 불려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 고리, 두번째 범위는 보다 넓다. 인간은 공장과 농장, 기관 등 사람들의 집단속에서 일해 간다. 사랑과 성실성의 가정교육은 여기에서 의무와 명예의 교육에 의하여 보충된다. 노동과 동무들과의 관계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창조적 힘의 원천을 찾으며 자기활동이 사회적건지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인식할 때 응당한 야심을 충족시킨다.

명예는 용감성의 어머니여서 겁쟁이도 용감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듯 진정한 노동의 문화는 또한 명예의 학교 군인의 학교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 인간육성의 고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속에 우리 군대의 용감성과 완강성의 비결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세번째 고리는 사회 즉 가정, 생산, 정치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한 세가지를 제외하고도 애착, 우정, 공통된 생각과 미래의 인민, 과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 휴식의 필요성과 끝으로는 나머지 우연적인 현상이다. 인간은 사회를 통하여 개별적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 인민을 알게 되며 여기서 그는 생활의 대통로들의 교차점, 각이한 사람들의 호상관계속에 빠져들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위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기의 개성적자유를 모든 사람들의 자유에 맞추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속에서 사색과 창발성이 배양된다. 호상관계와 지혜의 예술, 창발성과 경쟁의 예술은 이런 교제속에서 실지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자유와 정신과 개인적자주성의 숭고한 열감정, 다른 사람의 개성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열

렬한 존경은 사회적교양의 성과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교양은 숙련된 병사 자기 조국의 훌륭한 군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개성적기질을 인간에게 갖추어주는 것이다.

사회의 뒤에는 인민이라는 대양과 일반적인 부모자식관계가 펼쳐져 있다. 부모자식관계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성한 것이니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무가 시작되기때문이다. 군인은 오직 전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지 그의 한 부분인 자신과 가족만을 위함이 아니며 또한 군인은 전체 인민의 영생불멸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토록 생각하여온 이 세계의 고리는 후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다. 거기에 우리의 인간과 병사의 생사가 달려 있다. 그 사람들속에, 이 고리들속에, 그들의 훌륭한 활동속에 인민의 영생불멸의 비결, 다시말하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죽음을 반대하는 악과 퇴폐를 반대하는 확고부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1943년 6월 26일.

전쟁이 소나기라면 평화와 안정은 시가이다. 역사에는 시가보다 소나기가 더 많다. 악은 아직 한번도 영원히, 완전히 이겨본 적이 없다. 아마 먼 앞날에도 군인의 위치에는 원수놈들을 죽음으로 굴복시키는 다른 형태의 무기인 위대한 로력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 군관의 모범이 필요하다. 자기의 지휘관에 대한 사랑이 없는 병사는 고아이며 그런 고아는 훌륭한 병사로 될 수 없다. 군관은 실제로 우월한 인간적 및 군인적성품으로써 자기 병사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병사가 군관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진정으로 느끼며 자기의 사랑을 바칠 때라야만 군관과 고통도 함께 겪고 의무가 요구한다면 그의 곁에서 최후를 마치고도 수월한 법이다. 병사는 훌륭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놔두고 그런 사람이 죽은 후에도 수치스럽게 살아있는 것은 진짜 옳지 못한 짓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 쏘베트로씨야사람들에게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인민이 생존해온 역사적기간에 육성된 고상한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없애버리지 말고 증대시켜야 한다.

1943년 6월 30일.

전선의 침묵이 답답하다. 우리는 <귀머거리, 병어리귀신> 이라고 부르는 신호탄들을 내놓고는 그 어떤 사격이든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밤이면 멀리에서 <항공>하는 소리와 소극적인 폭격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이 전부이다. 우리 대포의 포신들은 썩어개속에서 졸고있다. 나는 온종일 여러가지 일속에 파묻혀있었다. 이 정적속에서 우리를 향해 떨어질 소나기가 모아지고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명백하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적들에게

할 대담으로 반타격의 번개를 준비한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할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제 할일을 어느정도 잘 알지만 사람은 심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견해가 그리 높은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군인에게서는 자기 인민의 모든 훌륭한 기질이 더욱 여실히 나타나며 그의 약점도 인차 드러난다. 약점이란것은 전쟁관점을 약화시키기때문에 나의 관심을 끄는것이다. 군관인 나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군사적가치가 곧 그 사람의 크기라고 할수 있다. 인간정신의 비교인식은 우리의 전쟁에서 훨씬 커진다. 정신, 이런 형태의 무기는 영원하다. 그것은 투척기처럼 동작하며 땅크들을 쏘아잡는다. 나는 항상 정신을 들여다보는데 이것은 의무이지 취미는 아니다. 앞에서 나는 인간이 자기 인민과 련결되고 결합되는 고리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수단이 더 있는바 그것은 완전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매 사람을 자기 인민과 결합시키며 자기 조국의 살아있는 세대, 앞서간 세대와 련결시킨다. 그것은 인민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주위현상을 대하는 태도이다. 인간의 사유가 마음속에서 우리나오는 일반적인 진실을 인식할 때 감정은 그에 호응하며 무장한 손은 지켜내는것이다.

인민은 자기의 세계관을 진리이며 생활의 의의라고 부른다. 로씨야의 전통적이고도 력사적인 진리탐구는 이 땅에서 인민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월혁명의 볼셰비크사상과 련결되어있다. 그때 우리의 전투함은 끝없이 열린 력사의 저 멀리로, 빛나는 공간으로 나갔었다. 지금 마주오는 전쟁의 폭풍은 우리의 전투함을 후려친다. 우리의 공통된 신념과 진리, 생활의 의의는 추상적론리와 사유로부터 감정으로, 원쑤에 대한 증오의 열망으로, 군인의 의무와 전투의 위훈으로 변화된다. 나는 이에 대하여 전 인민적, 전 군인적범위에서 충분히 고찰해보았다. 우리의 동일한 사유와 력사적진리를 배태하고있는 우리의 철학을 성서와도 같이 평범하고 모두가 알기 쉬우며 열정적이고도 신성한 감정으로 전환시켜 그것으로 하여금 병사를 끊임없이 튼튼케 하여 원쑤를 겨누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틀어쥐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령토에서 적들을 한시바빠 몰아내기 위하여 기어이 소유하여야 할 강력하고 절실히 필요한 무기이다. 이 일에서는 우리의 예술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다. 언제나가 레닌은 인민들에게 있어서 전당으로 될수 있는 극장의 의의를 높일데 대하여 언급한적이 있었다. 그는 라디오와 영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정신의 기사, 인간정신의 조직자로서의 작가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하였었다. 여기서 본질은 인간의 정신은 정리되어있어야 하

며 병사의 낮은 맨 앞자리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립장에서 많은 일을 하였으나 인간의 정신을 무장시키는 사업은 부단히 진행하여 우리의 병사가 전투행동시 완전무결하고 크나큰 마음과 지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1943년 7월 4일.

병사에게는 특수한 비밀이 하나 있다. 전쟁에서 가족과 더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는 인간적본성의 힘에 이끌려 저도모르게 군관의 모습에서 자기가 사랑하였고 고향에 두고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 찾아보려고 하는것이다. 그는 전선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애국심으로 꼭 들어찬 탓에 쓸쓸하고 공허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군관이 고결한 인간의 품성을 지닐 능력이 있고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병사들을 속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정을 리해하고 얼마나 많은것을 해줄수 있을것인가… 나는 대대라는 큰 가정에서 맏이로 살고있다. 나는 우는 소리를 할수가 없다. 하지만 모든것이 힘에 부친다. 안해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술한 걱정거리와 책임에 파묻혀 그에 대해 잊고 지내군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 생각할 겨를은 없다 해도 그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며 혹시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속에 없을수도 있기에 나의 마음은 묵묵히 괴로움을 겪고있다. 알고보면 사업이 모든것을 다 대신해줄수는 없는것이다, 생활에는 이렇게 대신하지 못할것도 있다.

1943년 7월 6일.

우리는 이틀째 적들을 견지하고있다. 적은 완강하게 압박해온다. 나의 모든 병사들과 군관들, 모든 포병들과 포중대들은 침착하고 정확하게 전투를 진행한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조국을 겨누는 적의 치명적타격을 물리쳐야 하며 지금은 바로 여기에서 적을 기진케하고 적의 방어력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지금 우리모두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있다. 인민에게로 향한 죽음의 타격을 제한함에 받아들이며 불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되기에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들중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로 깊숙이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적들과의 죽음의 전투에서 지금 처음으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게 되었다… 스프리프브네 중대의 조준수는 포기수들이 포를 검사하는동안 불비속에 앉아 장화를 고쳐신는것이였다. <당분간 대피하시오.>하고 내가 명령하였다. <동문 어째서 주의하지 않는거요?> 나는 그가 우둔하다고 생각하였다. <난 저놈들의 딸랭이소리가 겁나지 않는걸요, 중좌동지> 라고 조준수는 대답하였다. <그 소리라는게 우리한테만 크고 무서울따름이지 개미들은 땅바닥에서 기여다니고 나비들도 날아다니는걸 보니 그것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은가보지요.> 그는 공

포도 상대적인것이며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이런 철학도 역시 병사들에게 도움을 준다. 실제로 나비들은 주위에 영원한 고요가 깃들어있는듯 날아다니고 개미들은 보통때와 같이 땅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다... 장령은 우리에게 대해 만족해하였다. <숫덩어리>를 아끼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오직 소란을 피울 하나의 목적으로 포탄을 소비하지는 않으려나. 우리는 팔랭이가 아니니까.

1943년 7월 8일.

나의 사업은 낮이고 밤이고 계속된다.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견디어내고있다. 잠이 모자란다. 보가피레브대위는 중상을 당하였는데 전쟁기간에 다섯번째 부상이다. 그는 다섯번이나 조국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셈이다. 나에게 보통서류봉투에 들어있는 편지를 한통 전해주었다. 나는 그것을 읽기 시작하였다. 안해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러나 편지를 읽을 틈조차 차례지지 않아 한참후에야 마저 읽었다. 보가피레브는 부상을 당한뒤 상태가 아주 나빠졌다.

그가 나를 찾는다는것이였다. 그가 있는 엄폐부로 가니 그는 준의에게 밖에 나가있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두렵군요, 중좌동지.> 하고 보가피레브가 내게 말하였다. <저기에 혼자 가면 영원히 홀로 있어야겠는데 고독할가봐 두렵습니다. 영원이라는게 있을까요? 중좌동지도 지금 내가 겪는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괴로웠던적이 있어보았습니까?> 나는 그에게 지금도 두렵고 괴롭다고 말해주었다.

보가피레브는 흥미있어하였다. 이 흥미가 그의 립종의 고통을 얼마간 가볍게 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안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것, 루가에서 도이칠란드놈들과 맞다들었는데 그는 날래지 못하다보니 도망칠수 없었다는것, 편지가 나에게 오기까지는 한해가 걸렸다는것, 빨찌산들이 우리쪽으로 가져다주었는데 편지는 오래동안 나를 찾아다녔다는것, 안해가 쓰기를 자기네 사람들은 모두 굶어서 죽어가고있지만 자기는 나에 대한 사랑때문에 견디어 내고있다는것...

보가피레브는 얼핏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 웃음의 뜻을 깨달았다, 나는 42살이고 번대머리이다. 어떤 녀인이 나의 무슨 특별한 점을 보고 사랑할수 있겠는가?

<중좌동지의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보가피레브가 물었다. 나 자신도 그것을 모르지만 처가편지에 자기의 계획을 쓴것을 보고

추측한다. 아마 처가 빨찌산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나를 찾아 우리쪽으로 오려다가 그 길에서 희생된것 같다고 보가피레브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때부터 벌써 많은 날이 흘렀으니 그 동안이면 그가 이미 나를 찾아냈을것이다. 그는 적탄에 맞아 희생되었을것이다. 축축하고 차디찬 풀밭에 쓰러져 굳어졌을것이다. 굶주려 몹시 여위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안해... <중좌동진 지금 참으로 불행하군요.> 하고 보가피레브는 가라앉은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그를 남겨두고 나왔다. 전투에 나가야 하였던것이다. 한시간이 지나서 보가피레브가 <평온한 기분으로> 운명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모든 희생자들에게 영원한 추억이 있으라. 그들의 죽음은 우리 인민에게 삶을 가져다준다.》

《중좌자신은 어떻게 돌아가셨소?》 하고 나는 고인이 된 군관의 연락병에게 물었다.

《태연하세요.》 연락병은 대답하였다.

《배에 부상당했는데 사람에게서 이 부위가 제일 약하고 아픈 곳인데다가 거기서 피가 많이도 흘러나왔답니다. ... 나는 그에게 말했지요. <중좌동지, 출혈이 심합니다. 중좌동진 이렇게 온몸이 성하고 깨끗한데 ...>》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는 나에게 계속 캐어묻더군요. <나에게서 뭐가 또 나왔소? 피는 하얗은거구. 내 몸 안에서부터 뭐가 또 빠져나왔나?> 나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좌동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겠나요. 사람한테서 뭐가 빠져나온다구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니야, 거짓말하는구만. 나한테서 중요한것이 빠져나갔어. 말하자면 글자가 빠져나갔거든. 그게 있어서 내가 살아왔고 견디어냈는데 이젠 텅 비고 보잘것없이 되었던 말이야.》 하더군요. 그리고는 인차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립종시 그에게서 빠져나왔다는 그 중요한것이라는게 뭐요?》 하고 내가 물었다.

연락병은 깊이 생각해보았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도 죽게 되면 역시 몸 안에서 무슨 중요한것이 빠져나올테니 그때엔 알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중좌가 사람이 좋았댔소?》

《괜찮았습니다. 그는 우리모두의 추억에 남을 겁니다...》

탄부의 철학

영 명 (중국)

김기범 역

나는 해빛을 갈망했다
허나 내 가는 곳은 천길지하막장
나는 미래를 동경했다
허나 여기는 태고시대가 묻힌 곳

나의 희망은 하늘높이 날았건만
생활의 시침은 여기 땅속을 가리켰고
넓고 흰한 큰길을 확보하고싶었건만
내 가는 이 길은 이렇듯 좁구나

나는 여기 검은 탄갱을 저주하였었다
허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빛나는 여기
나는 다가서듯 겹쳐드는 암반을 미워했다
하지만 그것이 탄부들의 기개이거늘

나는 비틀려진 동발들이 두려웠다

지금은 천만근을 이 어깨에 떠메었고
매캐한 화약내, 귀아픈 착암기소리 싫었건만
오늘은 그 모든것이 아름다운 박자로 어울렸구나

이전에 나는 탄부를 바라지 않았지만
허나 오늘은 취한듯이 미친듯이 캔다 석탄을
일찌기 나는 컴컴한 굴에서 날아가고싶었다
허나 지금은 마을의 기둥을 여기 탄바다에 쿠욱
박았다

아! 탄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경건하게 끝까지
이것은 바로 나
탄부의 철학이거니
어려운 오늘을 딛고서서
아름다운 래일로 달려가는 나의 철학이다

조국과 나

조흥시(중국)

전철훈 역

크지도 않구나
무거운건 더욱 아닌 기계기름주전자
허나 내 너를 들 때면
무거운 책임감은 이 어깨를 누르고
나의 까만 눈동자에 흘러나오는건
열정과 기쁨의 샘줄기

하여 방울방울 구슬같은 기름을
돌아가는 기계에 조심조심 붓는다
사랑의 샘물 맑은 소원
나는 강철혈관속에 부어넣는다

아 력사의 사막을 헤쳐가는 조국이여
자욱을 남기며 걸음걸음 억세게 나가는 나의
조국
만일 그대 갈증으로 피로워할 때 있다면
나는 용솟는 나의 피 샘솟는 나의 땀을
아낌없이 부어주리 그대의 넓은 가슴에

비록 내 바친 이 모든것
그대의 작은 혈관밖에 채우지 못한대도
나는 부끄럼없이 말할수 있나니
나는 바쳤노라 꿈 많던 나의 생활을
나는 드렸노라 귀중한 나의 생활을!

허버트 조지 웰스의 생애와 창작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것 가운데서 좋은것은 연구하여야 합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1866~1946)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활동한 영국의 진보적인 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런던에서 멀지 않은 자그마한 지방도시인 켄트에서 태어났다. 웰스의 가정은 직업적체육 선수인 아버지가 번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였다. 아버지가 다리를 상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자 웰스는 어머니와 함께 가사를 돌보게 되었다.

그는 가난한 가정환경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꾸준히 학습한 결과 자연과학 및 정밀과학도원들을 키워내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자격시험을 치르고 23살경에 생물학학위를 받았다.

1890년대초부터 웰스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업을 맡아보면서 일련의 논문들과 수필들을 써내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작가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문단에 뚜렷이 나타냈다.

그는 대단히 방대한 창작유산을 남겨놓았다.

웰스가 창작한 작품들을 보면 40여편의 장편소설들과 수많은 정론 및 수필들, 영화대본들이다.

웰스의 창작활동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과학환상소설이다. 그는 과학환상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형식을 개척함으로써 영국의 진보적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영국문학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적내용과 정치적내용을 결합시켜 환상적으로 생활을 그려내는 독특한 소설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성공하였다.

웰스의 문학적명성은 과학환상소설들인 《시간기계》(1895), 《모로박사의 섬》(1896), 《보이지 않는 사람》(1897), 《우주전쟁》(1898), 《자던 사람이 깨어날 때》(1899)를 발표한 때로부터 널리 알려졌다고 말할수 있다.

그의 환상소설들은 당시 자본주의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경향성이 매우 강하였다.

그의 첫 과학환상소설 《시간기계》는 자본주의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적대립을 예리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에 펼쳐진 먼 미래사회는 근로자들과 착취자들이 서로 다른 《두개인종》으로 존재하는 사회이다.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 로동계급은 본능적으로 로동하는 사람으로 되었고 남이 창조한

로동의 열매를 빼앗는데 습관된 착취계급은 무위도식자로, 향락만을 아는 동물로 퇴화되어버렸다.

웰스는 바로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불상용적인 대립과 모순이 먼 후날에 가서 어떤 파멸적인 후과를 초래하는가 하는것을 이 작품에서 암시하였다.

과학환상소설 《달에 간 첫 사람》(1901)에서는 로동자들이 《손발》이 되고 착취계급은 《뇌수》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현실을 환상적형식에 담아 보다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런가 하면 과학환상소설 《우주전쟁》에서는 자본주의사회현실이 가지고있는 파멸적인 취약성을 폭로하였으며 《모로박사의 섬》에서는 이른바 《장글법칙》이 작용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현실에 대하여 폭로비판하였다.

장면과학환상소설 《보이지 않는 사람》은 건전한 과학발전을 억제하는 자본주의사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의의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 크릿힌은 사회의 온갖 방해와 생활의 곤난을 이겨내며 그야말로 단독으로 거대한 과학적발명을 한다. 그러나 그는 사회의 복리에 이바지할수 있는 발명을 하고도 도적질을 해야 하고 살인자가 되어야 했으며 나중에는 《공포정권》을 세우려는 허황한 망상도 하게 된다.

이것을 통하여 웰스는 과학발전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성, 황금만능주의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현실 그 자체가 과학자들을 범죄의 길로 이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과학환상소설 《자던 사람이 깨어날 때》도 환상적인 방법으로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비록 정의가 시련을 겪는다 하여도 결국에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밖에도 웰스는 사회정치적문제로부터 도덕률리문제, 세대적인 생활문제를 취급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렇듯 웰스는 자기의 전 생애에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창작하고 1946년에 생을 마쳤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착취사회의 부패성을 깨닫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심각한 제한성도 가지고 있다. 그의 소설들에 그려진 환상은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반영하지 못한 허황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것이였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묘사하였다.

그것은 그가 소부르쵸아적사상에 물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제한성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의 해결방도를 과학기술만능주의에서 찾은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성들이 있으나 허버트 조지 웰스는 자기의 끊임없는 창작활동으로 19세기말~20세기초 영국의 진보적문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것으로 하여 영국문학사에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남기었다.

김옥성

뿌슈킨의 단편소설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뿌슈킨은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귀족출신의 진보적인 러시아작가의 한사람입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츠 뿌슈킨(1799-1837)은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랍후한 로씨야봉건전제제도를 비판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로씨야의 진보적인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인민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뿌슈킨의 단편소설집 《벨킨씨의 이야기》는 로씨야에서 《자연과》문학의 발단을 열어놓았다.

단편소설집 《벨킨씨의 이야기》는 뿌슈킨이 1830년 가을 볼지노마에에 머물러있으면서 창작한 5편의 단편소설들을 묶은 소설집이다. 이 소설집은 뿌슈킨의 창작적개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미 죽은 벨킨이라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처럼 되어있는 비교적 길지 않은 5개의 단편소설들은 하층인간들의 불행한 처지를 인상깊게 보여주고 사회적불평등이 지배하는 로씨야의 《시골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다.

소설집은 하층인간의 불행한 처지와 운명을 보여준 단편소설 《역관지기》, 관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 하층인간의 형상을 반영한 단편소설 《관방주인》, 길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귀족들의 내면세계를 폭로한 단편소설 《발사》, 시골귀족들의 부패한 생활을 비판한 단편소설 《농촌아가씨》, 청춘남녀들의 순진한 사랑이 봉건적신분제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것을 통하여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한 단편소설 《눈보라》등로 되어있다.

특히 단편소설 《역관지기》는 가난과 무권리, 천대와 멸시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최하층관리들의 비참한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깊이있게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표시한것으로 하여 진보성을 가진다.

주인공 씬쵸트 비린은 14등급의 최하층관리로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 한생을 살아왔다. 그의 불우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딸 두냐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곳을 지나가던 장교인 민스끼가 두냐를 보고 반하여 교환한 방법으로 그를 마차에 태워가지고 뻘쵸트부르그로 달아나버린다.

주인공은 절망에 빠져 고민하다가 딸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슬픔속에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죽고 만다.

당시 사회에서 실로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는

《벨킨씨의 이야기》

한 하층관리에게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그의 일련의 긍정적특질을 보여주었다는데 이 작품이 거둔 성과가 있다. 단편소설 《눈보라》도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한 의의있는 작품이다.

너주인공 마리아는 가난한 특군소위인 올라지미르를 사랑하나 이것은 당시 신분제도에 기초하고있는 봉건제도에에서는 허용될수 없는것이였다.

작가는 마리아와 올라지미르의 사랑을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서로 대치시켜놓았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보여주는바와 같이 《눈보라》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봉건적신분제도의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리용되였다.

이렇듯 단편소설집 《벨킨씨의 이야기》는 그 주제적내용에서뿐아니라 독특한 구성과 이야기줄거리, 간결하고 소박한 묘사, 인물성격창조에서 풍자적색채가 강한 언어표현들의 활용 등 예술적 측면에서 진보성을 가진다.

그러나 단편소설집에는 일련의 제한성들도 나타나고있다.

작가는 소설집에서 19세기 전반기 짜리로씨야 봉건사회에서 시골귀족들의 부패한 생활을 비판하고 하층인간들의 비참한 운명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로부터의 출로를 깊이 모색하였으나 사회개조의 방도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작가는 하층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개별적인 관리들이나 귀족들의 도덕적수양과 선행에서 찾았다.

사회악이 범람하는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을 호소한것이 아니라 하층인간들이 당하는 고통 자체만을 그리면서 도덕적자기완성을 설교하였는데 작가의 세계관의 모순이 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봉건사회의 불합리를 없애는데서 《량심적인》 시골귀족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있다.

수도귀족이든 시골귀족이든 그들은 당시 짜리로씨야봉건사회의 지배계급, 착취계급으로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추동할수 없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뿌슈킨의 단편소설집 《벨킨씨의 이야기》는 일련의 제한성들이 있으나 천대받고 학대받는 하층인간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착취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한것으로 하여 로씨야비판적 사실주의소설문학에서 의의있는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류영식

목숨은 버릴지언정...

리 평

찌그덕, 찌쿵... 옥중한 옥문이 무겁게 열리었다. 대낮인데도 굴속처럼 어둡시그레한 옥안으로 옥사장이 황황히 들어갔다.

옥안의 한구석에 퍼더앉은 권필이앞에 다가선 옥사장은 피골이 상접한 그의 얼굴을 근심스레 여겨보며 조심히 말꼭지를 뗐다.

《저, 손님이 한분 찾아오셨습니다.》

권필은 덩덤한 표정으로 나직이 물었다.

《대체 어떤 객이기에 옥에 갇힌 나를 찾아온단 말이요?》

《예. 조국필이라는 성함을 가진 량반님이온 데...》

《조국필이가?》

조국필은 권필의 외견친척이요, 지금 한창 권세당당하고 부귀 충친한 량반관료였다. 잠시 생각을 굴리던 권필은 조국필이 자기를 찾아온 사연이 짐작되자 쓰겁게 웃으며 속바구니처럼 마구 형클어진 머리를 조용히 끄덕거리었다.

미구하여 조국필이 비단옷자락을 너물거리며 옥안으로 들어섰다.

국필은 당장 권필을 열싸안기라도 할듯 두팔을 벌려흔들며 침통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석주! (권필의 호)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소?!》...

...권필은 1569년 1월 22일 선비 권벽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를 여장이라고 하고 호는 석주라고 하였다. 이밖에 라은, 무언자라는 별호도 썼다.

남달리 강한 정의감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권필은 소년시절에 벌써 《달구지군》이라는 시로써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혹사하는 봉건 통치배들을 무자비하게 규탄하였다.

...

일조에 소죽고 사람마저 죽으면

관가에선 어딜 대고

사나운 채찍 휘두를런가?

진정코 나라에 호소하거니

하루바빠 이런 고육 없애치우라

...

일찌기 이와 같은 선진적인 견해와 그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속생각을 주저없이

토로하는 강개한 성품을 지니였기에 권필은 애초에 벼슬길에 나설것을 단념하였다. 하여 그의 집 살림은 형언할수 없이 가난하였다. 권필은 자기의 시 《가난》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송곳꽃을 땅도 없다 하건만

나는 본디 송곳조차 없도다

...

하나 권필은 결코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영달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권필은 자기의 예리하고 무자비한 필봉으로 당시 고조를 이루던 량반사대부들의 《당쟁》을 백성들에 대한 적대행위로, 추악한 《개싸움》으로 낙인하였으며 세도량반들의 저속한 부귀와 공명을 신랄히 폭로조소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한낱 선비의 몸으로서 당시 국가정사의 요직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재상들의 목을 베야 한다는 글을 지었을뿐 아니라 왜적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안고 용약 전장에 달려나가 용감히 싸웠다.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고 불의와 거짓을 끝없이 미워한 권필이었기에 《조선봉건왕조실록》에 기록되어있는바와 같이 그의 《...시 한편이 발표되기만 하면 서울안이 떠들썩하게 전하고 외웠다.》

광해군이 즉위한뒤 광해군의 폭정과 그의 비류씨의 간계로 나라정사는 더욱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고통은 더한층 증대되었다.

류씨의 오빠 류희분은 류씨의 권력을 믿고 궁중에서 제멋대로 날치였으며 출세욕에 달아오른 탐관오리들은 류희분에게 아첨을 하느라고 바이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이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깊이 헤아려본 권필은 주저없이 붓을 들었다.

그는 당시의 실재인물들인 류씨와 류희분, 그 밖에 수많은 탐관오리들의 추악상을 폭로한 세칭 《궁류시》(궁중버들)라는 풍자시를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궁중에 버들이 류달리 푸르니

피꼬리 어지러이 날아드누나

온 장안의 갯쟁이들

그것을 봄경치라 아양을 떠네

조정의 신하들은 《태평시대》 왔다고
서로들 치하하기 바빠하건만
나라를 걱정하는 진실한 목소리
선비가 하리라 그 누가 알았으리

전하는바에 의하면 이 시에서 《궁중버들》은
광해군의 비 류씨를 비유한것이고 꾀꼬리는 류희
분을 비유한것이다.

권필은 그 모든자들을 나라를 어지럽힌 간흉한
장본인으로, 백성들의 원썬로 규탄하고 조소한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권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
면서 음으로 양으로 제거할 기회만을 노리던 봉
건통치배들은 마침내 《궁류시》를 구실로 그를
체포투옥하였다.…

…눈물까지 흘려가며 권필과 그의 가족친척들
의 장래일을 녀려하던 조국필은 드디어 자기의
진속을 드러내었다.

《그런즉 그대의 귀한 몸을 어찌 한편의 시와
바꿀수 있겠소?!》

《그러니 나더러 어찌라는거요?》

권필은 심상한 어조로 되물었다.

《상감마마께서는 그대의 <궁류시>를 보시고 크
게 노하시었소. 허나 이제라도 잘못하였다는 사
죄의 글만 써서 올리면 당장 용서를 받고 옥문을

나설수 있소.》

권필은 결연히 채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니 정의와 진실을 거부하고 불의와 거
짓에 아부하라는건데… 절대로 그럴수 없소. 목
숨은 새털처럼 가볍게 버릴지언정 정의와 진실은
추호도 버릴수 없단 말ियो.》

권필의 도도한 기상과 굳센 의지앞에 기가 질
린 국필은 그만 망두석처럼 굳어져버리었다.

평소에 권필의 인간됨됨과 그의 작품들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해온 옥사장은 사무쳐오르는 걱정
과 슬픔을 누를수없어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하
였다.…

…그리하여 권필은 결국 43세를 일기로 옥중에
서 세상을 떠났다. 허나 권필은 고상한 인간적품
모와 높은 절개, 강직하고 담대한 작가적량심으
로 하여 생전에는 물론 죽어서도 세상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리정구가 권필의 문집 《선주집》서문에서 《…
여장(권필의 자)은 어찌 시에 능할뿐이겠는가?
그는 그릇된데 대하여 굴하지 않았으며 나라걱정
을 모두 시로써 표하였기때문에 세상사람들가운
데 시를 이야기하는 자는 반드시 석주의 시를 다
투어가며 전하고 외웠다》 고 한것이나, 《조선봉
건왕조실록》에서 《…그가(권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사람들이 실망하며 슬퍼하였다》 고 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